현대불교
2020년 4월 29일 수요일 제 1291 호

COVID 19
셀프힐링

길 위에 있는 동안 행복하다

둥근 우주같이 파 꽃이 피고
살구나무 열매가 머리위에 매달릴 때
가진 것 하나 없어도 나는
걸을 수 있는 동안 행복하다
구두아래 길들이 노래하며 밟히고
햇볕에 돌들이 빵처럼 구워질 때
새처럼 앉아있는 후박 꽃 바라보며
코끝을 만지는 향기는
비어 있기에 향기롭다
배드민턴 치듯 가벼워지고 있는
산들의 저 연둣빛
기다릴 사람 없어도 나무는
늘 문밖에 서있다
길들을 사색하는 마음속의 작은 창문
창이 있기에 집들은 다 반짝거릴 수 있다
아무것도 찌르지 못할 가시하나 내보이며
찔래가 어느새 울타리를 넘어가고
울타리 밖은 곧 여름
마음의 경계 울타리 넘듯 넘어가며
걷고 있는 두 다리는 길 위에 있는 동안
행복하다.

글=김재진 시인 · 사진=박재완 기자

〈셀프힐링 관련 특집 2 · 3면〉



불안 떨치고 행복한 명상

한국명상심리상담학회장 인경 스님

송지희 기자 jh35@hyunbul.com

'코로나 블루'로 지치고 불안한 마음을 차분하게 가라앉힐 수 있는 특효약이 있다. 바로 명상이다. 한국명상심리상담학회장 인경 스님(동방문화대학원 자연치유학과 교수)은 여러 명상 중에서도 지금 사람들에게 특히 필요한 명상으로 '동작 알아차림 명상'을 추천했다. 일상에서 하는 모든 동작 하나하나에 집중하는 방식으로, 부처님께서 비구들에게 설한 수행법이기도 하다. 위빠사나 교재이자 초기불교 수행 3대 경전의 하나로 꼽히는 〈대념처경〉에도 기록돼 있다. 인경 스님은 〈대념처경〉 구절을 토대로 '동작 알아차림 명상'의 방법과 의미를 조목조목 설명했다.

〈염처경〉 속 '동작 알아차림 명상'

'그리하여 비구들이여. 비구는 가까이 갈 때나 멀어질 때, 앞을 볼 때나 뒤를 돌아볼 때, 그는 분명하게 알아 행동하면서 존재한다. 굽힐 때나 펼 때, 장삼이나 가사를 수할 때, 그는 분명하게 알아 행동하면서 존재한다.'

'먹을 때나 마실 때, 씹을 때나 맛을 볼 때, 대변을 보거나 소변을 볼 때도 그는 분명하게 알아 행동하면서 존재한다. 가거나 서거나 앉거나 잠이 들었을 때, 깨어있을 때나 말할 때, 조용히 침묵할 때나 그는 분명하게 알아 행동하면서 존재한다.' 〈대념처경〉

모든 행위와 동작 하나하나를 분명하게 알아차리면서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동작 알아차림이 왜 필요할까. 그리고 이 명상을 통해 우리는 어떤 변화를 경험할 수 있을까.

스님은 "'동작 알아차림 명상'은 우리는 현재, 지금 여기에 머물 수 있도록 이끈다"고 설명했다.

"우리 인간들은 늘 딴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보통 눈이나 귀나 코, 혀 등 감각기관을 통해 정보가 들어오면 이를 그대로 수용하지 않고 의식의 구조에 따라 편집해 인식하지요. 우리 일상의 삶도 끊임없이 편집을 해서 어떤 대상이나 상황을 자기 식으로 해석하곤 합니다. 이런 습관은 우리를 현재에 살지 못하게 합니다. 지나간 과거를 후회하고 오지 않은 미래를 걱정하며 현재를 잃어버리죠. 반면 '동작 알아차림'은 있는 그대로를 보는 것입니다. 현재에 있는 내 몸을 알아차리는 과정을 통해 현재를 살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인경 스님은 "인생은 항상 지금 여기에 있다"며 "지금 이곳에서 충분하게 행복하고 충분하게 느끼지 못한다면 우리가 살아야 할 이유가 없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우리가 행복하지 못한 이유는 과거에 끌려다니고 미래에 마음이 가있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하지 않아도 될 후회로 고통스러워하고, 닥치지도 않은 일을 미리 걱정하느라 불안해하고 잠을 설쳐요. 내 몸의 행위를 알아차리고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는 것만으로 상당히 많은 근심과 걱정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습니다."

한발 더 나아가 스님은 '일행삼매(一行三昧)'를 언급했다. 일상의 삶이 모두 명상이라는 것. 일상의 모든 것이 하나의 행으로 묶어지는 깊은 삼매라는 것이다. 스님은 "밥먹을 때의 마음, 오고 갈 때의 마음, 말을 할 때의 마음이 다르지 않다"며 "걷고 소리 지르고 웃고 말하고 자고 음식을 먹는 마음이 제각각 다양해 보이지만, 결국엔 깨어있고 집중된 하나의 마음"이라고 설명했다.

"우리 일상의 하나 하나가 지금 여기 현재에 있음을 알기 위해 몸의 동작에 집중하세요. '동작 알아차림 명상'을 계속, 반복적으로 이어가면서 수행의 힘을 얻어야 합니다. 동정일여 몽중일여 오매일여로 온전하게 한 마음으로 집중해 보세요. 모기가 쇳가죽을 뚫 듯, 온전히 들어가는 순간 번뇌가 부서지는 견성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촛불 활용한 Tip 소개도

인경 스님은 동작 알아차림 명상이 좀처럼 잘 되지 않는 이들을 위해 보다 쉽게 체험할 수 있는 작은 팁(tip)도 소개했다. 방 한가운데 촛불을 두는 것이다. 그리고 촛불을 향해 걸어가며 행위 하나를 알아차리고, 촛불에서 몸을 돌려 다시 멀어질 때 그 행위에 집중한다.

인경 스님은 "시작부터 모든 행위를 알아차리기 위해 노력하기보다 하루 한번씩 잠시라도 시간을 내 꾸준히 명상하길 권한다"고 당부했다.

"우리의 인생은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존재하는 것입니다. 과거에 집착하고 미래의 무엇인가를 소유하려고 하는 이유는 공허하기 때문이예요. 지금 현재 이 순간에 집중하게 되면, 이곳 이 순간 이 곳에서 행복할 수 있습니다. 잠시라도 이를 체험하고 꾸준히 지속한다면 깊은 진리의 기쁨을 분명하게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명상 인경 스님은 한국명상심리상담학회장이자 동방문화대학원대학교 명상심리학과 교수다. 위빠사나와 간화선 수행법의 핵심을 토대로 명상 대중화를 이끌고 있으며, 도심 속 위치한 목우선원에서 지친 현대인들의 마음을 명상으로 어루만진다.



절 청견 스님은 〈절 기차게 잘하는 법〉의 저자로 20년 동안 10만명 넘게 절수행을 가르쳤다. 매월 마지막주 토요일마다 스님이 주지로 있는 법왕정사서 3000배 철야정진을 한다. 수행으로 스님은 그동안 1000만배를 해왔으며, 서울과 부산, 대구 등지에서 절수행 지도를 해오고 있다.



주력 법상 스님은 일산 덕양선원 주지. 1978년 안평 옥련암으로 출가, 1980년 광덕 스님을 계사로 수계했다. 후에 태고종 전 총무원장 운산 스님을 은사로 태고종에 입종했다. 1996년 일산 덕양선원을 개원해 수행자들을 지도하고 있다. 2014년 '대비주 수행 10년 결사'를 회향했다.



사경 김경호 원장은 1963년 전북 김제에서 태어났다. 전북대 국어국문학과를 졸업했고, 동국대학교 대학원미술사학과(사경 전공, 문학 석사)를 졸업했다. 2010년 전통사경 기능전승자(고용노동부지정 제2010-5호)로 지정됐다. 현재 국가무형문화재 사경장 보유자로 인정예고됐다.



'절+무드라' 止觀수행 완성

〈지관〉

〈절 기차게 잘하는 법〉 저자 청견 스님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불교의 대표 수행법 중 하나가 '절 수행'이다. 손을 모아 합장 후 스스로를 낮추는 절은 '불' '법' '승' 삼보에 대한 예를 올리는 경건한 자세임과 동시에 상대에게 자신을 낮추고 스스로를 돌아보는 '하심'의 표현이기도 하다. 최근에는 코로나 확산으로 직장이나 가정에서도 절을 통해 마음공부와 함께 건강까지도 함께 챙기려는 이들이 늘고 있다. '절 수행 마스터' 청견 스님으로 부터 코로나 치유의 절 수행 방법과 의미에 대해 들어보았다.

깨달은 절수행이란?

청견 스님은 코로나 시기 마음의 평화에는 '깨달은 절수행'이 좋다고 강조했다. '깨달은 절수행'은 절 하는 행위 자체보다 몸과 마음의 변화를 지켜보는 과정이 더욱 중요하다는 것으로 지관수행법의 또 다른 변형이다. 스님은 "깨달은 절수행은 마음이 찰나에 밝아짐을 즉석체험하는 기본 수행"이라며 "이를 생활화하면 참선, 명상, 염불의 효과도 배가된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깨달은 절수행'을 하는 방법은 이렇다.

바른 자세로 서서 절하며
1단계 : 무릎 꿇고 + **부처님**
2단계 : 앞으로 나가며 발포개고 + **크신은혜**
3단계 : 들어가며 몸 접고 + **고맙**
4단계 : 접족례 무드라 + **습니다**

접족례에서 일어서며
1단계 : 앞으로 나가며 발가락 꺾고 + **부처님**
2단계 : 들어가며 합장 무드라 + **크신은혜**
3단계 : 일어서며 + **고맙**
4단계 : 발 무드라, 합장 무드라로 서며 + **습니다**
※각 단계마다 몸과 마음을 지켜봄

스님이 강조하는 '깨달은 절수행'은 단전호흡 등을 함께하며 마음이 찰나에 집중한다. 합장한 손의 양 엄지손가락 끝부분을 서로 누르며 손끝과 지문, 손바닥법륜, 손목과 엄지 부위를 단전에 대고 손끝에 마음을 가져간다. 이 순간 '부처님 고맙습니다'를 3회 되새기며 마음에서 일어나는 긍정의 기운을 함께 느낀다.

여기서 무드라는 간단하면서도 효과적으로 몸과 마음의 건강을 향상시킬 수 있는 인도 요가에서 온 동작이다. 스님은 절 동작에서 손과 발의 무드라를 형성하면 보통의 절보다 그 효과가 배가됨을 강조한다.

스님의 설명에 따르면 합장 무드라는 몸의 전후, 좌우, 상하의 생체전기 에너지를 가슴 중심에 모으고 우주의 기를 모아 전신으로 순환케 하는 효과를 더한다. 합장무드라를 위해서는 양손가락을 쭉 펴고 손가락 사이를 붙이고 손바닥과 손가락 지문을 서로 밀착시킨다. 양엄지 손가락을 쭉 펴고 양손톱이 수평을 이루게 붙여보면 손바닥이 오목해지며 심장 모양의 연꽃 봉우리 같은 무드라가 완성되면 가슴 중심에 합장한 손을 밀착시킨다.

발 무드라로 무릎 꿇으며 절할 때 엄지발가락을 비롯한 모든 발가락을 강하게 꺽는다. 이는 이와 연결된 전두엽, 전전두엽을 자극해 몰입을 강하게 하기 위함이다.

스님은 "절 수행을 위해서는 완벽한 발 무드라와 합장 무드라를 하고 바르게 서서 오금, 허리, 어깨, 가슴을 당당하게 펴야 한다"며 "입꼬리 올리고, 미간 펴고 시선 180도, 부처님처럼 아름답게 미소를 지으며 명치를 살짝 들어주면서 우주의 중심 몸맘의 중심에서 우주 기운을 모으고 온몸으로 순환 시키며 자신의 몸과 맘을 온전히 깨어서 지켜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절수행 시기와 주의점은?

스님은 절하기 좋은 시간은 저녁 9시부터 10시 30분까지라고 말한다. 하루의 피로와 스트레스를 풀고 온전한 잠을 잘 수 있는 시간이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온전한 정신으로 하루 일과를 맞기 위해 아침 5시부터 7시 30분까지의 절수행도 좋다고 조언했다.

스님은 "절수행을 위해서는 특별한 도구가 없어도 된다. 자신의 방에서 요를 반으로 접어 방석을 만들어 절을 하고, 절수행 후 와선하며 수면에 들면 최상의 수행이 된다"고 전했다.

또 코로나 시기 관심이 높은 면역 증진을 위해 아침에 절을 하기 전 녹차를 조금 마시면 좋다고도 덧붙였다. 이와 함께 삼천배, 등산 등 심한 운동 후에는 찬물로 발과 무릎, 허리 등을 적시고 피로감을 없앤 후 따뜻한 물로 이완하는 것을 추천했다.

끝으로 스님은 최근 코로나로 인한 다양한 스트레스와 번뇌 망상에 매몰되며 생긴 탁기를 빼야 한다고 역설했다. 스님은 "깨달은 절 수행은 인류가 해야할 가장 거룩한 불교 수념 수행이지만, 불교를 넘어 마음의 번뇌를 없애는 데 탁월한 생활운동이기도 하다"고 강조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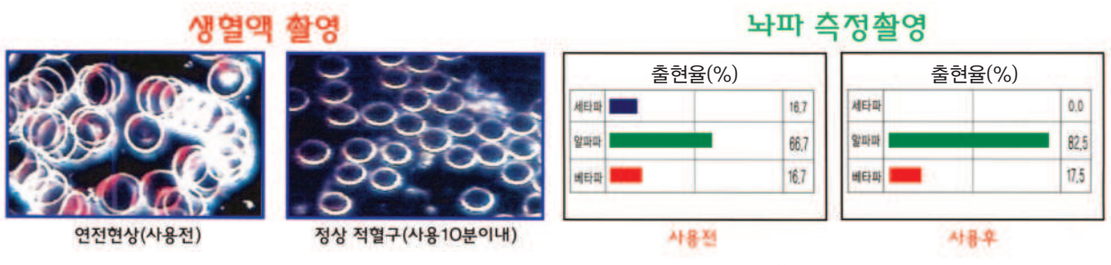
자신의 건강은 자신이 지킨다!



BLOOD MATE® (비누), ORAL MATE® (치약)의 폐렴균, 대장균, 포도상구균에 의한 항균시험 시험성적서

체외에는 머리부터 발가락 사이까지 BLOOD MATE®비누

폐렴균, 포도상구균 99.9% 정균감소하는 BLOOD MATE®비누는 비누로 샤워하고 물기를 닦은후 재차 샤워타월을 깨끗이 빨아 짠 후 비누를 다시 묻혀서 거품을 내어 머리부터 발바닥, 발가락 사이까지 거품으로 맛사지하면 머리거품이 가발을 쓴것 같지만 전신을 맛사지하는 동안 거품이 세포속으로 스며들고 전신의 거품도 세포속으로 스며들며 거품이 없어지면서 엉켜있는 연전현상의 적혈구는 정상적혈구로, 뇌파는 안정되고 혈액이 맑아지므로 혈액순환이 원활해지면서 허리통증, 어깨, 목아픔이 없어지고 뇌파가 안정되어 정신이 맑아진다.



보약을 먹은것도 아니고 주사를 맞은것도 아닌데 BLOOD MATE®비누를 단 한번쓰고 20분도 채 안되어 연전현상의 엉켜있는 적혈구가 정상적혈구로 뇌파가 안정되며, 혈액순환이 원활해지므로 허리, 목, 어깨의 통증과 다리에 쥐가 나는것을 개선하는 효과.

체내에는 구강부터 항문까지 ORAL MATE®치약

폐렴균, 대장균, 포도상구균 99.9% 정균감소하는 ORAL MATE®치약은 양치후 뱉어내지 않고 복용하면 구강부터 항문까지 사이에 폐렴균에 의한 질환개선과 대장균에 의한 식중독, 배탈, 설사가 없어지고 과식·과음시에는 속이 빨리 편안해지며 해독되면서 정신이 맑아지고 잇몸이 튼튼해져 별도의 잇몸약이 필요없고, 이나 잇몸이 아플때에는 부위에 치약을 발라만 줘도 밤새 통증이 사라진다.

포도상구균(화농성 세균)을 99.9% 정균 감소하는 BLOOD MATE®비누는 아토피, 무좀, 가려움증, 비듬, 발뒤꿈치각질, 체취 등 각종 피부질환을 없애주고 때를 일부러 밀지않고 거품으로 마사지 하면 깨끗이 세정되는 특징과 피부 보습과 투명피부의 효과로 스킨, 로션을 바르지 않는다.

BLOOD MATE® 강비누 : 25,000원2개 = 50,000원
BLOOD MATE® 순비누 : 15,000원5개 = 75,000원
ORAL MATE® 치 약 : 21,000원3개 = 63,000원
~~188,000원~~ ➡ SET 구매시 100,000원

㈜에이스 삼강 02)353-9692 010-2791-3696
농협 301-0238-2776-51 예금주 : ㈜에이스 삼강

세정제인 비누, 치약이 별도의 추가부담없이 비누는 피가 맑아져 혈액순환 정상화에 의한 피부질환 개선, 치약은 잇몸건강은 기본이고 소화불량, 식중독, 배탈, 설사가 없어진다면 이는 정부가 생산활동을 막을것이 아니라 국민건강, 인류건강을 위하여 보호하고 장려 육성하는 것이 국가의 올바른 정책입니다.

전문가에게 듣는
코로나 극복
1인 수행법

‘다라니’ 독송으로 진리 만난다

주력 수행도량 덕양선원 **법상 스님**

송지희 기자 jh35@hyunbul.com

불교의 여러 수행법 중에서도 주력(呪力)은 특히 ‘성취가 빠른 수행법’으로 여겨진다. 진언(주문)을 외우고 독송하는 과정에서 신묘하고 초월적인 힘으로 깨달음에 이를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이다. 주문에 담긴 부처님의 가르침을 잘 기억해 수지독송함으로서 지혜를 완성한다는 의미도 있다. 주력수행은 보통 다라니나 능엄주, 육자대명왕진언 등으로 진행되는데, 이 중 가장 많은 수행자들이 선택하는 것은 단연 〈신묘장구대다라니〉다. 글자 그대로 풀이하면 ‘중생들의 소견으로는 측량하기 힘든 신기하고 미묘하며 불가사의한 내용을 담고 있는 큰 다라니’라는 뜻으로, 대비주라고도 불린다.

일산에 위치한 덕양선원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대비주 수행 도량이다. 십만독 수행을 목표로 용맹정진하는 수많은 수행자들을 지도해 온 주지 법상 스님은 ‘주력의 대중화’에 한 획을 그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주력은 성취가 빠른 수행법
442 글자에 담긴 신묘한 힘
뜻 생각 말고 소리에만 집중
매일 꾸준한 실천이 중요해

법상 스님은 “코로나19 사태로 모두가 어려운 상황이지만, 시련을 기회로 삼아 수행으로 이를 극복하길 바란다”며 “〈신묘장구대다라니〉는 우주의 진리를 파장으로 담아낸 진언으로 그 자체에 공덕이 있고 밝은 에너지와 파장으로 삶을 변화시켜 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스님은 대비주 수행의 5가지 독송 원칙을 강조했다. △신묘장구대다라니 442글자를 독송하면서 귀로 듣기 △10만독을 목표로 매일 독송하기 △뜻을 생각하지 않고 소리에만 집중하기 △지성심과 자비심, 신심으로 독송하기 △마치 소신공양하듯 대비주와 하나되어 온몸으로 독송하기 등이다. “내가 독송하는 것을 내 귀로 똑똑히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육근인 안이비설신의(眼耳鼻舌身意) 중에서 듣는 것 이근(耳根)을 집중적으로 관찰하여 본원의 성품으로 들어가면 나머지 오근이 모두 열리고 깨달음의 경지에 들어서게 됩니다.”

주력은 곧 법의 소리를 관(觀)하면서 독송하는 수행이다. 때문에 글자 한자한자에 집중해 정확한 발음으로 소리를 듣는 행위가 중요하다는 설명이다. 10만독을 목표로 매일 일정한 독송수를 정하는 것은 꾸준한 수행을 위한 것이다. 몇 개월 만에 회향하는 수행자도 있고 길게는 몇 년이 걸리기도 한다. 하지만 속도는 중요하지 않으며 스스로에게 맞는 독송수를 정해서 꾸준히 하는 것이 핵심이다.

뜻을 생각하지 않고 소리에만 집중하는 것은 다소 의아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이 역시 명확한 이유가 있다. 스님은 “주력은 문자가 나오기 전의 근본 자리에 당도록 하는 수행이기에 〈신묘장구대다라니〉를 해석하지 않고 뜻을 생각하지 않고 소리에만 집중한다”며 “뜻을 생각하지 않은 채 자신의 소리만 듣고 오직 지성으로 일심으로 독송하는 가운데 현재 의식으로 하는 분별심이나 생각이 쉬게 된다”고 설명했다.

그렇다면 수행 중 번뇌 망상과 잡념이 떠오를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 “암송 중 나에게 이렇게 많은 생각이 있었나 싶을 만큼 갖가지 생각이 떠오르기도 합니다. 번뇌 망상이 올라오는 것을 알아차리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여유가 생겼다는 것이죠. 애써 없애려 하지 말고 그렇다고 끌려가지도 말고 그대로 대비주 소리에 집중하세요. 그러다보면 어느새 생각이 멈추고 잡념이 걷혀 사라질 것입니다.” 특히 법상 스님은 일상 속에서 수행을 이어갈 것을 재차 당부했다. “길을 걷고 차를 타거나 운전을 할 때, 청소를 할 때나 설거지를 할 때 잠깐 쉬는 시간이나 출퇴근 시간에, 언제 어디서든 〈신묘장구대다라니〉를 독송하라”는 것. 스님은 “삶 속에서 대비주를 놓지 않고 독송하면 미움, 분노, 화, 시기 질투, 두려움 등의 부정적인 마음을 알아차려 비우고, 본래 성품인 지혜, 자비, 복덕을 드러내어 자기 마음을 다룰 수 있는 힘을 회복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덕양선원 수행자들은 코로나 사태로 덕양선원을 방문하지 않아도 일상 속에서 흔들림 없이 수행을 이어가고 있다. 홈페이지(www.daebiju.com)를 통해 매일 오전 6시~7시, 밤 10시~11시 온라인 ‘대비주 수행실’에서 도반과 함께 정진할 수 있는 시스템도 이미 구축돼 있다. 온라인 수행실에는 정해진 시간, 누구나 참여해 함께 정진할 수 있다.



“한 획마다 집중… 禪이며 기도”

한국전통사경연구원 **김경호 원장**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사경(寫經)’은 불교 경전을 옮겨 적어 널리 전하기 위해 이뤄진 필사(筆寫)를 의미한다. 불교가 전래된 삼국시대부터 시작된 한국 사경의 역사는 처음에는 불경을 세상에 널리 보급하기 위한 목적에서 이뤄졌다.

이후 8세기 중엽 목판 인쇄술이 발달하면서 점차 스스로 공덕(功德)을 쌓는 수행으로 변화했고, 고려시대에는 불교가 국교로 공인되면서 국가 차원의 지원이 이뤄지며 사경은 전성기를 맞았다. 한민족의 사경에 대한 애정은 동아시아에서도 유명했다. 〈고려사〉 등에 따르면 국가에서 사경을 전문으로 제작하는 기관을 운영할 정도였다. 특히 ‘감지금니대방광불화엄경보현행원품(국보 제235호)’ 등 금자(金字)·은자(銀字) 형식의 사경이 많이 제작됐고, 충렬왕 대에는 중국에 수백 명의 사경승(寫經僧)을 파견하는 등 대외적으로 고려 사경의 우수성이 널리 알려졌다. 고려 사경을 복원하는 데에 40여 년의 외길 인생을 걸어온 김경호 한국전통사경연구원장은 “사경은 공덕을 쌓는 수행”이라고 강조한다. 부처님 말씀을 쓰고 마음에 새김으로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게 하는 수행이라는 것이다. 대승경전에서 누누이 사경의 공덕을 찬탄하고 있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몸·마음·재료’ 청정이 최우선
수행 잘 하려면 호흡 등을 조절
글씨 잘 쓰는 건 중요하지 않아
초심자 추천 일자불·명호사경

또한 김 원장은 “오롯이 종이와 붓 그리고 자신만이 존재하는 사경은 코로나19 확산으로 혼자 있을 시간이 많아진 요즘 추천할 만한 1인 수행법”이라고도 했다.

김 원장은 사경수행에 들어가며 가장 중요한 것은 “경전에 대한 예경과 하심을 가지는 것”이라고 했다. 사경 수행은 부처님의 법신사리를 조성하는 이후 “마음과 몸, 재료·도구 청정이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전에 대한 예경과 마음·몸·재료·도구 청정이 이뤄지고 난 후에는 자기 자신의 조절이 필요합니다. 사경은 높은 집중력을 요구하기 때문에 시작 전 자기 점검이 중요하죠. 저는 수면·음식·호흡·마음·육신의 5가지 조절을 강조합니다. 잠이 부족하면 안되고 배가 고프거나 너무 불러도 안됩니다. 호흡을 잘 조절해야 몸의 균형이 바로 세워지고 손 떨림이 방지됩니다.”

처음 시작하는 사람의 경우 글씨체에 집중하는 경우가 많은 데 글씨체는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는 게 김 원장의 조언이다. 글씨체보다는 자신의 마음에 집중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초심자들에게는 글씨가 어려운 경전 사경보다는 ‘일자불(一字佛)’ 사경·‘명호’ 사경·‘게송’ 사경을 추천했다.

“일자불 사경은 말그대로 ‘부처 불(佛)’자를 계속 사경하는 것입니다. ‘명호’ 사경은 ‘나무아미타불’과 같은 불보살 명호를 계속 쓰는 것이지요. ‘게송’ 사경은 선지식들이 남긴 게송들을 사경하는 것입니다. 이 같은 사경 수행이 익숙해지면 이후에는 〈법구경〉 〈반야심경〉과 같은 비교적 짧은 경구의 경전들로 늘려나가는 것이 좋습니다.”

김 원장은 붓이나 펜 끝에 집중하며 경전의 의미를 되새기는 사경 수행 안에는 “선(禪)이 있고, 염불과 기도도 있다”고 강조했다.

“고도로 집중해 경구 한 획 한 획을 써내려가는 게 사경 수행이다. 펜 끝에 모든 것이 집중된 상태가 ‘선정(禪定)’입니다. 마음을 하나로 집중시켜서 동요시키지 않는 것입니다. 이 같은 행위가 곧 선입니다. 끊임없이 부처님과 보살을 명호하며 사경하면 염불이자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또한 곧 간경(看經)을 통해서 경전의 내용을 알고 사경을 하니 간경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사경은 수행 자체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경 수행의 이점은 무엇일까. 김 원장은 “집중해 사경을 하다보면 온갖 잡념, 번뇌, 망상들이 소멸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처음과 끝이 한결같은 사경수행이 좋다며 조언과 당부를 전했다.

“사경을 마무리하면 경전 의미를 되새기고 예경한 뒤 회향해야 합니다. ‘사경 공덕이 일체 중생에게도 돌아가길 바란다’고 서원하며 회향하는 것이지요. 가급적이면 하루 시간과 분량을 정해서 사경 수행을 하는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사경이 습관이 되면 주위 장애가 없어지는 것을 확연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나를 바꾸는 ‘수행’ 코로나블루 특효약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인한 부작용이 크다. 위축된 사회분위기가 여전한 가운데 경기침체, 가정경제 파탄으로 인한 사회적 고통이 급격히 확산되고 있다. 여기에 이후 우리사회가 어떻게 변할지에 대한 불안감까지 더해졌다. 내 마음을 변화시키는 처방전이 필요한 순간이다.

명상과 절, 주력과 사경. 각 수행을 이끄는 전문가의 조언으로 ‘초심자도 혼자 할 수 있는 수행 길라잡이’를 마련했다. 그간 수행에 관심이 있었지만 기회가 닿지 않았거나, 우울하고 불안한 마음을 추스르기 어렵다면 누구나 쉽게 따라할 수 있는 4가지 ‘수행’으로 내 마음에 활기를 선사해 보는 것이 어떨까.

www.boryeon.com
연등설치 문제로 더 이상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설치 – 철거 – 보관 – 유지관리까지 보련기획이 책임집니다.
부처님오신날 장엄등
사찰명 인쇄
주문 접수 중
도량장엄 전문기업
보련기획
설치에서 철거까지 책임시공
보관 및 유지관리 대행
상황에 맞는 다양한 계약조건
별도의 공사 불필요
보련기획 BORYEON
010-5381-9355
031)526-2201~2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모현면 일산리 549-1






조계종 '청정사찰 실천 지침' 시달

정부 완화 정책 맞춰 5번째 지침 내려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은
5월 5일까지 계속 유지
법회, 지침 준수하며 실시
템플스테이 부분적 재개

신성민 · 노덕현 기자

정부가 오는 5월 5일까지 완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를 지속할 것을 밝힌 가운데 조계종 총무원(원장 원행)이 5번째 지침을 일선 사찰과 단체에 시달했다.

조계종 총무원은 "최근 발표한 방영 당국의 지침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은 5월 5일까지 계속 유지하되, 기도와 법회 등은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한 청정 사찰 실천 지침'을 준수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해 부분적으로 시행하라는 지침을 전국 사찰에 시달했다"고 4월 20일 밝혔다.

조계종의 5번째 지침인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한 청정 사찰 실천 지침'은 사찰 일상 속 예방 지침과 기도 · 법회 시 실천 지침으로 나눠져 있다.

일상 속 예방 지침으로는 △사찰 방문객 마스크 착용 필수 △상주 대중과 종무원 마스크 착용 일상화 △법당 · 전각 출입 시 출입기록 작성 및 증상 확인 △사찰 · 전각 입구 손소독제 비치 △공용물품 최소화 및 수시 살균 · 소독 △상주 대중 공양 시 일방향이나 지그재그로 앉기 등을 시달했다.

기도 · 법회 실천 지침으로는 △사전에 증상유무 확인 △법회 참석 신도 명단 작성 △개인 간격 1m이상 유지 △공양간 · 음수대 운영 중단 및 떡 · 과일 · 생수 대체 △참석자 반드시 마스크 착용 △공용 방석 · 법요집 사용 자제 △법회 전후 실내 공간 전체 소독과 방역 △노약자, 기저질환자 신도들 가정서 신행활동 유도 및 안내 등을 제시했다.

의심자 확인시 출입을 금지하고 신원 확인 후 관할 보건소와 1339로 연락할 것과 출입구 주변을 소독하고 상황을 각급 기관과 공유할 것도 시달했다.

이와 함께 조계종은 지역 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들의 고통을 함께하기 위한 봉사 · 지원 등의 활동을 적극 실천하고, 사찰과 가정에서 '코로나19 극복과 치유를 위한 기도정진'에 함께 동참할 것을 권고했다.

또한 사찰 소임자 중 1인을 방역담당자로 지정해 사찰에서 코로나19 관련 상황이 발생할 경우 교구본사 및 종단과 비상연락 체계를 갖추도록 관련 지침을 시달했다.

조계종은 "향후 정부 방역당국의 추가적인 지침이 있을 경우 이를 확인해 사찰에 추가적인 지침을 시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계종은 코로나19가 확산됨에 따라 종교계에서 가장 먼저 선제적 대응에 나서 세간의 주목을 받았다. 조계종은 지난 2월 20일 1차 긴급지침을 발표한 이래 2월 23일 2차 지침, 3월 19일 3차 지침, 4월 2일 4차 지침을 시달하고 법회 · 기도 연기와 자제를 일선 사찰에 당부한 바 있다. 부처님오신날 연등회 역시 방역상황을 고려해 윤4월 8일로 맞춰 연기해 5월 23~24일 열리게 된다.

이와 함께 사회적 거리두기 강도가 완화됨에 따라 전국 템플스테이 운영이 부분 재개된다. 한국불교문화사업단(이하 문화사업단, 단장 원경)은 "전국 139개 템플스테이 사찰의 프로그램 운영을 부분 재개한다"고 4월 20일 밝혔다.

완화된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 중인 만큼 사찰에서 개별적으로 시간을 보내는 휴식형 템플스테이 프로그램만 진행한다.

아울러 문화사업단은 전국 템플스테이 운영 사찰에 코로나19 관련 대응 지침을 충실히 이행해줄 것을 당부했다.

문화사업단장 원경 스님은 "정부가 종교시설 등에 대한 사회적 거리두기 제한을 일부 완화함에 따른 결정"이라며 "코로나19 장기화로 많은 분들이 우울감과 피로를 호소하고 있다. 대국민적 '코로나 블루(우울증)' 극복에 도움이 되고자 템플스테이 운영을 재개했다"고 말했다.

이어 "아직은 사회적 거리두기가 지켜지는 만큼 템플스테이 운영사찰은 철저한 예방과 관리에 더불어 건강에 반드시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한일불교협 새 이사장 진각종 회성 정사 선출

부이사장 인구 스님 연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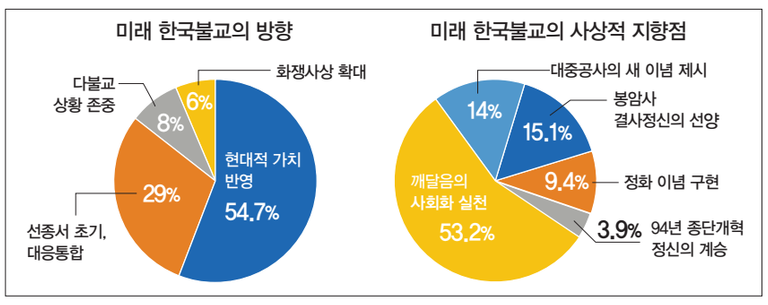
진각종 통리원장 회성 정사〈사진〉가 한일불교문화교류협의회 이사장으로 선출됐다.

한일불교문화교류협의회는 4월22일 "3월 개최 예정이었던 제40차 정기총회가 코로나19로 장기간 연기됨에 따라 지난해 12월 제3차 상임이사회에서 결정된 추천안에 따라 서면결의로 회성 정사가 신임 이사장으로 선출됐다"고 밝혔다. 부이사장에는 보문종 총무원장 인구 스님, 사무총장에는 (재)대한불교원효종 총무원장 향운 스님이 연임됐다.

한편 한일불교문화교류협의회는 일한불교교류협의회와의 논의를 통해 6월8일 개최 예정이었던 제40차 금산사대회를 내년 6월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신성민 기자

스님들 '불교 대중화 · 현대화' 열망

불교사회硏 설문 결과 발표
조계종 스님 1만명 대상 실시
수행체계 · 교리 재정비 요구



조계종 스님들은 미래 불교를 대비해 종단이 기존 선불교보다는 대승불교의 정체성을 강화하고, 보살행 등 현대적 가치관을 실현하는 방향으로 변화해야 한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이를 위해 교학 및 수행체계, 교리에 대한 현대적 재정비 등 변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이 같은 인식은 불교사회연구소가 조계종 스님 1만명을 대상으로 처음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통해 드러나 주목된다.

조계종 백년대계본부 불교사회연구소(소장 원철)는 4월20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종단 미래설계를 위한 여론조사 결과보고'를 공개했다. 여론조사는 지난해 11월부터 올 1월까지 전국 25개 교구본사 스님 1만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로 진행됐다. 종단 소속 스님들을 대상으로 종단 미래를 주제로 대규모 설문을 진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설문은 △신도영역 △미래사회 사찰의 역할 및 의례의식 △출가자 관련 종책과 대중생활 △종단의 현재와 미래지향적 종책 △신행과 사회적 역할 등 5개 주제로 분류한 100여개 문항으로 구성됐으며, 중앙승가대 불교사회과학연구소(소장 유승무)가 선방수좌 296명을 포함한 1671명의 유효응답을 집계해 분석했다.

설문 결과 조계종 스님들은 승가 고령화와 출가자 및 스님수 급감, 종교지형 변화로 인한 신도수 감소 등 종단 미래에 대한 위기감을 명확히 인식하고 있었으며, 이에 불교가 나아가야 할 방향 재정립 및 종단 미래를 위한 변화에 강한 열망을 드러냈다.

결과보고서에서 가장 눈길을 끈 항목은 종단의 미래지향적 종책 분야다. 특히 미래 한국불교의 방향과 관련한 질문에서 '조계 선종의 입장에서 초기불교와 대승불교를 아우른다'는 현행방침을 선택한 비율이 29.0%인데 반해 '대승불교의 입장에서 보살행을 비롯한 현대적 가치관을 반영한다'를 선택한 비율은 54.7%로 과반수를 넘었다. 종단의 기본적인 지향점인 선불교보다 대승불교 정체성 강화의 필요성을 인식하는 비율이 높은 셈이다.

한국불교의 사상적 지향점에 대해서도 응답자의 과반(53.2%)이 '깨달음의 사회화 실천(혹은 불교의 사회참여 강화)'를 꼽은데 반해, 기존 조계종의 사상적 뿌리로 손꼽혀 온 '봉암사 결사정신의 선양'와 '94년 종단개혁 정신의 계승', '정화이념의 구현'은 각각 15.1%, 3.9%, 9.4%에 그쳤다. 이는 미래 사찰의 역할 항목에서 사찰의 지역사회 참여와 지역공동체 활동에 대해 85%가 동의한다고 답한 것과도 맥을 함께한다.

또 교학 및 수행체계 정비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도 높았다. 응답자의 31.0%가 '매우 필요하다' 49.3%가 '필요하다'고 답한 반면 동의하지 않는 비율은 6.9% 수준에 그쳤다. 현대사회 및 현대인의 근기에 부합하는 교리의 필요성 여부를 묻는 항목에서 85.1%가 동의했다는 점에서, 스님들 상당수가 교학 및 수행체계의 현대적 변화를 요구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원철 스님은 "조사를 토대로 포커스 그룹 대상 집중설문 및 인터뷰, 토론회 등 후속연구를 진행해 대안을 모색하고 종책 변화를 이끌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송지희 기자

종교계, '코로나 취약계층' 지원 연대

3대종교, 4월22일 토론회
'종교의 사회적 역할'모색
지몽 스님, 기도회 제안도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경기침체, 경제위기에 대한 우려가 높다. 생계의 사지로 몰리고 있는 그들을 위해 종교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고민 끝에 불교, 가톨릭, 개신교가 사회적 취약계층을 위한 협력과 연대를 재차 약속했다. 특히 불교계는 한발 더 나아가 코로나19로 인한 희생자와 유가족을 위로하는 기도회를 제안해 눈길을 끌었다.

불교, 가톨릭, 개신교 등 3대 종교는 4월22일 명동 가톨릭회관에서 '코로나19가 불러온 위기와 종교의 사회적 역할'을 주제로 3대종교 토론회를 개최했다. 김혜진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상임집행위원이 발제하고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부위원장 지몽 스님과 이주형 천주교서울대교구 노동사목위원장, 최형묵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정의평화위원장이 각 종교를 대표해 토론자로 참석했다.

김혜진 위원은 '코로나19 이후의 정세와 요청' 발제를 통해 이 시점 불안정노동자들이 처한 실태를 가감 없이 드러냈다. 김 위원은 "그동안 권리를 보장받지 못했던 비정규 · 특수직 등 불안정노동자들이 코로나19로 인한 피해를 직접 받고 있다"며 "재난은 모두에게 평등하다고 하지만 이로 인한 고통은 평범하지 않다. 노동 · 인권 등 권리의 사각지대에 놓인 분들의 삶이 무너질 뿐 아니라 사각지대가 오히려 확대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종교계에 대해 "연대체가 없고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사각지대의 수많은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듣고 사회에 알려 사회보장제도가 본연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변화를 이끌어 주길 바란다"며 "또 사람의 생명은 가장 소중한 가치임을 잊지 않도록 힘을 보태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3대 종교계는 "가장 소외된 이들을 위한 연대와 협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한 목소리로 약속했다.

조계종 사노위 부위원장 지몽 스님은 "사회적 아픔과 고통이 있는 곳에 당연히 종교가 있어야한다는 것은 의무이자 책임"이라며 "탈종교가 가속화되는 요즘 종교간 화합과 협력을 통해 이 위기를 극복해 나가는데 도움이 된다면 절망과 고통으로 힘든 분들에게 큰 힘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종교계가 이를 위해 개별적 신앙을 초월해 사랑과 자비의 마음을 모을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 스님은 "종교계가 지속적인 논의를 통해 실질적인 활동을 해야 한다"며 "코로나19로 인해 이별과 애도의 시간도 없이 떠나고 떠나보내야만 했던 희생자와 유가족분들을 위한 기도회를 추진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제안했다.

송지희 기자 jh35@hyunbul.com

동국대 문과대학 교수 제자 위한 장학금 쾌척

20일 학교에 1000만원 전달

동국대 문과대학 교원 34명은 4월 20일 윤성이 동국대 총장을 찾아 "'코로나19 장학금'으로 사용해 달라"며 1000만원을 전달했다.

이날 전달식에는 문과대학 교수들을 대표해 김환기 문과대 학장, 장영우(국어국문문예창작학부) · 이장욱(국어국문문예창작학부) · 박광현(국어국문문예창작학부) · 김영진(철학과) · 박명관(영어영문학과) 교수 등이 참석했다.

이번 기금은 코로나19로 인해 형편이 어려워진 제자들이 많아졌다는 이야기를 들은 문과대학 교수들이 모은 것으로, 문과대학 학생들의 장학금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이번 기부에 대해 윤성이 총장은 "어려울 때 가장 먼저 솔선수범해 주셔서 더없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글=신성민 기자, 사진=노덕현 기자



동국대 문과대학 교수를 대표해 장영우 국어국문문예창작학부 교수(사진 오른쪽)가 '코로나19 극복 장학금'을 4월 20일 윤성이 동국대 총장(사진 왼쪽)에게 전달하고 있다.



적멸보궁 정암사 '수마노탑' 국보 승격

문화재청 오는 23일 지정 예고
분황사계 모전석탑 전통 전승
석회암 같은 만든 벽돌로 조성
조선 초 형성 보궁신앙 대표塔
안동 봉황사 대웅전 보물 승격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지난 2011년부터 추진돼 온 정선 정암사 수마노탑(보물 제410호, 사진)이 드디어 국보로 승격된다. 또한 안동 봉황사 대웅전(경북 유형문화재 제141호)은 보물로 승격될 예정이다.

문화재청(청장 정재숙)은 4월 23일 보물 제410호 정선 정암사 수마노탑을 국보로 승격 예고하고 경북 유형문화재 제141호 안동 봉황사 대웅전은 보물로 승격을 지정예고했다.

'정선 정암사 수마노탑(이하 수마노탑)'이 소재한 정암사는 신라 자장율사가 당나라 오대산에서 문수보살로부터 진신사리를 받아 귀국한 후 643년(선덕여왕 12)에 창건했다고 전해지는 천년 고찰이다. 정암사에는 수마노탑을 바라보는 자리에 적멸보궁이 자리 잡고 있으며, 이는 통도사, 오대산 중대, 법흥사, 봉정암의 적멸보궁과 더불어 우리나라 5대 적멸보궁으로서의 위상을 가지고 있다.

수마노탑이라는 명칭은 불교에서 금·은과 함께 7보석 중의 하나인 마노(瑪瑙)와 관련이 있다. 자장율사가 진신사리를 가지고 귀국할 때 서해 용왕이 자장의 도력에 감화하며 준 마노석으로 탑을 쌓았고, 물길을 따라 가져왔다 해서 '물 수(水)' 자를 앞에 붙여 '수마노탑(水瑪瑙塔)'이라 불렀다는 설화가 전한다.

수마노탑은 고려시대 조성됐을 것으로 추정되는 모전석탑이다. 기단 6단·탑신 7층·상륜부로 구성돼 있으며 탑의 높이는 9m이다.

한국에서 찾아보기 드문 모전석탑은 재료를 벽돌처럼 쌓아서 탑을 조영한 '전탑계'와 석탑처럼 적층해 조성한 '석탑계'로 나뉜다. 국보 제30호 경주 분황사 모전석탑이 우리가 알고 있는 대표적 '전탑계 모전석탑'이며, 정암사 수마노탑도 이에 해당한다. 현재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된 모전석탑은 국보 4개, 보물 5개이며, 이중 전탑계 모전석탑은 총 4개(국보 2개, 보물 2개)다.

또한 정암사와 수마노탑은 현존 적멸보궁 가운데 설악산 봉정암과 함께 석탑을 이용해 보궁을 형성한 사례로 주목된다. 특히, 석재를 벽돌 형태로 가공해 축조한 모전석탑 형식과 정암사 가람 전체를 조망할 수 있는 장소에 건립한 것은 고려 시대 유행한 비보사탑 개념 속에서 건립이 이뤄졌음을 보여준다.

문화재청은 "수마노탑은 기단에서 상륜부까지 완전한 모습을 갖추고 있는 모전석탑으로, 석회암 지대라는 지역적 특성을 반영해 고회암(돌로마이트)으로 제작됐다. 사리신앙과 산천비보사상을 배경으로 높은 암벽 위에 조성된 특수한 석탑"이라며 "탑지석을 비롯한 자료에서 수리기록과 연혁을 알 수 있고, 모전석탑으로 조성된 진신사리 봉안탑으로는 우리나라에서 유일하다는 점에서 국가지정문화재 국보로 역사·예술·학술 가치가 충분하다"고 평가했다.

이와 함께 보물로 지정 예고되는 '안동 봉황사 대웅전'은 건립 시기가 정확하게 확인되지 않지만, 대웅전의 내력을 추론해 볼 수 있는 사찰 내 각종 편액(扁額)과 불상 대좌의 묵서, 그 밖에 근래 발견된 사적비와 중수기 등을 종합해 보면 17세기 후반 무렵 중건된 것으로 추정된다.

봉황사 대웅전은 삼존불을 봉안한 정면 5칸의 대형 불전이며, 팔작지붕을 하고 있다. 전면의 배흘림이 강한 기둥은 조선 후기에는 찾아보기 어려운 양식이다. 대웅전의 외부 단청은 근래에 채색됐지만, 내부 단청은 17~18세기 재건 당시의 상태를 온전하게 잘 보존되고 있다.

문화재청은 "봉황사 대웅전은 17세기 말에 건립된 이후 여러 차례의 수리를 거치면서 현재에 이르고 있으며, 정면 5칸의 당당한 격식을 간직한 조선 후기의 불전"이라고 지정 예고 이유에 대해 밝혔다.

한편, 문화재청은 국보와 보물로 각각 지정 예고한 정선 정암사 수마노탑과 안동 봉황사 대웅전에 대해 30일간의 예고기간과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보와 보물로 지정할 예정이다.

통도사, 생전예수재·가사불사 봉행한다

윤달 맞아 5월 3일 입재
6월 20일까지 작법 시연
영산전서는 가사방 운영
재가불자들 동참해 제작

부산 통도사가 음력 4월 윤달을 맞아 '생전예수재'와 '가사불사'를 봉행한다. 통도사(주지 현문)는 '생전예수재'를 5월 3일~6월 20일, '가사불사'를 5월 3일~6월 15일 동안 진행한다고 밝혔다.

생전예수재는 자신이 살아 있는 동안 다음 생에 받을 과보에 대해 미리 재(齊)를 지내는 의식으로 일명 '생재(生齊)'라고도 불린다. 죽음을 미리 생각하며 삶을 돌아보는 기간으로 자신을 위해 미리 올리는 천도재다.

입재는 5월 3일 오전 10시 설법전에서 봉행된다. 이후 매주 일요일 오전 10시 불공으로 시작해 오전 11시 법사 스님들의 법문이 이어진다.

법문은 △입재 5월 3일 혜남 스님(통도사 전계사) △5월 10일 광우 스님(통도사 노전) △5월 17일 법산 스님(전 동국대 이사장) △5월 24일 지안 스님(조계종 고시위원장) △5월 31일 인해 스님(통도사 강주) △6월 7일 우진 스님(서축암 감원) △6월 14일 선행 스님(전 선운사, 백양사 강주) △회향 6월 20일 현문 스님(통도사 주지)이 설법한다.

생전예수재는 윤달이 끝나는 날을 기준으로 49일간 진행되며 매주 법회 후 천도재가 봉행된다. 특히 회향일에는 생전예수재 천도재 전통의식을 원형 그대로 보여주는 작법이 선보인다. 회향법회는 오전 8시에 시작하며 생전예수재 전통 작법의식을 위해 전통범음범패 스님들이 동참할 예정이다.

통도사 가사불사는 생전예수재와 동일한 5월 3일 입재해 지장재일인 6월 15일 오전 10시에 회향한다.

통도사는 가사불사를 위해 영산전에 가사방을 운영한다. 가사불사 기간 동안 재가불자들은 영산전에 모여 스님들이 수하는 오조가사와 마니가사(보살계를 15회 이상 수지한 불자들이 입는 가사)를 직접 만들며 제작에 동참한다. 통도사는 영산전에 전통 가사를 전시하고 일반인에게 공개할 예정이다. 가사불사를 위해 도편수로 명천 스님이 지도한다. 명천 스님은 고려 가사를 고증 복원해 손으로 손수 지은 작품 '복전의(福田依)'로 제24회 대한민국불교대전에서 대상을 수상했다.

가사불사 회향일에는 불자들이 제작한 가사와 조계종 가사원에서 제작한 대가사를 함께 영산전에서 설법전까지 이운한다. 이운식은 통도사 율원에서 집전해 가사를 이운하고 설법전 상단에서 가사 점안식 후 스님들께 공양한다. 이운식에서는 불자들이 동참해 꽃가루를 뿌리며 가사불사에 장엄함을 더 할 예정이다.

통도사는 "생전예수재는 모든 존재에게 필연적인 죽음을 수행방편으로 삼고 살아 있음의 의미를 재확인하는 시간이 될 것이다"며 "가사불사는 법의를 공양 올리는 뜻 깊은 불사이다. 통도사 가사불사는 전통을 계승할 뿐 아니라 동시에 성불의 씨앗을 심는 소중한 인연의 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통도사는 모든 법회와 행사에 있어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종단과 관공서 지침을 엄격히 준수할 것을 밝혔다. 055)381-1288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태고총림 선암사 특별강원 문 열다

4월 22일 입학식 개최



선암사는 4월 22일 특별강원 입학식을 개최했다.

스님들의 향학열은 코로나19도 막을 수 없었다. 태고총림 선암사(주지 시각)는 4월 22일 경내 만세루에서 40여명의 신입생이 참여한 가운데 '2020학년도 선암사 전통불교강원 부설 특별강원 입학식'을 개최했다. 이날 입학식에는 기존 전통강원 17명과 특별강원 24명이 신입생으로 참석했다.

특별강원은 배움의 기회를 놓친 여러 종단 스님들에게 전통강원의 공부방식으로 별도의 교육기회를 제공하는 것으로 24명의 입학생이 참여했다. 특히 코로나19로 학사 일정이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했으나, 전국적으로 5개 종단의 신입생들이 참여해 눈길을 끌었다.

입학식에서 주지 시각 스님은 "선암사는 태고종의 유일한 총림으로 오랜 기간 수많은 선지식을 배출한 선교양종의 근본도량"이라며 "사찰운영이 힘든 가운데서도 부처님 법 공부를 위해 참여해 주신 수행자들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개원 7주년 김해 바라밀선원 '삼존불' 점안

4월 18일 점안법회 봉행



바라밀선원은 4월 18일 '개원 7주년 기념 삼존불 점안법회'를 봉행했다.

경남 김해 바라밀선원이 개원 7주년을 맞아 삼존불 점안식을 봉행했다. 바라밀선원(주지 인해)은 4월 18일 선원 내 법당에서 '바라밀선원 7주년 기념 삼존불 점안 대법회'를 봉행했다.

법회에는 증명법사로 고시위원장 지안 스님이 동참했으며 통도사염불대학원장 영산 스님, 불복장 작법전수자 정각 스님 등 사부대중 150여명이 참석했다.

법회는 예불과 점안식으로 진행됐으며 지안 스님의 법문 및 인사말이 이어졌다.

지안 스님은 "부처님을 모신 공덕으로 바라밀선원 신도 여러분들은 지역사회에 덕을 펼치고 건전한 사회로 발전하며 삶이 편안해지길 바란다"며 정진을 당부했다.

바라밀선원은 주불인 석가모니불상 좌우에 아미타불상과 약사여래불상을 조성해 점안했다.

성낙두 경남지사장

불자기업 제주푸드, 소외계층에 생닭 전달

태고종 전북종무원 통해 2천마리 보시



제주푸드는 소외계층을 위해 닭 2천마리를 전달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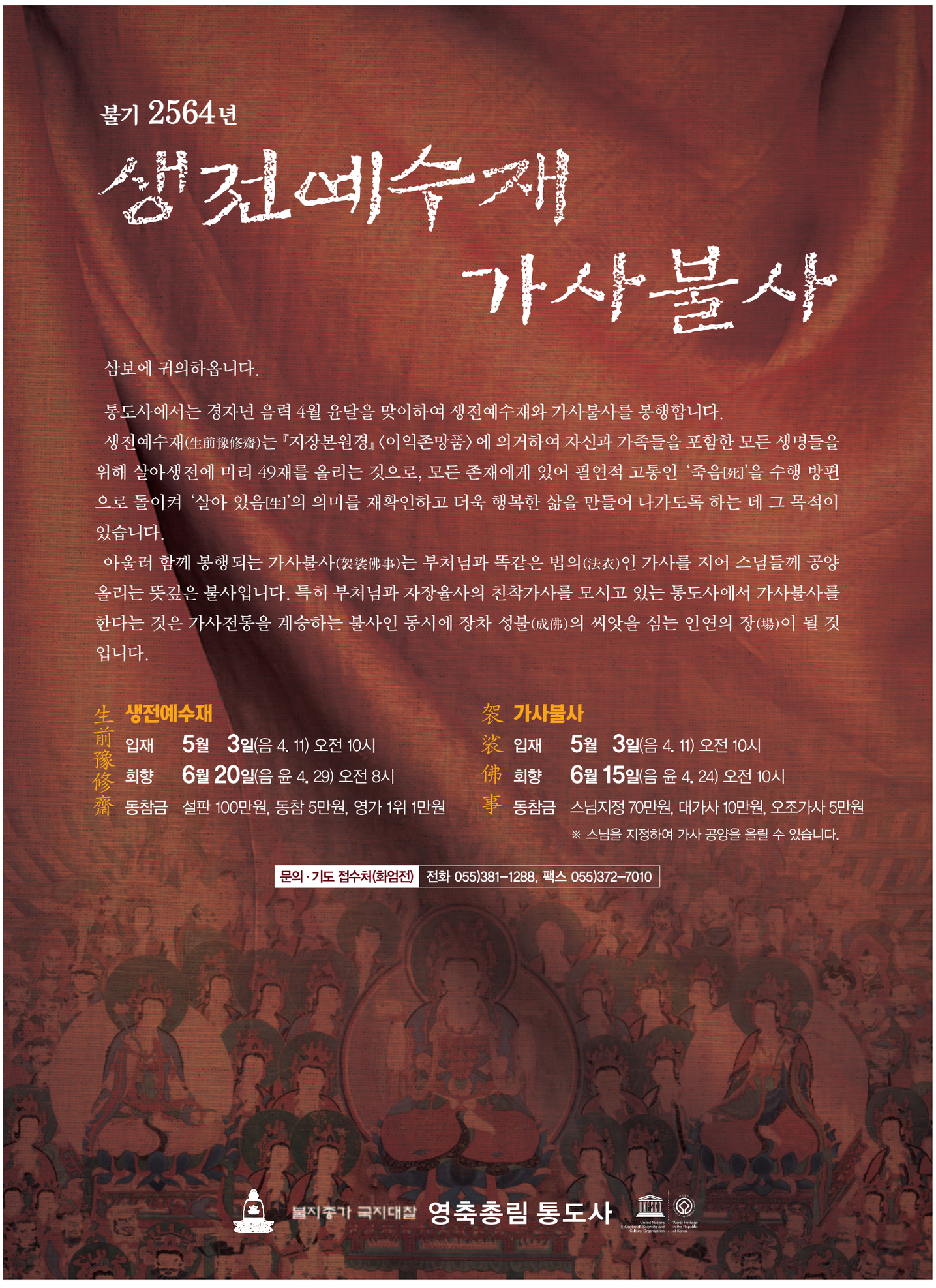
대구의 대표적인 불자기업인 (주)제주푸드시스템(공동대표 권오삼, 박용관)이 코로나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외계층을 위해 백숙용 생닭 1,800마리를 보시했다.

(주)제주푸드시스템은 4월 21일 태고종 전북종무원장 진성 스님과 대구 혜인정사 주지 진송 스님을 통해 전주교도소, 전북경찰청, 완산경찰서 방범순찰대, 전주소년원, 청소년쉼터 천사마을, 전북종무원 교구 1사 1선행 운동에 동참하고 있는 사찰에 전달됐다.

이번 생닭나눔은 진성 스님과 진송 스님의 주선으로 마련됐으며 코로나 사태로 면회가 완전 차단된 전주교도소 수용자들에게 800마리, 전주소년원에 100마리를 전달했다.

또 전북 경찰청과 완산경찰서 방범순찰대에서 근무하는 전의경들의 사기진작을 위해 500마리의 닭을 전달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현불 논단

잠깐 멈추니 보이는 것들

석길암
동국대학교 경주캠퍼스 불교학부



긴 사회적 거리두기 속
취약계층 피해 확산돼
모두를 끌어안는 노력
불교계의 당위적 책무

삶의 '잠깐멈춤' 속에서
당연시된 타성 의문생겨
발전 · 성장주의 경종 의미
삶에 대한 성찰 필요해

코로나 팬데믹이 세상을 휩쓸고 있다. 코로나19는 독특해서 사회의 빈부를 절묘하게 파고드는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 육체적으로는 쇠약한 자를 집중 공격하고, 물질적으로는 가난한 자를 집중 공격하고, 의료적 측면에서는 의료시스템이 취약한 곳을 집중 공격하고, 사회적으로는 안전망이 약한 곳만 골라서 집중 공격하는 것처럼 보인다.

세계 대부분의 국가들은 코로나 팬데믹에 대응해 인간과 인간의 사이에 물리적 거리라는 장벽을 설치하고 있다. 일명 '사회적 거리두기' 혹은 '물리적 거리두기' 운동이다. 코로나19가 가진 근본적인 약점을 활용해서, 사회가 그리고 인간이 당할 수 있는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노력이다.

이 같은 대응은 일정 부분 성공을 거두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그 성공의 다른 쪽에서는 인간 개개인과 사회 시스템 전체에 있어서 적잖은 희생을 감수하고 있고, 또 그 시스템에서 취약한 계층이 더 많은 피해를 당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여전히 제대로 대응 못할 수밖에 없는 취약계층은 존재한다. 그리고 그러한 취약계층을 끌어안고, 모두를 끌어안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종교계 특히 우리 불교계가 당위적으로 받아들여야 할 책무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든다.

이 같은 팬데믹 사태가 끝났을 때, 우리의 삶이 어떻게 바뀔 것인가 하는 것 역시 중요한 문제로 마음 한쪽의 화두로 남아있다.

반면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바쁘지 않은 혹은 바쁜 일상에 대응하는 방법론의 근본적인 변화가 우리 삶의 방식에 전혀 새로운 과제를 환기시킨다. 가족 내부 구성원 간의 관계 역시 만만찮은 변화의 경험을 제공하고 있음을 부정하기 힘들다.

필자는 스스로와 주변의 삶에 일어나고 있는, 콕 찍어서 말하기 힘든 이러한 변화들을 '잠깐 멈춤'이라고 표현하고 싶다. 지금까지 살아온 삶의 방식과 지금까지의 생각하는 방식에 고민을 던지게 하는 그 '잠깐 멈춤'이다. 그런데 그 '잠깐 멈춤'이 의외로 길어지면서, 우리가 당연하게 받아들였던 삶의 타성들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것이다. 혹은 산업화 이후의 최근 백여 년에 이르는 동안, 우리 인간이 추구해온 발전과 성장 위주의 삶에 경종을 울리는 '잠깐 멈춤'으로도 읽힌다.

올해 2564번째로 맞이하는 부처님 오신 날은 유독 길어졌다. 코로나 팬데믹에 대응하기 위해 범불교계가 올해의 부처님 오신 날 봉축법요식을 윤4월 초파일인 5월 30일에 치르기로 연기하면서다. 실제로는 한 달 동안 내내 부처님이 우리 옆에 머물면서, 우리 삶에 화두를 던지시게 된 셈이다.

언제나처럼 단 하루에 불과한 부처님 오신 날이었다면, 올해도 여느 해처럼 몇몇 사찰을 찾아다니며 연등공양을 올리기 바빴을 것이다. 그런데 한 달 동안 우리 곁에 머무시는 것이라 생각을 돌려보니, 한층 여유를 부리게 되었다. 그 와중에 생각에 생각이 꼬리를 물다 문득 든 생각이다.

"왜 올해에는 부처님이 우리 곁에 한 달이나 머무시는 것일까?" 올해는 유독 신경 써야할 중생들이 많아져서? 아니면, 우리가 타성처럼 받아들인 삶의 방식을 고치기에 하루만으로는 너무 부족해서?

저마다 떠오르는 답변은 다르겠지만, 코로나 팬데믹이 던져준 '잠깐 멈춤'과 '한 달 동안 부처님 바로 옆에 계심'에 즈음하여, 내가 손에 든 화두는 '내가 젖어있는 타성' '내 주변 사람들이 젖어있는 타성'은 무엇인가이다. 그리고 그에 앞서 스스로에게 던져지는 질문은 누구나 비슷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나는 잘 살고 있는 것일까?"

社說

'불교 대중화 · 현대화' 실천을

조계종 백년대계본부 불교사회연구소가 4월 20일 '종단 미래설계를 위한 여론조사 결과보고'를 발표했다. 이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2달여 동안 조계종 스님 1만 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종단 소속 스님들을 대상으로 대규모 설문을 진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조사 결과 조계종 스님들은 승가 고령화와 출가자 및 스님 인원 급감, 종교지형 변화로 인한 신도 감소 등 종단 미래에 대한 위기감을 명확히 인식하고 있었다. 이에 불교가 나아가야 할 방향 재정립 및 종단 미래를 위한 변화에 강한 열망을 드러냈다.

결과보고서에서 가장 눈길을 끈 항목은 종단의 미래지향적 종책 분야다. 한국불교의 사상적 지향점에 대해서도 응답자의 과반(53.2%)이 '깨달음의 사회화 실천(혹은 불교의 사회참여 강화)'를 꼽았다. 미래 사찰의 역할 항목에서 '사찰의 지역사회 참여와 지역공동체 활동'에 대해 85%가 동의한다고 답한 것과도 맥을 함께한다.

이 같은 조사 결과는 현재 조계종 스님들이 현재를 어떻게 진단하며 미래를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인식을 확인했다는 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같은 목표를 인식하고 공유해야 조계종 종책 방향이 명확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불교사회연구소는 앞서 2011~2015년 대국민 여론 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라고 했다. 여기서 확인된 국민들의 인식과 현재 스님들의 인식을 종단은 면밀히 분석해야 한다. 이를 통해 미래 불교를 준비하기 위한 단계적 종책들을 생산하길 바란다.

종교계 취약계층 연대 환영한다

코로나19 여파로 경기침체 등 경제적 타격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는 가운데, 이런 우려가 피부에 와 닿다 못해 사지로 몰리고 있는 이들이 있다. 바로 불안정 고용 노동자들이다. 코로나19 거점병원으로 지정된 대구동산병원은 급식노동자를 해고했고 대한항공은 자회사인 한국항공의 협력업체 노동자들을 해고했다. 실업자가 증가해 60만명을 넘어섰고 급여 지급액이 8982억원으로 사상 최고에 도달했다. 고용보험의 혜택조차 받지 못하는 방과 후 강사 등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를 비롯해 고용보험에 들어있지 않은 특수고용 노동자들, 고정 수입이 없는 문화예술 노동자들이 생계의 위협에 삶이 뒤흔들리고 있다.

가장 어둡고 소외된 이들의 절규는 주의깊게 듣지 않으면 들을 수 없다. 사는 것 자체로 버거워 힘을 모을 여력조차 없기 때문이다. 이 미약한 목소리들을 듣고 우리 사회에, 그리고 정부에 전달해야 한다. 바로 종교계가 해야 할 일이다. 가장 어둡고 소외된 곳에서 함께하며 희망의 손길을 건네는 것이야말로 종교의 책무가 아닌가.

다소 늦은 감은 있지만 다행스럽게도 이들을 위해 불교와 가톨릭, 개신교 등 3대 종교계가 손을 잡기로 했다는 소식이다. 우선 3대 종교 토론회를 열고 불안정 노동자들의 현실과 절규를 들었다. 그리고 종교의 사회적 책무를 얘기하며 연대와 협력을 약속했다. 다만 구체적인 실천의지나 계획이 없다면 공허한 메아리가 될 뿐임을 알아야 한다. 불교를 대표해 토론자로 나선 조계종 사회노동위 부위원장 지몽 스님이 제안한 '코로나19 희생자 및 유가족을 위한 기도회'도 좋다. 어떤 형태로든 취약계층의 목소리를 사회에 전달할 수 있는 기폭제가 될 실천방안을 고민해야 할 때다.



지인 스님의
병상포교일기

외국인 수녀와 손때 묻은 염주

어느 해는 봄이 시작되자마자 여름이 몰려와 봄옷 입을 겨를도 없이 여름옷을 준비해야할 때가 있다. 특히 올해는 윤달이 있어서인지 유독 봄이 길게 느껴진다. 6년 전인 2014년도 윤달이 있는 해였는데, 그때도 봄이 길게 느껴졌던 기억이 있다. 그 해의 화창한 봄날은 내게 특별한 추억이 있었다. 어느 병원 개원식에 참석했다가 지금은 고인이 된 아일랜드인 미리엄 수녀님을 만났다. 이전에도 서로 일면식이 있던 사이라 자연스레 인사 했고, 수녀님은 본인이 운영하는 공동체를 방문해 달라고 나를 초대했다.

며칠 후 방문한 수녀님의 작은 공동체는 2층 주택을 개조한 공간이었다. 이내 수녀님 처소가 있는 2층으로 안내 되었다. 밖으로 나있는 비좁은 계단을 올라가 도착한 2층은 수녀님 처소와 환자 방사가 있었다. 쉼터를 찾은 환자들이 많을 경우에는 2층 방까지 사용할 때도 있다고 말했다.

수녀님의 안내로 올라간 2층서 유독 눈에 들어온 것이 있었다. 거실 벽면에 '오유지족(吾唯知足)'이라고 쓴 액자와 그 아래 놓여진 분홍 연꽃등이었다.



그림 · 최주현

비록 외국인이지만 불교적이고 한국적인 물건들을 소중하고 의미있게 생각하는 모습이 내 마음에 잔잔한 울림으로 다가왔다.

잠시 후 수녀님은 알이 굵은 염주와 백팔 염주를 나에게 건네며 말했다. "이곳서 계시다 돌아가신 형제분이 불자셨어요. 그 분이 임종 후 남겨진 유품인데 이제 스님께 전합니다."

천천히 말하는 독특한 외국인의 발음이기에 그의 말이 더욱 또렷이 들린 것일까? 뒤통수를 세게 맞은 것처럼 아찔했다. '아! 이곳에도 불자가 계셨구나'라고 생각하니 느낌이 남달랐다.

받아든 염주에선 기도한 흔적이 고스란히 묻어났다. 염주 주인은 한 알씩 돌리며 부처님께 무엇을 기도했을까? 보리수 백팔염주가 내 손에 닿는 순간, 그 분의 간절함과 외로움이 고스란히 전해졌다. 그리고 그 염주를 오랜 세월 간직하다 전해 주시는 그 수녀님의 배려심과 환자의 다른 종교마저도 존중해 준 종교와 인간애에 가슴이 뭉클했다.

그런데 작년 8월, 미리엄 수녀님이 갑자기 임종하셨다는 전화를 받았다. 정말 믿기지 않았다. 다리수술을 위해 병원에 입원했다는 소식을 듣고 병문안 갔을 때만도 괜찮았는데, 며칠 지나지 않아 들린 임종 소식은 정말 청천벽력과도 같았다. 수녀님으로부터 건네받은 그 염주를 돌리며 수녀님께서 편안히 영면에 드시길 기도했다. 감염 환자들을 위해 머나먼 타국인 우리나라에서 헌신과 사랑을 펼쳐주신 수녀님, 극락왕생하소서.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지도법사 · 일산 기쁨정사 주지〉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 1994년 10월15일 창간
발행인 : 혜도 대표이사 : 김재진 편집국장 : 김주일 인쇄인 : 배성한
(우)03131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6길 36, 606호 (운니동, 월드오피스텔)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8
편집국 02)2004-8257 FAX (02)737-0698
광고국 (02)2004-8213~6 FAX (02)737-0696
회사홈 현불닷컴 www.hyunbul.com
실시간 뉴스 현불뉴스 www.hyunbulnews.com
쇼핑몰 현불샵닷컴 www.hyunbulshop.com
현대불교 지사안내
부 산 지 사 : 010-5640-8883
경 남 지 사 : 010-3860-7008
광주전남지사 : 010-2629-1508
대 구 지 사 : 010-2813-8008
영 주 지 국 : 010-9373-3778
전 북 지 사 : 010-8642-7733
구독신청 · 배달안내 (02)2004-8212 구독료 : 1개월 5천원
등록일:2007년 3월 9일 · 등록번호:서울다 07641(주간)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화엄경』 주석의 결정판, 청량국사의 『화엄경소초』!
1,200년 침묵의 역사를 깨고 이 세상에 처음 눈을 뜨다!

『대방광불화엄경 수소연의초』 전체 100권 중 1차분 10권 『화엄현담』 출간!

『청량국사화엄경소초淸涼國師華嚴經疏鈔』 1~10
- 화엄현담華嚴玄談 ①~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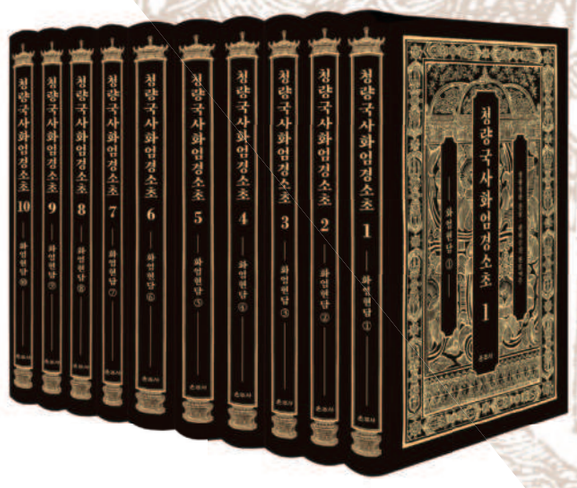
이 책의 완역은 한국불교 교학의 일대 쾌거이자 자긍심이다!
이 시대 화엄종주 수진 스님이 엮어내는 화엄의 대서사시!

청량 징관의 『화엄경소초』는 80권본 『화엄경』에 소疏 60권, 초鈔 90권을 붙인 방대한 분량에, 대소승의 경과 논은 물론이고 유가와 노장까지 종횡으로 넘나드는 해설을 붙여, 가장 뛰어난 『화엄경』 주석서로 꼽힌다.

원문을 제외하고 번역만 원고지 10만 매에 달하는 방대한 불사!
원문의 한 글자도 놓치지 않는 고지식할 정도의 꼼꼼한 번역!
역대의 「사기」들을 총망라하여 정리한 상세하고 치밀한 각주!



1권: 22,000원 2권: 20,000원 3권: 20,000원 4권: 22,000원
5권: 25,000원 6권: 25,000원 7권: 17,000원 8권: 17,000원
9권: 15,000원 10권: 17,000원



청량 징관 찬술 / 관허 수진 현토역주 / 신국판양장

도서출판 운주사 서울시 성북구 동소문로 67-1 성심빌딩 3층 ● 전화 (02) 926-8361 ● 팩스 0505-115-8361 ● 주문 (02) 3672-7181 ● 다음카페:도서출판 운주사 www.cafe.daum.net/unjubooks

백제불교 정수 '내포'에 꽃피우다

충남역사문화硏 '내포불교이야기' 발간

서산 · 당진 · 예산 내포지역 內
불교문화 · 역사 · 고승 등 망라
전문 작가 · 학자들 집필 참여
미륵도래 기원 '매향' 조명도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내포(內浦)의 사전적 의미는 '바다나 호수가 육지 안으로 휘어 들어간 곳'을 의미하지만, 한국에서는 특정지역을 뜻한다. 바로 충청남도 서쪽 지역 일대로, 행정구역으로는 서산시 · 당진군 · 예산군 · 홍성군 등이 해당된다. 이들 지역은 삽교천과 가야산 주위에 형성돼 있다.

바닷길과 물길이 만나는 곳, 내포. 이 지역은 삼국시대부터 외국과의 문화교류가 발달했다. 그러다 보니 불교문화 역시 융성할 수밖에 없었다. 여러 이견들이 존재하지만, 원효 스님의 해골물 오도처 후보지 중 하나가 내포지역이라는 점은 예로부터 교류 · 교역의 중심지였음을 의미한다.

내포지역에 형성된 불교문화를 망라한 대중 총서가 발간됐다. (재)충청남도역사문화연구원은 가야산 · 삽교천 문화권 종합조사 연구사업의 일환으로 〈삽교천이 낳고, 가야산이 품은 찬란한 내포불교이야기〉(이하 내포불교이야기)를 최근 발간했다.

가야산 · 삽교천을 중심으로 형성된 내포지역의 불교 역사와 문화유산을 알리기 위해 제작된 〈내포불교이야기〉는 충남도역사문화연구원과 내포문화사업단이 공동으로 기획했다. 불교문화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소설가이자 〈불교와 문학〉 주간인 유응오 작가(직지사 종무실장)를 대표 집필자로 선정해 불교문화에 대한 폭넓은 전문성을 더했다.

〈내포불교이야기〉는 △고대에서 근대까지 내포불교의 장구한 흐름 △백제의 미소 머금은 내포의 마애불 △불교문화재의 보고 내포의 전통가람 △수많은 설화와 전설을 간직한 내포의 옛 절터 △용화세계 염원한 내포의 미륵 △미륵불 도래 염원한 침향 공양 내포의 매향비 △한국 불교를 이끌어 온 내포의 고승 등 7개의 주제로 스토리텔링해 쉽고 재미있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책에서 주목하는 내포지역 불교의 특성은 선진성과 서민적 정서다. 교류가 왕성했던 지역에 자리잡은 불교는 백제 불교문화의 정수를 보여준다. 대표적인 것이 백제의 미소라고 불리우는 '서산 용현리 마애여래삼존상(국보 제84호)'이다. 삼존상은 흔하지 않게 눈을 뜬 모습으로 조성됐지만 눈동자를 새기지 않았다. 그럼에도 눈동자가 없다는 사실을 느끼지 못할 만큼 자연스러워서 마애불을 조성한 백제 장인들의 손길이 얼마나 섬세했는지 알 수 있다. 나말여초 선종이 중흥을 맞이할 때도 구산선문 중 사세가 가장 컸던 도량이 성주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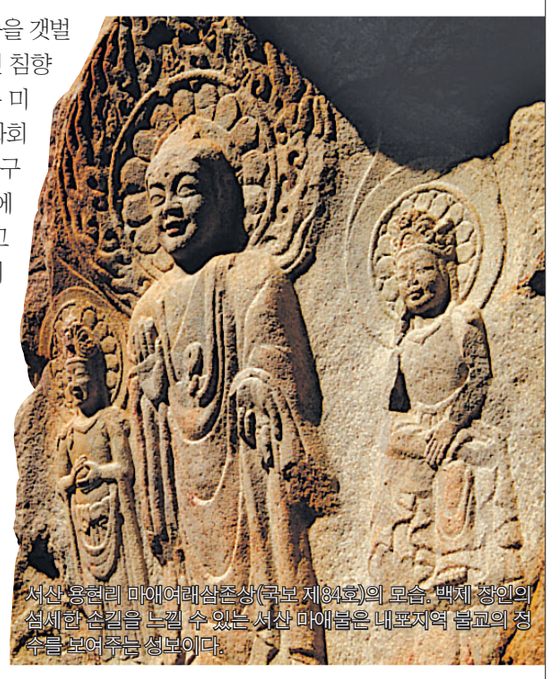
내포불교는 민초들의 삶을 위무한 서민적 특징도 가진다. 이는 내포지역에 유행했던 미륵신앙을 보면 알 수 있다. 옛 민초들은 용화세계를 염원하며 마을 곳곳에 미륵불들을 세웠고, 서산 · 예산 · 당진 · 홍성 지역에만 28개의 미륵불이 있다. 내포지역을 '미륵불의 본향'이라고 부르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또한 고려 말부터 조선 후기까지 이어진 내포지역의 매향(埋香)문화 역시 미륵신앙과 깊은 연관이 있다. 이는 매향의 의미와 참여자 등을 기록한 매향비를 보면 할 수 있는데 내포지역에는 4개의 매향비가 있다.

향나무, 소나무, 참나무 등을 갯벌에 묻고 오랜 시간이 지나면 침향이 된다고 믿었고, 민초들은 미래에 하생할 미륵불의 용화회에 참여해 침향을 공양하고 구원받기를 기원했다. 전국에 매향비가 왜구가 출몰하고 국난이 겹치는 여말선초에 집중된 것으로 보아 내세 구복을 기원한 민중들의 염원을 알 수 있다.

충남도역사문화연구원은 "내포문화권의 역사 · 문화적 정체성을 대표할 수 있는 주제의 대중서를 지속적으로 발간할 계획"이라며 "내포문화권 개발의 원동력으로 활용할 수 있는 미래지향적 가치 있는 연구사업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내포불교이야기〉는 충남도서관을 비롯한 도내 주요 도서관에 배포됐으며, 충남도역사문화연구원 홈페이지(www.cihc.or.kr)에서 전자책(E-book)으로도 열람이 가능하다.


서산 용현리 마애여래삼존상(국보 제84호)의 모습. 백제 장인의 섬세한 손길을 느낄 수 있는 서산 마애불은 내포지역 불교의 정수를 보여주는 성보이다.

한국불교미술인협회 '붓다의 향기' 展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불교미술인들이 새로운 협회를 만들고 창립전을 열었다. 한국불교미술인협회(대표 발기인 손연칠)는 4월 22일부터 5월 4일까지 서울 동덕아트갤러리에서 '붓다의 향기' 展을 개최한다.

20대 청년작가부터 중견작가와 원로작가 106명이 참여하는 이번 전시는 신장식(국민대 교수)의 '삼매', 류종민(중앙대 명예교수)의 '월인'을 비롯한 회화 조각 등 작품 106점이 전시된다.

'붓다의 향기' 준비위원은 "불교는 인류 문화사에서 세계적인 종교일 뿐만 아니라 우리 민족사상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해 왔다"며 "전시를 통해 서로 소통함으로써 당면한 시대적 과제들의 보다 나은 발전적 방안들을 모색해 가고자 한다"고 전시의 취지를 밝혔다.

이번에 창립한 한국불교미술인협회는 회원의 특별초대전과 학술세미나 개최, 회원의 작품 활동과 작품 유통의 활성화 사업, 각 종단이 주관하는 공모전 참여와 발전방안 모색, 전국의 각종 불사 진흥을 위한 제반 사업을 목적으로 창립했다. 박재완 기자

불교 3.1운동 연구, 로드맵 필요

김순석 한국국학연구원 연구원 주장

지난해 3.1운동 100주년을 맞아 진행된 다양한 3.1운동 연구의 전체 틀을 한데 아우르는 로드맵과 이를 전승, 홍보할 공간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김순석 한국국학연구원 수석연구원은 최근 〈불교학연구〉 62집에서 '3.1운동기 한국불교계의 역동성과 현재적 반성' 논문을 통해 불교계의 과제를 짚었다.

김 연구원은 "불교계 3.1운동의 전체상을 그려볼 수 있는 밑그림이 그려져야 한다"며 "한용운과 백용성의 재판기록, 일본 고등경찰 보고서, 전국 만세시위 현황자료, 3.1운동 참여자의 회고록과 연구사 정리논문 등을 기반으로 박사학위 논문이 배출되어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는 학계와 교계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 연구원은 "불교계 독립기념관 건립이나 드라마, 다큐 제작, 유튜브 영상 제작 등을 통해 대중에게도 적극적으로 이 같은 내용을 알려나가야 한다. 특히 청소년 불자들을 대상으로 한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연구원은 이번 논문에서 불교3.1운동의 정체성은 평화적 독립운동에 있음을 들고 그 뒷받침으로 1919년 11월 15일 상해에서 발표된 '대한승려연합회선언서'를 들었다. 김 연구원은 "선언서는 국내 대중운동 고취 목적이 아닌 파리강화회의에 참석한 세계 외교사절에 조선독립 정당성을 호소하기 위한 것"이라며 "한용운의 〈조선독립의서〉와 〈대한승려연합선언서〉에도 세계평화 지향의 모습이 나타난다. 지금부터는 이러한 평화적인 방법으로 독립을 요구한 불교계 3.1운동을 어떻게 현창하고 계승하는지를 검토해야 할 시점"이라고 제안했다.

한편, 이번 〈불교학연구〉 62집은 오대북대신앙 특집 논문으로 중앙승가대 교수 자현 스님의 〈한국 오대산의 특징과 북대신앙의 변화〉, 황인규 동국대 역사교육과 교수의 〈나옹과 오대산 북대〉가 실렸다.

자현 스님은 특집논문에서 "오만진신신앙의 특징이 제대로 검토되지 못한 부분은 문제다. 북대신앙의 변화를 구체화하여 한국오대산 연구에 중요한 의의를 찾아야 한다"고 밝혔다. 노덕현 기자

고려 '육조대사법보단경' 보물 지정

문화재청 지정 공고
사천 백천사 소장

고려시대 제작 · 발간된 〈육조대사법보단경〉이 국가지정문화재 보물로 지정됐다.

문화재청(청장 정재숙)은 "고려 후기 선종(禪宗) 경전인 〈육조대사법보단경〉 1책과 630년 전에 발급된 과거합격증 '최광지 홍패', 조선 후기 '백자 항아리' 1점 등 총 3점을 보물로 지정했다"고 4월 23일 밝혔다.

보물 제2063호로 지정된 〈육조대사법보단경(六祖大師法寶壇經)〉은 1책(64장)으로, 1290년(충렬왕 16)년 원나라 선종의 고승 몽산덕이(蒙山德異, 1231~1308)가 편찬한 책을 고려 수선사(修禪社)에서 당시 제10대 조사인 혜감국사 만항(萬恒, 1249~1319)이 받아들여, 1300년(충렬왕 26년) 강화 선원사(禪源寺)에서 간행한 판본이다. 현재 경상남도 사천시 백천사에 소장돼 있다.

〈육조대사법보단경〉은 육조 혜능의 선사상을 이해하거나 선종의 역사를 연구하는데 있어 중요한 경전이기 때문에 한국에서는 19세기에 이르기까지 꾸준히 간행됐다.사천 백천사 소장본 〈육조대사법보단경〉은 우리나라에 전래된 관련 경전 가운데 시기적으로 가장 이른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조선시대에 간행됐던 '덕이본(德異本)' 계열의 책들과도 판식(板式)의 차이점이 보여 고려시대의 특징을 보여준다. 문화재청은 "〈육조대사법보단경〉은 선종의 핵심사상을 파악할 수 있는 지침서이자 한국 선종의 역사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 불경으로 불교사에서도 중요하다"며 "이중 백천사 소장본은 우리나라에 현존하는 같은 종류의 경전 중 가장 오래된 판본으로 가치가 높다"고 평가했다.이어 "〈육조대사법보단경〉은 불교학 연구는 물론, 고려시대 말기 목판인쇄문화를 규명할 수 있는 귀중한 자료로서 학술 · 서지학적 가치가 높아 보물로 지정해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보물 제2062호로 지정된 '최광지 홍패(崔匡之紅牌)'는 고려 말~조선 초에 활동한 문신 최광지(崔匡之)가 1389년(창왕 1년) 문과 '병과 제3인(丙科 第三人, 전체 6등)'으로 급제해 받은 문서로서, 약 630년 전 고려 말에 제작된 매우 희귀한 사료이다. 특히 홍패에는 발급연월일 위에 '고려국왕지인(高麗國王之印)'이라는 국새(國璽)가 찍혀 있다.


보물 제2063호로 지정된 '육조대사법보단경' 서문.

부산박물관 소장 '백자 항아리'는 17세기 말~18세기 초에 제작됐으며, 지금까지 알려진 조선 후기 백자 항아리 중 크기와 기법 면에서 대표작으로 꼽을 수 있어 보물로 지정됐다.

문화재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소유자 등과 적극적으로 협조해 이번에 국가지정문화재 보물로 지정된 문화재들이 체계적으로 보존 ·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신성민 기자

문화재 현장에 'AI 영상분석 드론' 도입된다

문화재 현장에 인공지능(이하 AI) 영상분석기술이 탑재된 드론이 내년부터 상시로 투입된다.

문화재청(청장 정재숙)은 "AI 영상분석기술 탑재 드론을 활용한 문화재 안전관리 전략을 연말까지 마련하기로 했으며, 계획에 따라 내년부터 현장에 상용화시키기로 했다"고 4월 23일 밝혔다.

지진이나 산사태 등 대규모 재난이 발생하면 사적과 천연기념물 보호구역 등 광범위한 지역의 문화재 피해를 신속하게 파악하기 힘들고, 관리인력을 상시 배치하는 것도 현실적으로 쉽지 않았다. 이같은 이유로 드론을 활용하는 방안이 일선에서 꾸준히 제기돼 왔다.

문화재청은 지난해 4월부터 12월까지 관련 전문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재난안전 분야에서 사용할 수 있는 드론기술의 현황을 파악해 문화재 현장 활용방안을 검토했다.

문화재청은 "4차산업시대에 부합하는 첨단기술을 적극적으로 도입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신성민 기자

흉몽을 길몽으로 바꾸며 풍요와 복덕을 얻게하는 귀한 선물
천수경(千手經) 액자
인쇄물이 아니라 한 자 한 자 정성을 들여 모필로 써서 만든 것입니다.
붉은 비단에 금색원형으로 천수경을 적어 조형미와 더불어 품격까지 느껴져
주지스님 방이나 거실, 사무실 벽에 걸어놓기에 안성맞춤입니다.


· 작품크기 : 가로 45cm × 세로 45cm
· 바닥재질 : 비단(한지로 배접)
· 구입대상 : 스님, 신도님

천수경이란
천수경(千手經)은 관세음보살의 6번화신 중 하나인 천수천안관세음보살을 신앙하는 경전이다. 천수다라니는 특히 티벳과, 네팔, 인도, 파키스탄은 물론 중국에 걸쳐 여러가지 이본(異本)들이 있는데 그 체제와 내용에 차이가 있을 뿐 아니라 다라니의 내용도 서로 다르게 기록되어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지송되고 있는 천수경은 가범달마(伽梵達摩)역의 (천수천안관세음보살광대원만무애대비심대다라니경)을 모태로 한 것인데 우리말로 풀어쓰면 한량없는 손과 눈을 가지신 관세음보살님의 넓고 크고 걸림없는 대자비심을 간직한 큰 다라니경인데 천수다라니를 정성드려 모시거나 수지 독송하고 지키면 시방세계의 모든 불보살이 와서 증명하여 일체업장이 소멸되고 일체 악업과 중죄와 모든 장애를 여의케하며 일체의 청정한 법과 모든 공덕을 증장시키고 이롭고 안락하게 하며 모든 병과 두려움을 없애주고 일체의 귀신이 범접치 못하게 하고 모든일을 성취케하며 구하는 바를 만족케하고 특히 흉몽을 길몽으로 바꾸며 수명이 장수하고 풍요와 복덕을 얻게한다고 한다. 이와같이 천수다라니에는 온갖 공덕이 들어있어 그 대비신력과 위신력의 영험은 한없이 높고 그 신묘함은 불가사의하다고 하여 신묘장구 대다라니라 한다.

문의 055-291-7263, 010-3845-2446 (금액협의)
경남 창원시 의창구 의창대로 900번길 37-15호 도덕정사

교직자 양성 전문교육
佛教儀式(범음·범패)學人모집
본 대학 불교의식교육원에서는 학인을 모집합니다.

◈ 과정 (야간 및 통신생)

기본중급과정 (6개월)	사물(목탁, 요령, 태징, 법고)다루는 법, 도량석, 쇳송, 상단예불, 각단예불, 천수경, 행선축원, 불공시식 등
	상주권공, 대령관욕, 신중작법, 지장칭, 관음시식, 구병시식, 다비식 등
신행과정(1년)	기본 · 중급 수료자에 한함
특수작법(1년)	기본 · 중급 수료자에 한함

◈ 모집인원 : 30명(선착순)
◈ 강의일시 : 매주 화요일, 금요일 오후 5시 ~ 6시 30분(90분) 담임교수 원장직강
◈ 현재 강의중 접수가능
◈ 제출서류 : 입학원서 1통, 반명함판 사진 2매

※본원은 초종파 교육도량으로서 수료증을 수여하며, 승려 후보생의 수계득도, 포교원(사찰)창건의 지도와 편의를 제공합니다.
※초심자라도 여법하게 불교의 전통의식을 봉행할 수 있도록 지도합니다.

海東佛教儀式教育院
海東佛教梵音大學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17번길 45(낙원동 243-3) 탑공공원 뒷편 ☎(02)741-0495~6

티베트 佛, 코로나 극복 노력 '눈길'

양대지도자, 코로나19 특별메시지 발표도

박영빈 객원기자

코로나 19사태가 좀처럼 안정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티베트 불교계가 사태 극복을 위해 초종파적인 협력에 나섰다. 4월 18일 해외 불교전문 매체인 '트리사이클' 을 비롯, 인도의 '파율' 등 외신들은 티베트 불교지도자 달라이 라마와 카르마파가 코로나19 관련 메시지를 발표한데 이어 티베트 불교계가 코로나 사태 극복을 위해 다양한 구호 활동에 나서고 있다고 보도했다.

티베트 불교의 양대 지도자로 불리는 달라이 라마와 카르마파는 4월 14일 각각 코로나 19사태에 대한 특별 메시지를 발표했다. 특히 달라이라마는 지난 3월 30일 특별 메시지를 발표한데 이은 2차 메시지이다.

달라이 라마는 미국 타임지에 기고한 특별 메시지에서 "기도만으로 충분하지 않다. 자비로운 마음으로 코로나 바이러스를 대처하자"고 강조했다. 이어 달라이 라마는 "모든 생명이 고통 속에서 병들고 늙어 죽는다는 것이 불교의 가르침이다. 그러나 우리는 인간이기에 마음의 힘을 통해 분노와 불안, 애착을 다스릴 수 있다"며 코로나 19에 의한 공포를 현명하게 대처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이번 코로나 19사태는 누군가 한 사람이 아프면, 서로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명백하게 보여준다. 우리는 결코 독립적으로 존재할 수 없다는 점을 이번의 사태를 통해 배워야 한다. 우리에게는 모든 이들을 자비심으로 대하고 도와야 할 공동의 책임이 있다"며 희망을 잃지 말고 모두 함께 협력해 극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카르마파는 페이스북 라이브를 통해 특별 메시지를 발표했다. 카르마파는

달라이라마, "자비" 강조
카르마파, 조기종식 발원
다양한 구호활동도 이어져

"전염병 발생으로 인한 현재의 상황이 불분명한 가운데, 우리는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두려워하고 있다. 그러나 부처님께선 제행무상, 모든 것은 무상하다는 가르침을 전했다"며 시시각각으로 변화하는 모습에 두려워 말라고 말했다.

카르마파는 "요즘 같이 무상한 대변화를 겪고 있는 시점에서, 두려워만 하지 말고 내면으로 눈을 돌려 생각해 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카르마파는 4월 19일부터 일주일간 매일 한 시간씩 페이스북 라이브를 통해 다함께 코로나 19의 조기 종식을 위한 염불독송과 기원을 올리겠다고 전했다. 또 메시지를 발표한 직후 인도정부에 코로나 19 구호기금을 위해 230만 루피(한화 약 3,600만원)를 기부했다.


인도 소외계층 마을에 구호물품을 전달하는 타시훈포 사원 스님들. 사진출처=파율

이런 가운데 인도에 소재한 망명 티베트 사원들 역시 지역사회를 위해 구호활동에 나섰다. 남인도 카르나타카주에 소재한 타시훈포 승원은 인도 정부에 구호기금과 함께 소외계층에게 장기간 보존이 가능한 1개월 치의 식량을 전달했다. 또한 조기종식과 확진자들의 쾌유를 위한 약사여래 성취기도를 봉행했다. 인근 지역에 소재한 라뙤 승원 역시 통행금지령으로 곤경을 겪고 있는 소외계층과 노인 가정에 식량과 생필품을 전달하는 등의 구호활동에 나섰다. 두 승원은 달라이라마가 이끄는 겔룩파의 중요한 총림사찰이다.

북인도 우타라칸드 주의 망명촌에 근거지를 두고 있는 사캬파의 본산, 돌마포당(Dolma Phodrang) 사무국도 주정부에 230만 루피의 구호금을 기부했다. 또한 사캬파의 전 종정 사캬 티첸 린포체는 세계 각국의 제자들의 요청을 받아 장애를 제거하는 기도와 전염병을 치유하는 엽의관음(葉衣觀音)의 관정을 인터넷 라이브로 중계했다.

한편 인도정부는 4월 14일 의료계와 보건전문가들의 의견에 따라 3주간 시행되어온 전국 봉쇄령(Lock down)을 5월 3일까지 연장한다고 공지했다. 현재 인도에선 1만 4천여명 이상의 코로나 19 확진자와 5백여 명의 사망자가 집계됐다.

日, 시다림 · 49재도 원격으로 봉행

장의회사 '요리소우' 주도
원격법회 등 사업 선보여
한시적 운영…원격상담도


천도재와 기제사까지 원격으로 시도하는 일본불교계. 사진출처=PR 타임즈

코로나 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조되고 있는 가운데, 일본에선 시다림과 49재와 같은 장례법회도 원격으로 진행하는 풍경이 등장해 화제다. 4월 15일 일본의 '니혼 게이자이 신문', 'PR 타임즈' 등의 주요 언론들은 일본 불교계의 새로운 시도를 보도했다.

일본의 장의 전문회사 '요리소우' 는 "유가족과 사찰 양측의 안전과 함께 시기에 맞는 의례를 봉행하기 위해 원격법회 사업을 개시한다"고 발표했다. 이는 일본에서 코로나 19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일본 정부가 밀폐 공간, 밀집장소, 밀접접촉의 3가지를 피할 것을 강조하며 사회적 거리두기를 권장하는데 따른 것이다. 때문에 장례식장에서의 시다림과 사찰에서의 49재, 기제사와 같은 중요한 법회와 의례가 이 3가지에 해당하면서 사찰과 유가족들이 곤란을 겪고 있다.

요리소우 측은 "대중법회를 원격으로 진행하는 사찰이 늘고 있다. 한편 49재나 기제사 등 특정기간이 중요한 법회의 경우 즉각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번 원격법회를 개시하는 계기를 밝혔다. '스님의 전화법회' 라는 이름으로 개시하는 원격법회는 4월 16일부터 예약을 받아 오는 27일 본격적으로 착수한다.

먼저 유가족이 메일이나 전화를 이용해 시다림, 49재, 기제사 등 원하는 사안을 상담하고 희망일과 시간을 예약한다. 이때 원하는 사찰이나 스님, 혹은 종파를 선택할 수 있다. 예약일시에 맞춰 상담에 응한 스님이 사찰에서 전화 SNS나 원격 라이브 프로그램 등을 통해 해당 의례와 법회를 생중계 하는 식으로 원격 법회가 진행된다. 특히 원격 중계라는 점에서 유가족과 사찰간의 실시간 소통이 가능하다는 점이 특징으로 꼽힌다.

요리소우는 "해당 서비스는 현재 실시중인 긴급사태선언이 종료할 때 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될 예정. 또한 법회뿐만 아니라 스님과의 상담서비스도 함께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실제 최근 일본에서는 코로나 19로 인한 걱정과 공포로 상담을 원하는 전화나 편지, 이메일 등이 사찰로 몰려드는 모습이 보이고 있다.

한편 요리소우社는 앞선 2013년 온라인으로 스님을 파견하는 사업을 개시해 화제를 모은바 있다.

박영빈 객원기자

코로나19 극복 위해 미얀마 불교 · 가톨릭 화합

냐닛샤라 스님, 1만 달러 기부
교황 설립 구호단체 통해 전달


미얀마 냐닛샤라 스님이 성심대성당을 통해 프란치스코 교황이 최근 창립한 긴급구호단체에 1만달러를 기부했다. 사진출처=바티칸뉴스

띠다구 서야도(Sitagu Sayadaw)라는 이름으로 더 잘 알려진 미얀마 불교 지도자 아쉰 냐닛샤라(Ashin Nyanissara) 스님이 프란치스코 교황이 최근 창립한 긴급구호단체에 1만 달러를 기부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해 피해를 입은 미얀마의 지역사회를 돕기 위해, 종교의 벽을 뛰어넘은 것이다.

4월 21일(현지시간) 바티칸뉴스 등 외신에 따르면, 냐닛샤라 스님은 지난 16일(현지시간) 긴급구호 기금 1만 달러를 비롯해 쌀, 쿠킹오일, 콩, 양파, 소금 등을 미얀마 만달리이에 위치한 성심(Sacred Heart) 대성당을 통해 기부했다.

이날 냐닛사라 스님은 "코로나19에 대처하기 위해 우리는 종교 간 연대, 즉 자선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공동 플랫폼을 구축해 협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성심 대성당 틴 윈(Tin Win) 대주교는 "냐닛사라 스님의 기부는 전 국민에게 종교 간 화합의 메시지를 전할 것"이라며 "진정한 친구로서 나는 그의 공헌에 감명을 받았다. 위기에 직면한 때에 가장 어려운 사람들에 대한 호의와 연대를 보여준다"고 고마움을 표했다.

프란치스코 교황의 긴급구호단체는 지난 6일 평신도 전교 단체를 통해 초기 기부금 75만 달러를 조성하면서 설립됐다. 당시 프란치스코 교황은 전 세계 가톨릭 교회들에게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기부를 요청했다.

한편 냐닛사라 스님은 평소에도 종교에 대한 자유를 지지하는 것으로 유명하다. 미얀마는 불교도가 다수인 국가로, 극단주의 성향의 불교도들이 무슬림 소수민족인 로힝야족을 탄압하는 일이 빈번히 일어나 전 세계적 문제로 대두된 바 있다. 냐닛사라 스님은 미얀마 불교의 선규자로서 종교 간 대화와 국제협력을 증진시키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는 한편, 불교의 사회적 참여와 인도주의 사업을 이끌고 있다. 미국에 머무는 동안에는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과 프란치스코 교황을 직접 만났다.

다만 냐닛사라 스님은 미얀마 무슬림에 대한 탄압에 동조하는 듯 한 발언으로 논란을 빚기도 했다. 그가 과거 미얀마 군부가 무슬림족 소탕 작전을 시행할 당시 군 지휘관과 만난 자리에서 "미얀마에는 40만 명 이상의 승려들이 있다. 만약 당신이 그들을 필요로 한다면 나는 그들에게 '시작하라' 고 말할 것이다. 그건 매우 쉽다"고 말한 것이 문제였다.

박정현 객원기자

코로나19 여파 '온라인 베삭데이'

베트남불교협회, 올해
온라인 생중계로 결정


2019년 베트남 베삭데이. 사진출처=난단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사태로 인해 남방 불교계의 연중 최대 행사인 '베삭데이(Vesak Day)' 에도 차질이 생겼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종교 집회 등이 제한된 탓이다. 이에 베트남 불교계에서는 온라인을 통해 베삭데이 행사를 진행키로 결정했다.

베트남불교협회(the Vietnam Buddhist Sangha, VBS)가 올해 베삭데이 행사를 유튜브, 페이스북, 부타 등을 통해 생중계하기로 결정했다고 베트남 공산당 기관지 난단(Nhandan) 등이 2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베삭데이는 남방불교계의 부처님오신날 행사다. 올해는 4월 30일~5월 7일까지 열릴 예정이었다.

그런데 좀처럼 사그라지지 않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역사상 처음으로 온라인 행사를 진행하게 됐다. VBS 중앙집행위원회는 "코로나19 사태에 대한 정부 규정에 따라 20명 이상의 사람들이 모이는 의식, 연등행렬 등을 개최하지 않도록 전국 불교 지역위원회와 사찰 등에 알렸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VBS는 "오는 30일 오전, 전국의 모든 사찰 및 불교 기관에서 3개의 종소리가 동시에 울릴 것"이라며 "전국의 불자들은 각자 국가적 재난을 극복하기 위한 기도를 올려 달라"고 권고했다.

박정현 객원기자

연등시공전문기업 대광불교
연등자동승강장치 최초개발시공업체
대광불교는 연등전문 기업입니다. 대광불교만의 독특한 디자인과 숙련된 노하우로 각종 연등을 제작 보급하고 있습니다.
항상 등불을 밝히는 마음가짐으로 등 제작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연등 자동 승강장치



연등시공


대광불교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매자리길 113 | E-mail : hskhsg@naver.com | 010-9446-1862 | 010-2788-7270 | 031)768-7270 | 031)768-7271

미륵부처 오신 세상 그리다



조성금의
한국불화 원류를 찾아서
⑨ 미륵하생경변상도



그림 1

성당 시기에 조성된 돈황 막고굴 445굴 '미륵하생경변상도'의 모습. 미륵부처가 세상에 나투면 어떤 세상이 만들어질 지를 묘사했다.



그림 2

일본 묘만지가 소장 중인 고려불화 '미륵하생경변상도'의 모습. 하단에 반야용선이 추가된 점이 눈길을 끈다.

지난 연재에서 미륵보살이 계시는 아름다운 도솔천에 가기에는 아직 이번 생에 할 일도 해야 할 일들도 많아서, 미륵부처가 오시기를 바란다고 하였다. 예로부터 아주 많은 왕과 위인들이 자신이 곧 미륵의 현신이며, 인간사의 모든 고통과 환난을 없애고 풍족한 세상을 가져올 것이라 하였다.

미륵부처님은 석가모니 부처님의 열반 후 56억 7000만 년이 지난 뒤 사바세계에 내려오신다고 하였는데, 그렇다면 사람은 절대 살아서는 미륵부처님을 뵐 수 없다는 계산이 나온다. 무엇이든 '빨리빨리'를 외치는 현 시대에 맞추어 미륵부처님도 좀 일찍 와주셔서 중생들을 구원하고 제도해 주시지 않을까하는 욕심도 내어본다.

소위 '미륵삼부경'이라 칭하는 미륵과 관련된 경전을 성립순서로 보면 3세기 경에 〈불설미륵하생경(佛說彌勒下生經)〉과 〈불설미륵대성불경(佛說彌勒大成佛經)〉이 그리고 455년에 〈불설관미륵보살상생도솔천경(佛說觀彌勒菩薩上生兜率天經)〉이 성립되었다.

그런데 현존하는 미륵 관련 불화를 살펴보면, 수대(隋代, 581~618)에 그려진 〈미륵상생경변상도〉를 돈황석굴(敦煌石窟) 417굴 · 419굴 · 423굴 · 433굴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후 미륵상생과 미륵하생이 한 화면에 표현되다가 초당(初唐, 618~712)시기 329굴의 사례처럼 미륵상생도상에 비해서 하단의 미륵하생도상이 더 큰 면적을 차지하게 된다. 그리고 중당(中唐, 766~835)과 만당(晩唐, 836~907)시기에 이르면 〈미륵상생경변상도〉는 형식화 되거나 〈미륵하생경변상도〉만을 묘사하게 된다. 즉 현존하는 벽화는 '미륵삼부경'의 성립순서와 반대인 것으로 보아서, 민중의 바램과 신앙의 대상은 초반에는 내세를 꿈꾸나 결국은 현세구복을 선택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미륵하생경변상도'의 도상학적 근거가 되는 〈불설미륵하생경〉에서 이야기하는 미륵부처가 출현한 풍족하고 안락한 세상이 어떤 모습일까. 경전의 내용을 살펴보자.

①"부처님께서 아난에게 말씀하시길 먼 장래이 나라 경계에 시두(翅頭)라는 성이 있어 그 동서가 십이유순이고, 남북이 칠유순인 데다가 토지가 비옥하고 인민이 치성하여 거리마다 줄을 이룰 것이며, 그때 성 안에 수광(水光)이란 용왕이 있어서 밤에는 향비를 퍼붓고 낮에는 맑게 개고, 또 엽화(葉華)라는 나찰(羅刹) 귀신이 있어서 그 소행이 법을 따르며 바른 교훈을 어기지 않을 뿐더러 매번 인민들이 잠이 든 뒤에 더럽고 나쁜 온갖 부정한 것을 제거함과 동시에 항상 향이 나는 액을 땅에 뿌리므로 그 땅이 매우 향내가 나고 깨끗하리라."

②"그때 염부제(閻浮提) 안에 곡식이 풍부하고 인민이 치성하고 모든 값진 보물이 많고, 마을끼리 서로 가까워 닭 울음소리가 마주 들리며, 이때엔 나쁜 꽃이나 과일나무의 시들고 더러운 것도 저절로 소멸되는 반면 그 밖의 감미로운 과일나무로서 향기롭고 좋은 것만이 다 땅에 자라난다."

③"그때 저 왕에게 수범마(修梵摩)라는 대신이 있는데, 왕이 어릴 때부터 같이 좋아하는 사이라 왕이 매우 사랑하면서도 존경하는가 하면, 또 얼굴이 단정하여 크지도 작지도 않고 살찌거나 여위지도 않고, 희지도 검지도 않고, 늙지도 젊지도 않다. 이때 수범마의 아내 범마월(梵摩越)이란 여인도 역시 여인 중에 가장 뛰어나고 미묘하여 천제(天帝)의 덕이 많은 비와 같은가 하면, 입에서는 우발라꽃(優鉢羅華)과 연꽃의 향내가 나고, 몸에서는 전단향(栴檀香)의 향내가 나는 등 부인으로서의 여든네 가지의 태도가 영원히 다시는 없으며, 또 병이나 어지러운 생각도 없으리라. 그때 미륵보살이 도솔천에서 그 부모의 늙지도 젊지도 않음을 보고 곧 내려와서 오른쪽 옆구리로부터 출생하리니, 내가 오늘날 오른쪽 옆구리에서 출생한 것과 다름없이 미륵보살도 그러하리라. 도솔천의 여러 하늘들은 각각 외치기를, '미륵보살이 이미 내려가 신령하게 출생하였네'라고 할 것이며, 이때 수범마는 곧 아들의 이름을 미륵이라 지을 것이며, 미륵보살은 32상(相)과 80종호(種好)로써 그 몸을 장엄해 몸이 황금빛이 되리라. 그때는 사람들의 수명이 매우 길고 아무런 걱정이 없으므로 모두 8만 4천 세의 수명을 누리며, 여인은 나이 오백 세가 된 뒤에 시집을 가리라."

하생경–성불경–상생경 순으로
미륵부처 관련 경전들 성립돼
도상은 상생서 하생으로 조성
당 말기 '하생경'만 묘사하기도
고려불화 하생경 도상 3점 존재

④"그때 미륵의 맨 처음 법회에 8만 4천 사람이 아라한을 얻으며, 이때 양거왕(蠰佉王)이 미륵이 이미 불도를 이루었음을 듣고 곧 미륵불의 처소에 이르러 법을 듣고자 하므로 때에 미륵불은 왕에게 초선(初善) · 중선(中善) · 경선(竟善)의 깊고 깊은 이치를 설법하리라. 그때 대왕은 다시 다른 태자를 세워 왕으로 삼는가 하면, 이발사(剃頭師)에게 값진 보물을 주고 또 다양한 보배를 여러 범지(梵志)들에게 주고는 8만 4천 대중을 데리고서 미륵불 처소에 이르러 사문이 되기를 구하여 다 도과(道果)를 이룩해 아라한을 얻으리라."

"미륵불이 두 번째 법회 때에 94억 사람들이 다 아라한을 얻으리니, 이들 역시 내가 남긴 교법의 제자로서 네 가지 일의 공양을 행하므로 그렇게 되는 것이며, 또 미륵의 세 번째 법회 때에 92억 사람들이 다 아라한이리니, 이들 역시 내가 남긴 교법의 제자이니라. 그때 비구들의 성명을 다 자씨 제자(慈氏弟子)라고 일컫기를 마치 나의 오늘날 성문들을 다 석가의 제자라고 일컫는 것과 같으리라."

위와 같은 경전의 내용을 적극적으로 도해한 가장 이른 사례는 성당기의 돈황 막고굴 445굴의 북벽에 그려진 벽화이다.〈그림1.〉 화면의 윗부분 중앙에 하생경 내용 ①의 청량하고 향기로운 시두성의 풍경과 ②의 풍요로워서 어떤 값진 보물도 탐내지 않는 염부제가 묘사되어 있다. 그리고 오른쪽 윗부분에서 ③미륵이 수범마의 아내 범마월의 오른쪽 옆구리로 탄생하는 장면을 확인할 수 있으며, 화면 왼쪽 아래에는 중생이 8만 4천 세의 천수를 누리고, 여인이 오백 살에 혼례를 올리는 장면 등이 자세히 표현되어 있다. 중앙에는 ④미륵의 세 차례의 설법장면이 왼쪽에서부터 순서로 1~3회의 설법장면과 이에 교화된 왕과 왕비 그리고 문무백관들이 머리를 자르고 사문이 되는 장면이 화면에서 가장 넓은 면적을 차지하며 그려져 있다. 그림에는 이외에도 경전에서 말하는 칠보와 보물이 넘쳐나는 보배창고, 일곱 번 수확하는 장면 등 사람의 상상력으로 할 수 있는 이상향을 모두 담고 있어, 미륵이 하생한 세상이 진정한 유토피아가 아닐까한다.

고려불화에도 미륵하생경의 내용을 도해한 '미륵하생경변상도'가 세 점 현존하고 있다. 고려 14세기 지은원(知恩院)본 및 1350년 친왕원(親王院)본은 서로 거의 같은 화면 구성이며, 1294년 묘만지(妙滿寺)본은 하단에 반야용선이 첨가되었다는 차이점이 있을 뿐이다.

추측하면 기년명이 없는 지은원본은 1350년에 제작된 친왕원본과 초본을 공유했을 가능성을 높다고 할 수 있다. 화면의 구성은 중앙에 가장 큰 의좌상의 미륵삼존을 중심으로 주위에 제석천, 범천, 십대제자, 십이신장 등을 나누어 배치하였다. 또한 미륵삼존 아래에는 미륵불에게 귀의하고 머리를 깎는 왕족들이 표현되어 있다. 묘만지본에는 이들의 옆에 금니로 각각 '자씨부수범마(慈氏父修梵摩)', '자씨모범마월(慈氏母梵摩越)'이라 기록하고 미륵의 부모임을 밝히고 있어, 지은원본과 친왕원본에서도 머리를 깎는 미륵의 부모를 그린 것으로 생각한다. 그리고 하단에는 미륵불이 하생할 시두성의 생활상을 묘사하였으며, 가마를 메고 가는 사람들, 한 번 씨를 뿌려 일곱 번 추수하는 풍족한 추수 장면, 칠보가 떨어져 흩어져 있어도 아무도 욕심내지 않는 모습 등 경전에 묘사된 모습을 표현하고 있다.〈그림 2.〉

이처럼 중국과 고려 모두 미륵하생경의 내용을 매우 충실히 도해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고려 묘만지 소장의 '미륵하생경변상도'의 하단에 반야용선이 추가된 부분이 주목되며, 좀 많은 연구가 진행되어 궁금증이 해결되기를 바란다.

〈동국대 대학원 미술사학과 객원교수〉

우주의 신비가 호흡에 있다 - 호흡의 비밀을 풀다
만트라 염불선치료 명상 과학 센타
제6차크라 젠에너지 음악치료 명상
공개 강좌 : 매월 셋째주 일요일 오전 11시

4차 산업혁명과 AI 인공지능 시대에 미래의 대체의학인 젠에너지체(밀교의 의성신 · 금강신)를 배우고 익혀서 몸과 마음을 닦아 위로는 깨달음을 구하고 아래로는 중생을 이롭게 하고 제도하는데 원력을 세워서 수행 정진 하실 분.

■ 수 행 : 고타마 싯다르타(석가모니)부처님의 호흡법을 발견, 전수함. (아나빠나사띠숫타)
■ 부처님말씀 (아나빠나사띠숫타) : 1. 들숨날숨에 대한 알아차림을 통한 삼매을 닦고 많이 공부지으면 큰 결실이 있고 큰 이익이 있다.
2. 들숨날숨을 통한 알아차림에 대한 삼매을 닦으면 – 몸도 피로하지 않았고 눈도 피로하지 않았고 나의 마음도 번뇌로부터 해탈하였다.
3. 호흡의 전과정(길고, 짧고, 거칠고, 미세한)을 온몸으로 경험하면서 숨을 들이쉬고 내쉬리라.
■ 특 징 : 제 6차크라(제3의 눈 · 뇌의핵심〈송과체〉· 인당)가 단기간에 몸이 바뀌면서 온 몸에 신경세포가 전부 살아 움직이고(피부호흡) 머리에서 부터 발끝까지 온 몸에 24시간 강력한 전류가 흐르며 (젠에너지체 – 행주좌와어묵동정) 고요하고 편안한, 몸이 완전히 이완된 호흡 선정 상태에서 부작용 없이 자연스럽게 뚫리고 열려 나감.
■ 개인상담(구전심수) / 면접 상담 후 결정 ■ 등록번호 : 138-50-00260
■ 문 의 : ☎ 02-393-8027 (젠에너지 치료 예약 접수)

제6차크라 젠에너지 치료 명상가 처명선광
• 동국대학교 일반대학원 선학과 응용선학 박사수료
• 동국대학교 불교대학원 명상심리상담학과 석사 졸업
• 중앙승가대학교 불교학과 졸업,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중어중문학과 재학중
• 동방대, 옥천범음대 졸업, 중앙승가강원 대교과 수료
• (사)한국산업카운슬러협회 1급 지도자(심리상담)
• 서울 남부 구치소 교정위원, (전)서대문경찰서 경찰발전위원회 위원
• 유네스코 세계무형문화유산 국가무형문화재 제50호 영산재 이수자

*후원계좌 : 국민은행 (371101-04-120586 박성호)

제6차크라 열리기 전·후 비교사진



2015년 8월 4일



2017년 1월 9일

페이스북에서 'Sung Ho Park'(처명선광) 검색

붓다의 호흡법 연구소(소장:처명)
라이브 방송
페이스북 | 매주 수요일 밤 10-11시

본사의 염불전문시스템이 어느?

경지에 올랐고 일반시설과의 수준 차이가 어느정도인지 시설전 반드시! 비교 확인하셔서 평생 수 천번 사용하는 염불시설의 실패를 면하시기 바랍니다

▣ 방문자는 소리의 명인으로 염불소리의 교정 발전 및 전화상담 환영

본품은 본사의 염불전문 개발품으로 시중에 없음! 있을시는 일천만원 포상 지금 이 글은 법적증서!

장점 : (1) 앰프다루기 1초! 간결한 제품은 고장이 없음
(2) 방문시 설악 신흥사 및 토굴까지 2천여 사찰 시설명단 제공에서 확인!

USB겸용 앰프1, 스피커 2개, LG오디오 1개, 헤드셋 핀 핸드무선마이크, 무선마이크 종류별 4개, 유선마이크 1개(스탠드 포함)완벽시설, 290만원, 스피커 계속 연결시 비용추가 (방생용, 각종 마이크 구경)

▣ 마이크소리 구경 조건으로 신청 : 055-343-1191, 010-9471-2026, 010-7740-2026
▣ 주소 : 경남 김해시 진례면 진례로 백팔 NK사운드 대표 박 공 희

인간 변화 위한 '붓다정치' 필요



윤성식의
붓다의 정치학

⑨ 성범죄와 자유의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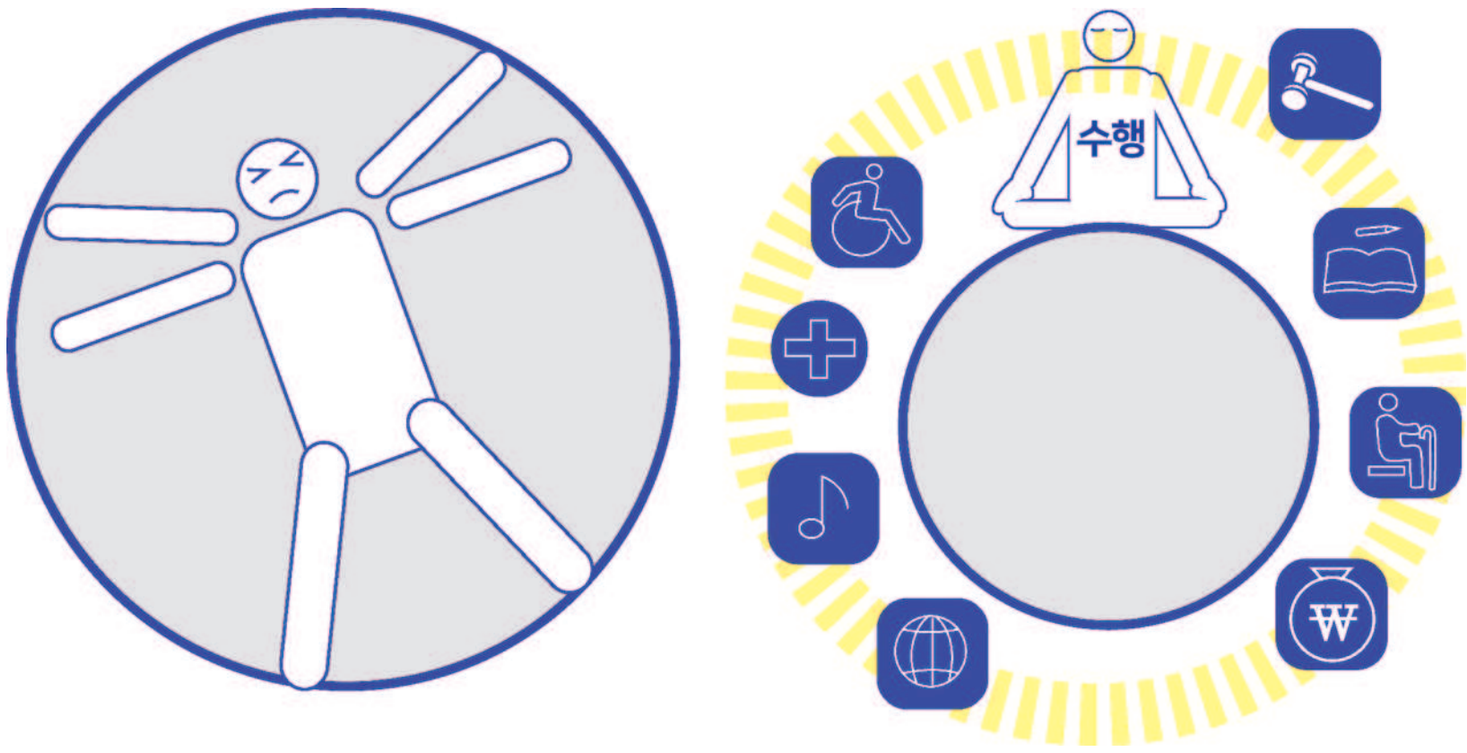


그림 · 박구원

유럽에서 성범죄를 반복해서 저지른 범인이 자신을 거세해달라고 요청했다. 자신은 석방되면 또 동일한 범죄를 저지를 수밖에 없고 자신은 성적 욕망을 통제할 능력이 없다고 호소했다. 미국이나 유럽은 성범죄자의 화학적 거세가 가능하다. 강제로 실시하는 나라도 있고 범인이 요청해야 실시하는 나라도 있다. 심지어 화학적 거세가 아닌 물리적 거세를 강제하는 나라도 있다. 우리나라도 성범죄자에게 화학적 거세를 할 수 있는 법이 통과되어 현재 시행되고 있다. 검사의 청구나 위원회의 결정으로 가능하다고 하니 선진국만의 이야기는 아니다.

인간은 과연 자유의지가 있을까? 인간은 성적 욕망 이외에도 많은 욕망이 있다. 식욕도 대표적인 인간의 본능이다. 인간은 어느 정도 식욕을 통제할 수 있을까? 담배와 술을 끊지 못하는 사람도 많고 마약 중독도 우리나라에서 증가 추세라고 한다. 불교는 욕망으로 인하여 고통이 생긴다고 보는 종교다. 욕망의 문제는 불교에서 가장 중요한 과학적 연구주제이다.

뇌과학이 발달하면서 인간의 자유의지에 대한 연구가 많이 진행되었다. 최초의 연구는 인간에게 자유의지가 없다는 결과여서 상당한 반향을 일으켰다. 실험대상자에게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게 한 뒤에 선택의 과정을 뇌과학적으로 측정했는데 선택하기 전에 뇌에서 이미 결정이 이루어진다는 연구결과였다. 우리가 선택하는 순간 이전에 뇌에서 모든게 결정되고 우리는 어쩌면 뇌의 결정을 따르기만 하는지도 모른다는 연구결과였기에 충격적이었다. 이 실험에 문제가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동일한 실험을 더 정교하게 반복했는데 결과는 처음 실험과 동일했다.

우리는 자유의지로 선택한다고 생각하지만 실은 많은 선택은 이미 자신이 어떻게 할 수 없는 요인에 의해 결정되는지도 모른다. 유전자, 교육, 경험 등이 우리의 뇌신경회로, 호르몬 등의 결정요인을 좌우하는데 인간이란 뇌신경회로, 호르몬 등이 지시하는 대로 하는 좀비라니 인간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연구결과다.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보면 수긍되는 점이 많은 연구결과다. 최근에는 인체 내의 미생물 체계가 우리의 생각과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도 나왔으니 뇌신경회로, 호르몬, 유전자, 미생물 체계 이외에도 우리의 생각과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계속 밝혀질 것이다.

그동안의 여러 학문적 연구에 의해 유전자의 역할은 잘 알려져 있다. 일란성 쌍생아는 유전자가 동일하다. 만약 일란성 쌍생아가 태어나자마자 헤어져 양육되면 과연 얼마나 다르게 자랄까? 미국에서 수천명의 이러한 사례를 조사한 연구 또한 흥미롭다. 아무리 다른 환경에서 자랐어도 유전자의 영향은 상당히 높았다. 연구에 의하면 일란성 쌍생아들은 100% 일치하지는 않았지만 여러 가지 선택에 있어 유사성이 평균보다 훨씬 높았다. 예를 들어 결혼한 배우자가 비슷한 유형이었다. 더욱 재미있는 것은 동일한 정당을 지지하는 일란성 쌍생아의 비율이 매우 높았다.

범인이 범죄를 저지른 게 자유의지가 아니라면 그 사람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을까? 우리는 자칫 자유의지가 없다면 책임을 물을 수 없으니 그 사람을 감옥에서 풀어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책임의 유무를 가지고 논하기보다 범죄를 저지르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를 논해야 한다. 지금까지는 범죄를 저지르면 일정 기간을 감옥에서 보내게 한 뒤 석방했다. 만약 자유의지가 없기에 범죄를 저질렀다면 완전히 인간이 바뀌기 전에는 절대 석방하면 안된다. 행위에 대해 책임지기 위해서 감옥에서 계속 있어야 하는 게 아니라 자유의지가 없기 때문에 계속 감옥에 있어야 한다. 자유의지가 없는 위험한 인물을 풀어주면 또 다시 범죄를 저지르기 때문이다.

그런데 정말 인간에겐 자유의지가 없을까? 다행히 최근 뇌과학 연구에 의하면 인간에겐 자유의지가 전혀 없지는 않고 약간의 자유의지가 있다고 한다. 자유의지의 영역이 생각보다 좁다는 연구결과지만 이 연구가 과연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진행될지는 모른다. 자유의지의 영역이 매우 좁다는 연구결과는 우리의 상식에 제법 부합한다. '세살 버릇 여든까지 간다'는 우리 속담이 있다. 한번 형성된 습관이 바뀌기 어렵다는 뜻이다. 즉 자유 의지로 버릇을 없애려고 해도 잘 안된다는 의미이다. 그렇지만 못된 습관을 바꾸는 게 불가능하지는 않다. 버릇을 고친 소수의 사람이 있지 않은가?

불교에서 업사상은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우리가 말, 행동, 생각으로 업을 지으면 업은 분명 우리에게 영향을 미친다. 만약 업사상을 숙명론으로 받아들이면 업사상을 잘못 이해하는 것이다. 업을 지었어도 다른 요인, 조건과 결합하여 결과가 발생하기 때문에 100% 업에 의해서만 결과가 결정되는 게 아니다. 게다가 수행에 의해 우리는 업을 소멸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업이 한 번 지어지면 거기에서 회피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부처님

자유주의 욕망 이면의
윤리 이념 보완책 필요
불교 '업'사상 활용가능

은 육사외도를 비판하시면서 숙명론은 잘못된 견해라고 하셨으니 업사상을 숙명론으로 해석하면 불교가 아니다. 업의 힘은 매우 강하다. 업을 소멸하기는 어렵다. 그렇기에 어쩌면 자유의지의 영역이 작다는 뇌과학의 최근 연구는 불교의 관점과 맥을 같이 한다.

불교는 수행의 종교이다. 부처에게 의존하고 기도하는 타력종교의 측면도 있지만 수행을 통해 스스로 변화하려는 자력종교의 측면도 있다. 부처님은 욕망에 좌우되는 인간의 나약함을 불타고 있는 욕망으로 표현하셨다. 해탈이란 욕망의 부림에서 벗어나는 것이라고 경전은 설한다. 수행이란 결국 욕망의 노예상태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100% 욕망에서 벗어날 수 없다면 인간은 자유의지가 전혀 없는 욕망의 노예에 불과하다. 욕망에 의해 부림 받지 않는 인간이란 수행에 의해 자유의지를 갖는 인간이며 업의 영향력에서 벗어나는 인간이다.

경제학자도 인간의 변화 가능성을 부인하지는 않을 것이다. 하지만 오늘날 경제학 교과서에는 인간을 어떻게 변화시켜서 효율적인 자원배분을 실현할까에 대한 내용은 거의 없다. 경제학에서 이기심과 욕망에 좌우되는 인간을 어떻게 변화시킬까에 대한 내용은 찾아보기 힘들다. 오히려 시장에 자율을 부여하면 인간의 본성인 이기심이 작동하지만 그 결과는 효율적인 자원배분이 달성된다는 주장이 신고전파 경제학의 핵심내용이다. 2007년 세계 경제 위기로 이러한 주장이 다소 꺾인 것은 사실이지만 아직도 경제학에서 건재하다.

불교 경제학은 인간의 변화 가능성이 핵심이다. 시장에는 수많은 생산자와 소비자가 있다.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 욕망과 본능에 의해 좌우되는 존재다. 불교 경제학은 생산자와 소비자의 변화를 통해서 시장자본주의의 한계를 극복하고 보다 바람직한 자원배분을 실현할 수 있다고 믿는다. 경제학의 아버지라 불리우는 아담 스미스는 윤리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도덕 감정론'이라는 저서까지 냈지만 후세 경제학자는 대부분 생산자와 소비자의 윤리 수준을 향상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외면한 것은 사실이다.

정치학자도 인간의 변화 가능성을 부인하지는 않을 것이다. 하지만 오늘날 정치학 교과서에서 인간을 어떻게 변화시켜 좋은 정치를 달성할까에 대한 내용을 찾아보기는 매우 어렵다. 정치학은 경제학 보다는 경제학의 소비자에 해당하는 시민교육에 관심을 기울이지만 불교의 관점에서 볼 때는 참으로 미흡하다. 정치학은 경제학 보다는 경제학의 생산자에 해당하는 정치인 양성에 관심을 기울이지만 정치학의 주류 내용은 아니다.

정치학과 경제학은 아직도 인간을 고정된 상수로 놓고 이론을 전개한다. 불교가 보는 정치는 인간의 변화를 통해서 많은 부분이 개선될 수 있는 영역이다. 불교에서 보는 인간의 변화는 단순히 정치인에게 정치에 도움이 되는 기술을 가르치라는 게 아니다. 불교는 사물과 현상을 어떻게 보고 어떻게 의사결정을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획기적으로 다른 관점을 제시한다. 좋은 시민이 되기 위해서도 인간은 변화되어야 한다. 사물과 현상을 보는 방식과 의사결정을 하는 방식이 불교적으로 바뀐다면 정치는 한 단계 성큼 성장할 수 있다.

불교의 지혜란 사물과 현상을 보는 눈을 바꾸는 지혜이고 생각과 행동을 바꾸는 지혜이다. 경전은 해탈하면 사물과 현상을 있는 그대로 알고 볼 수 있다고(여실지견) 설한다. 정치 현상을 있는 그대로 보고 알지 못하면 정치에 대해 생각하는 우리 수준이 결코 향상될 수 없다. 정치에 대해 생각하는 수준이 어리석은데 올바른 정치인과 국민의 행동이 나올 수 없다.

기도와 제사가 중심인 한국 불교는 수행의 종교로 다시 돌아가야 한다. 우리는 다시 부처에게 돌아가야 한다. 기도와 제사의 긍정적인 측면을 부인하는 게 아니다. 수행을 해야 불자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싶을 뿐이다. 정치도 수많은 원인과 조건, 즉 인연에 의해 발생하는 연기적 작용이다. 대한민국은 미세먼지와 정치만 개선되면 참으로 살기 좋은 나라다. 뉴스를 보기 싫어 TV 채널을 돌린다는 사람이 한 두명이 아니다. 정치는 국민의 고통을 해결해주어야 하는데 오히려 정치가 국민에게 고통을 준다. 잘못된 정치로 인한 고통도 생로병사의 고통처럼 불교적 관점에서 해결해 보면 어떨까? 〈고려대 명예교수〉

청동불상 조성업체 대원불교미술원



그 동안 저희 대원불교미술원을 성원해 주신 여러 스님분들께 머리 숙여 감사 드립니다.

그 성원에 조금이나마 보답하기 위하여 저희 대원불교미술원에서는 청동불, 개금, 탁자, 단청, 천불전, 특수불 등 일체를 혼을 담아 조성(제작)하여 저렴하고 합리적인 가격에 조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 대원불교미술원에서는 법당 철거 및 정리 일체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수거해 온 물건 및 퇴불은 파불없이 좋은 인연으로 어려운 스님들께 무료로 조성해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원장 임영달 올림.

경기도 포천시 내촌면 진목리 565-5 전화 031)532-3722, 533-3722 | H·P 010-7171-2636 | 정성을 다하는 대원불교미술원이 되겠습니다

선사 '말 · 행동' 간화선 토대 이루다



정운 스님의
인물로 읽는 禪이야기
⑨ 간화선의 근원을 찾아– 선문헌 · 어록



중국 사천성 신도현 보광사 선방 방장의 자리. 간화선은 선사의 말과 행동들은 어록으로 모았고 이후 어록의 일부는 공안으로 발전했다.

1)선 문헌에 관한 모든 것

①선문답과 어록의 성립

중국 고유 분류법에 따르면, 선종의 어록은 '자(子)', 저술은 '집(集)'이라고 한다. '자'는 〈노자〉 〈장자〉 〈한비자〉 등 사상적인 기록 문헌이며, '집'은 시문집과 같은 문학적 범주에 속하는 문헌이다. 어록(語錄)은 '자'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선종의 기록 문헌인 〈어록〉이나 〈전등록〉은 선문답의 집합성이라고 할 수 있다.

당대 조사선 시대에 선문답이 발전하면서 대승경전을 중심으로 정립했던 선사상이 송대로 들어서면서 어록 중심으로 옮겨갔다. 이 어록의 발달은 중국에서 〈논어〉 이래 중국적인 사유의 독특한 특색이다. 어록은 선사 개인의 행록과 법어로 이루어진다. 〈조주록〉 〈마조록〉 〈임제록〉 〈위앙록〉 〈조동록〉 등이 널리 알려져 있으며, 한국에서 편찬된 어록으로는 한국 임제종의 시조인 보우의 〈태고화상어록〉 〈나옹어록〉 〈백운어록〉, 선시(禪詩)의 보고인 진각혜심의 〈선문염송집(禪門拈頌集)〉 등이 유명하다.

②전등사

선종의 법계와 역사를 편찬한 대형 선종사서이다. 〈능가사자기〉 〈전법보기(傳法寶紀)〉 〈보림전(寶林傳)〉 〈조당집〉 〈전등록〉 〈오등회원(五燈會元)〉 〈지월록(指月錄)〉 등이다.

③공안집

선의 공안을 모아서 후대에 규범으로 편찬한 것이다. 〈벽암록(碧巖錄)〉 〈무문관(無門關)〉 〈종용록(從容錄)〉 진각혜심의 〈선문염송집(禪門拈頌集)〉 등이다.

④청규

선사들의 수행과 선원의 생활 규칙에는 〈백장청규(百丈淸規)〉(선원의 생활 규칙) 〈종문십규론(宗門十規論)〉 〈초발심자경문(初發心自警文)〉 등이 있다.

⑤좌선론

좌선 방법을 언급한 좌선론에는 〈좌선의(坐禪儀)〉 〈좌선잠(坐禪箴)〉 〈휴휴암좌선문(休休庵坐禪文)〉 등이 있다.

⑥수필

선문 일화집은 수필이라고 볼 수 있는데, 선문의 여러 가지 일화를 모은 것이다. 주로 송대에 많이 편찬되었다. 〈임간록(林間錄)〉 〈대혜종문무고(大慧宗門武庫)〉 〈설당습유록(雪堂拾遺錄)〉 〈나호야록(羅湖野錄)〉 〈운와기담(雲臥記譚)〉 〈선림보훈(禪林寶訓)〉 등이다.

2)어록의 특징 및 구성

①어록의 특징

어록이란 용어는 선종, 특히 조사선 시대에 선사들의 일상생활에서 대화나 행적을 기록한 것을 말한다. 후대에는 이 단어가 위인이나 유명인의 말을 모은 기록으로 광범위하게 쓰이고 있다. 그런데 어록이 발전하게 된 데도 시대와 맞물려 있다. 당나라 말기 오대에 정치적인 혼란을 극복하고자 왕권 중심의 국가주의와 유교를 통치에 반영하고자 하였다(유교가 발전하는 시기). 불교계 선종도 어록과 공안을 편집하고 총림 제도의 완비를 통해 당대에 완성된 선종을 계승 · 정리가 요구되었다. 즉 송대에 들어 점점 퇴색해가는 당대의 선을 계승코자 하는 선사들의 노력이기도 하다.

이에 선자들은 달마 이후 선종의 법계를 정리한 〈조당집〉과 〈전등록〉을 완성하고, 어록에 수록된 선사들의 언어와 행동을 사상적인 판례로 삼기 시작했다. 이것이 공안선 출현의 배경이 된다.

어록은 조사선의 특질 가운데 큰 위치를 차지한다. 당나라 때까지만 해도 선사들이 대승경전에서 수행의 근거를 찾았다. 점차 후대로 가면서 경전 인용이 점차 줄어들었다. 경론을 중시하는 인도적인 색채를 벗어나 중국 특유의 선종이 탄생되었다. 즉 어록이 등장하면서부터 중국에서는 위경(僞經)이 사라지는 현상이 드러났다. 상당설법(上堂說法)뿐만 아니라 스승과 제자간의 일상적인 대화와 행동을 단편적으로 모아 수록한 것으로, 선을 일상의 종교화로 만든 중요 요인이 되었다.

직접적으로 인간의 말이 존중되고, 경전의 권위보다는 사람의 생활을 문제 삼았다. 어록의 편집은 본인이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제 3자가 기록하는 것이 특징이지만 선사 생전에 그의 감독하에 행해져 해당 선사가 입적하면 곧 간행되기도 하였고, 경우에 따라서는 선사 생전에 간행되기도 하였다. 입적 후에 편집되는 경우에도 완성된 원고를 다른 선배들에게 보여 첨삭을 부탁한 후에 그들의 서문과 발문을 받아 간행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禪어록 · 전등록 선문답 집합체
어록 발달, 중국적 사유 특색
선사 행적 · 대화서 가르침 확인
어록 일부는 공안으로 발전해

②어록의 구성

선사가 생전에 주석했던 사찰의 순서대로 편집하는 방식이 있고, 대체로 선사의 전기 · 법어 · 선문답 · 선시로 구성을 이룬다. 법어에는 상당설법 · 시중(示衆, 선사가 제자에게 조참朝參이나 만참晩參하는 것) · 송고(頌古) 등으로 분류하여 편집하는 방식이 있다.

어록은 특히 한 선사의 전기(행록)로 이루어진 부분이 많다. 선사의 행록에서 선사와 제자의 관계를 축으로 선종사가 발전하게 된다. 개인과 개인의 체험, 선사들 간의 대화가 엮어져 선종의 역사를 이루었다. 여기에 편지나 선사의 저작을 모두 함께 넣어서 편집한 문헌을 광록(廣錄)이라고 한다. 대표적인 광록으로는 〈굉지선사광록〉 〈천목중봉화상광록〉 등이 있다.

또한 한 일파의 (법맥으로) 네 선사들의 기록을 모은 것을 사가어록(四家語錄)이라고 한다. 사가어록의 대표로는 송나라 초기인 1085년, 황룡혜남에 의해 편집된 마조계 어록이다. 즉 마조-백장-황벽-임제의 어록을 모은 것이다. 또한 〈황룡사가록(1153)〉이 전하는데 황룡-회당조심-사심오신-조종 혜방의 어록 모음이다. 운문종에서도 덕산-암두전활-설봉의존-현사사비의 어록을 모은 〈덕산사가록〉이 전한다. 또한 〈자명사가록〉이 전하는데, 자명 초원-양기방회-백운수단-오조법연의 어록을 모은 것이다.

③어록이 끼친 영향

당대에 발전한 어록 문학의 장르는 점차 후대로 가면서 다른 양상을 띠게 되었다.

첫째, 송나라 시대로 접어들어 어록의 내용 중 일부가 공안으로 변형되어 간화선이 형성되는 근원이 되었다.

둘째, 송대에 이르러 유가(儒家)의 어록 형성에도 영향을 주었다. 뿐만 아니라 일반인들에게도 영향을 미치어 보편적으로 쓰이고 있다. 그 대표적인 예로 현재 마오쩌뚱의 말을 모아놓은 〈마오쩌뚱 어록〉이 중국 인민들에게 읽히고 있다.

3)공안이 형성된 機緣

당나라 시대, 선이 활발하게 발달하면서 스승과 제자들은 단순히 선방에 앉아 좌선하는 것만으로 깨달음을 구하지 않았다. 스승과 제자가 함께 생활하는 속에서 선이 발달했던 것이다. 곧 스승과 제자들은 농사 짓고, 밥 먹으며, 차를 마시고, 산책하는 등 일상에서 자연스럽게 선문답이 이루어졌다. 이것이 후대 공안으로 만들어졌는데, 그 기원을 마조 도일(馬祖道一, 709~788, 조사선의 開祖)에 두고 있다. 할의 기원으로는 삼일이롱과 황벽토설이고, 행위의 기원으로는 백장야압이다.

①喝의 기원- 삼일이롱 · 황벽토설

백장 회해(百丈懷海, 749~814)가 마조 선사를 모시고 있을 때의 일이다. 백장은 법상 모서리에 있는 불자(拂子)를 보고 마조선사에게 물었다.

"이 불자에 즉(卽)해서 작용합니까?, 아니면 이 불자를 여의고(離) 작용합니까?"

"그대가 훗날, 법을 설하게 되면 무엇을 가지고 대중을 위해 제접할 것인가?"

백장이 대답을 하지 않고, 그 대신 불자를 잡아 세웠다. 마조가 이를 보고 물었다. "이것(拂子)에 즉해서 작용하느냐, 아니면 이것을 여의고 작용하느냐?"

백장이 불자를 다시 제자리에 갖다 놓았다. 마조가 순간, '악!' 하고 고함을 질렀다. 백장은 사흘 동안 귀가 먹었다. -〈백장록〉

이 이야기는 스승 마조의 고함소리에 제자 백장이 3일 동안이나 귀가 먹었다는 삼일이롱(三日耳聾)의 공안이다. 훗날 백장의 제자인 황벽 희운(黃檗希運, ?~856)이 백장에게 말한다.

"마조선사를 친견하고 싶습니다."

백장이 '마조선사는 이미 돌아가셨다' 고 답한다. 이에 황벽이 '그렇다면 마조스님이 어떤 법문을 남겼느냐?' 고 질문한다. 백장은 제자 황벽에게 이렇게 말한다.

"불법은 예사로운 일이 아니다. 내가 지난날 마조의 두 번째 할을 듣고, 3일 동안 귀가 먹고 눈이 멀었느니라."

이 말을 듣고 황벽이 그 자리에서 깨닫고 혀를 내밀었다는 이야기가 전한다. 이를 '황벽토설(黃檗吐舌)' 공안이라고 한다. 이 공안도 〈백장록〉에 전한다.

②行爲의 기원- 백장야압

마조와 백장이 들판을 지나는 중이었다. 이때 들오리 떼들이 날아가는 것을 보고, 마조가 백장에게 물었다. "저것이 무슨 물건인고?"

"들오리입니다."

"어디로 갔는가?"

"이미 날아갔습니다."

마조 선사가 머리를 돌려 백장의 코를 한번 비틀었다. 백장은 아픔을 참느라고 소리를 질렀다. 마조가 말했다. "다시 한 번 날아갔다고 말해봐라." 백장은 마조의 말끝에 깨달은 바가 있었다. -〈백장록〉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할 것이 있다. 고함소리에 3일이나 귀가 먹는다는 것은 약간 비상식적이다. 그만큼 스승의 가르침에 대한 강한 의미를 상징한다. 이 점은 후대 임제계 양기파에서 선종이 발달하면서 마조-백장-황벽-임제 등으로 법맥이 흘러온 것을 정립하기 위한 것이다. 곧 사자상승의 상징적인 의미를 덧붙여 선의 법맥을 강조한 측면으로 보인다.

〈조계종 교육원 불학연구소장〉

사찰 연등 및 전선 법당용, 외곽용

생산에서 시공까지 책임지겠습니다



설치가 편리한 고리형 후크

법당 전선시공 전문
승하강 장치시공(신형)



공단연등(고리용)



노랑(오렌지) 진분홍 백색 연분홍 금색

제등행렬용품



일자A형 S형 T분리형 LED바A형 LED홀더B형 건전지 초

전선간격
22cm, 25cm, 28cm, 30cm, 40cm, 50cm,
1m, 2m, 3m, 5m, 8m, 10m, 기타주문



고추구 12E 인지구 26E

LED전구 국산인증
(서울반도체 정품)



법당용 12E 외곽용 26E ISO9001 ISO1400 연등승하강 장치기술(신형)

도량(만월등)조립식 프레임(간편한 설치 및 높낮이 조절)



정직과 신뢰의 불자기업
불제 대원안전산업
BULJE DAEWON CO.LTD

구입문의 031)986-0277~8, 02)2266-2634
032)582-6235~6, 02)2263-2638
문의핸드폰 010-3630-7092
본사 · 공장 경기도 김포시 양촌읍 모산로 17-1

고려 문인 시서 차문화 자긍심 확인



박동춘의
고려茶 문화, 그 아름다움

⑨ 다시(茶詩)로 본 고려차문화

고려의 문인들은 육우(陸羽733~804)의 〈다경(茶經)〉을 읽으며 차의 원리를 터득하려 하였고, 차를 즐긴 당대의 문장가 한유(韓愈, 768~824)나 유종원(柳宗元, 773~819), 이백(李白, 701~762), 두보(杜甫, 712~770), 노동(盧仝, 790~835) 같은 이들의 시문을 통해 문인이 지향했던 오묘한 차의 세계를 이해하려 하였다.

그리고 송대의 구양수(歐陽脩, 1007~1072), 삼소(三蘇)로 칭송된 소순(蘇洵, 1009~1066), 소식(蘇軾, 1036~1101), 소철(蘇轍, 1039~1112)), 왕안석(王安石, 1021~1086) 같은 사대부들의 시문에 드러난 이상적인 차의 효능을 경험하고 공감하려 하였는데, 현재까지 남아 있는 고려의 관료 문인들이 남긴 수십 편의 다시(茶詩)는 이를 확인할 문헌 자료이다.

특히 고려 문인들의 다시 중에도 이규보(李奎報, 1168~1241)의 시는 차의 고아한 세계를 잘 드러냈는데, 이는 그의 차에 대한 안목뿐 아니라 당대 문인들의 차에 대한 인식, 그들의 눈길을 사로잡았던 찻그릇, 승원에서 벌어진 명전(茗戰) 놀이 등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담고 있는 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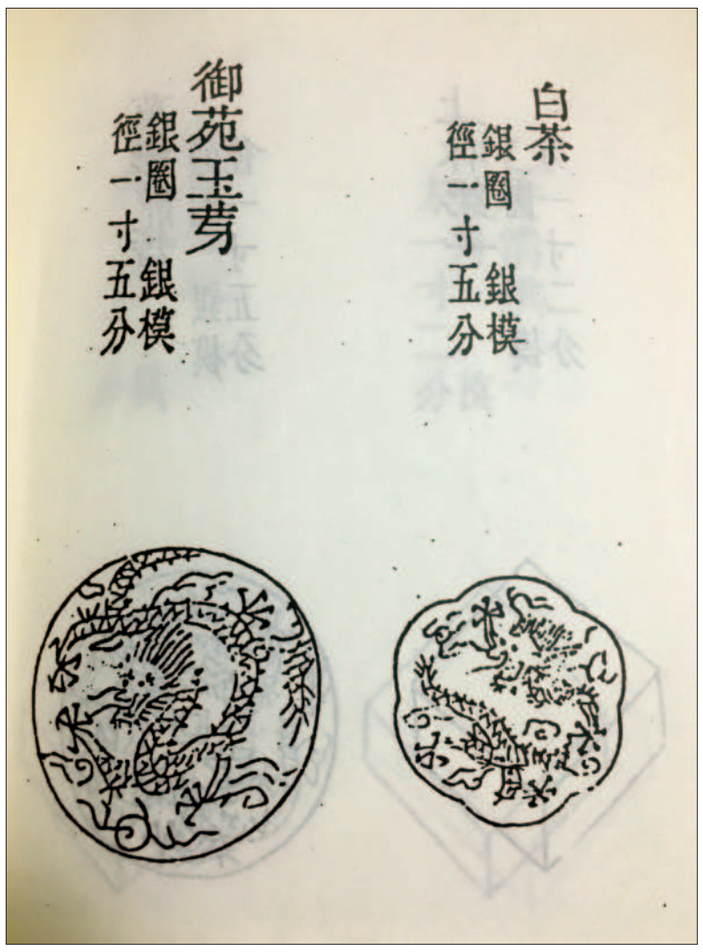
그런데 그의 〈옥당(玉堂) 손득지(孫得之), 사관(史館) 이윤보(李允甫), 사관 왕숭(王崇), 내한(內翰) 김철(金轍), 사관 오주경(吳柱卿)이 화답시(和答詩)를 보내왔기에 다시 운을 따라 화답하다(孫玉堂得之李史館允甫王史館崇金內翰轍吳史館柱卿見和 復次韻答之)〉는 한 편의 장시이지만 차 문화의 전반을 살필 수 있는 정보가 담겨 있다. 〈동국이상국집〉 권13에 수록된 이 시는 유려한 문체로, 차 역사와 13세기 고려의 차 문화를 살펴볼 수 있는 중요한 자료이다. 그러므로 그의 이 다시는 고려 차 문화의 전반적인 흐름을 이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전체의 시를 그 맥락에 따라 세분하여 그 의미를 살펴보고자 한다. 우선 이 시의 첫째 단락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옛적에 신농씨는 온갖 초목을 맛보고(昔者神農嘗草木)방경을 저술하여 기혈을 보충하려 했는데,(著之方經要補氣)유독 차만은 기록하지 않고 버려두어(獨於茗飮棄不收)온갖 만물과 차의 같고 다름을 논하지 않았네(不與萬品論同異)성인의 말하지 않은 바를 누가 먼저 평했던가(聖所未到誰唱先)해탈에 힘쓰는 연 스님이 더욱 즐긴 것이라(蠲昏釋鬪尤所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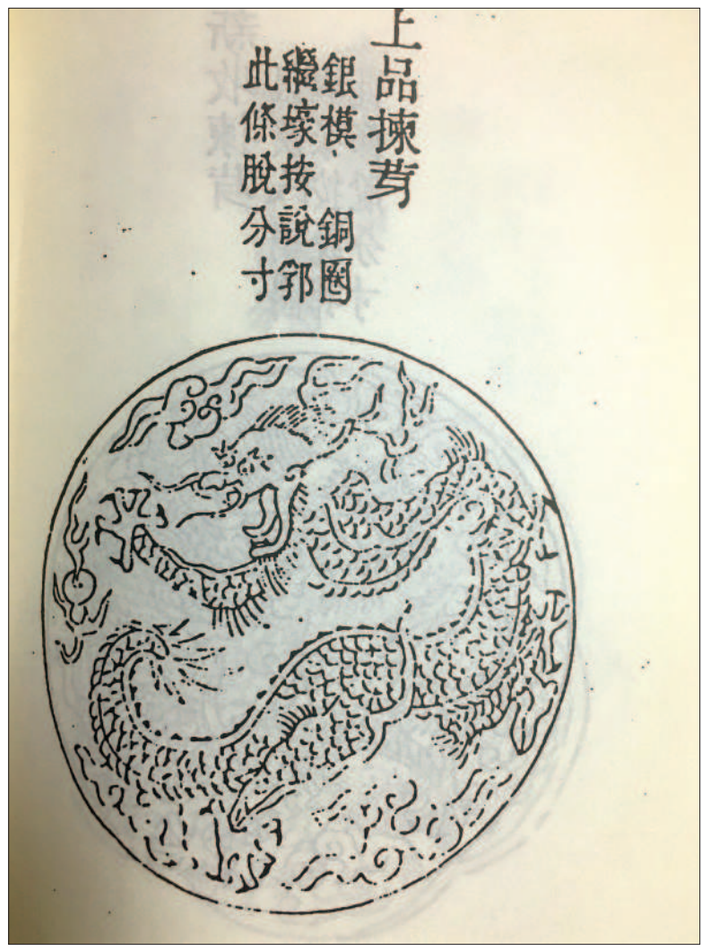
윗글은 이규보가 인식한 고대 중국 차 역사인데, 차를 처음 응용했던 그룹이 승려라는 견해를 피력했다는 점이 눈에 띈다. 알려진 바와 같이 신농씨는 전설 속의 인물이자 농사법과 약초를 규명하여 세상을 이롭게 했던 황제로, 염제(炎帝)를 말한다. 그런데 이규보는 "옛적에 신농씨는 온갖 초목을 맛보고" 병을 치료하는 약초를 사람들에게 알려준 인물인데, 약효가 좋은 차를 언급하지 않았다고 하였다. 그의 이런 견해는 종래의 설과는 다르다. 성당 때 중국의 차 문화를 집대성한 육우의 〈다경〉에 "삼황(三皇) 중에 염제 신농씨가 최초로 차를 알았다"고 하였는데, 이런 그의 견해는 일반적인 통설로 인정되었기에 초의선사(1786~1866)도 〈동다송〉에서 "염제의 〈식경(食經)〉에 차를 오래 마시면 사람이 힘이 생기고 마음이 즐겁다고 했다"고 하여 육우의 견해를 수용한 것으로 생각한다. 더구나 이규보는 〈다경〉을 애독했던 인물이었다. 처음 차를 즐긴 그룹이 승려였다는 그의 견해는 무엇을 근거로 한 것인지 분명하지는 않다. 다만 고려 시대 차 문화를 주도했던 핵심이 승려였음을 드러내려는 의도가 아닐까. 아무튼 다음 단락을 살펴보면 13세기 고려에서는 차가 유통된 정황을 밝혔다. 그 내용은 이렇다.

'요사이 사고 파는 차는 속임수가 많아(近遭販鬻多眩眞)약삭빠른 장사꾼의 계략에 달렸구나(競落黠商謀計裏)속된 의원들이 신선의 방술에 어두운 것과 같아(有如俗醫迷仙方)망령되게 새머루를 가리켜 칡덩굴이라 하네(妄把蘡薁云是蘟)그런 중에도 (차)오묘하고도 정미함을 평하는 자 있으니(箇中評品妙且精)오직 운봉에 사는 한 선사라네(唯有雲峰一禪子)'

이규보가 살았던 13세기의 차 문화는 발전할 대로 발전하였던 시기로, 왕실귀족, 승려, 관료문인들 사이에서는 최고급 백차(白茶)가 유행되었던 시기다. 그러므로 차를 애호하는 사람이 많아지자 중국차를 사고파는 상인이 있었는데, 나쁜 차를 좋은 차로 속여 파는 일이 허다했나 보다. 그러기에 "망령되게 새머루를 가리켜 칡덩굴이라(妄把蘡薁云是蘟)"하는 상인들의 속임수가 많았던 폐단을 지적하였다.



어원 옥아와 백차



상품간아



소식 초상화

〈다경〉 애독한 고려문인 이규보
차에 밝은 운봉의 승려 극찬해
당시 차 유통 정황도 시로 확인

차가 유통된 정황은 서긍의 〈선화봉사고려도경〉에도 "(중국 황실에서)하사한 차 이외에도 상인들도 가져다 팔기 때문에 근래에 두루 차 마시기를 좋아하여 다구에 더욱 정성을 들인다.(自錫賚之外 商賈亦通販故 邇來頗喜飮茶 益治茶具)"라고 한 대목에서도 확인된다. 따라서 12~13세기 고려에서는 송나라 황실에서 하사한 용봉단차이외에도 상인들이 거래하는 중국차가 유통되고 있었다. 그런데 예나 지금이나 이해관계에 밝았던 상인들의 속임수는 여전했던 듯하다.

한편에는 이런 흐름이 있었다 하더라도 차의 고수는 있게 마련이다. 그 중에도 차에 밝은 사람은 이규보와 막역했던 운봉에 사는 승려라는 것인데, 운봉에 사는 수행자는 바로 규(珪)선사를 말한다. 일찍이 이규보는 〈운봉에 사는 규선사께〉라는 시를 썼는데 여기에서도 운봉의 규 선사가 차에 밝았던 인물임을 극찬한 대목이 보인다.

그렇다면 승원이나 왕실 귀족, 관료 문인들이 향유했던 최고급 백차는 어떤 차였든 것일까. 차의 품색을 서사적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평소 절로 미소 짓게 하는 섣달에 움튼 차 싹이(平生自笑臘後芽)톡 쏘는 강렬한 (차) 향기, 코를 찌르네(辛香辣氣堪掩鼻)우연히 몽산에서 딴 첫차를 얻어(偶得蒙山第一摘)물이 끓기도 전에 우선 맛을 보았지(不待烹煎先嚼味)미친 객이 한 번 맛보고 유다라 부르니(狂客一見呼孺茶)늙은 나이에 어린애처럼 탐내는 데야 어이하리(無奈老境貪幼稚)강남에선 눈 속에서 따지 않았다면(不是江南冒雪收)이월 중에 어이 서울에 당도하랴(京華二月何能致)물건 팔림이 모두 사람에 달렸으니(物之自售皆由人)다리 없는 옥 같은 차도 오히려 찾아오네.(珠玉亦猶無脛至)시로써 논평하여 보계(譜系)에 대신하고 싶지만(作詩論詰欲代譜)붓 끝에 혀 없으니 자세히 진술할 수 없구려(筆端無舌莫詳備)유선(儒仙)에게 그 정수(精粹)를 발췌하게 하여(要令儒仙抉其精)허술한 종이에 거친 글씨로 써 보내오(硬牋麤字書以寄)

다섯 친구 연원 찾는 데 노력하였기에(五君騁思採淵源)거울에 비치듯 조금도 어긋남이 없네(毫髮莫逃如印水)시를 감상해 보니 다경보다 좋구려(見詩猶勝見茶經)육우가 품한 것도 찌꺼기에 불과할 뿐이네(陸生所品糟粕耳)

격조 높은 이소경에 붙일 것은 못되지만(調高未合綴離騷)시편의 뒤에 이을 정도는 되리(當繫詩篇聯四始)'

이규보를 미소 짓게 한 차는 섣달에 움튼 차 싹으로 만든 최상급의 단차(團茶)였다. 1186년에 저술된 조여려(趙汝礪)의 〈북원별록(北苑別錄)〉에 섣달에 움튼 차 싹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다.

'작은 싹은 그 작기가 매 발톱과 같다. 처음 용단승설 백차를 만들 때, 그 차 싹을 먼저 골라 다음에 쪄 익힌다. 찐 잎을 물동이에 넣고 그 정령한 것을 쪼게 (속대를) 취하니 겨우 작은 침과 같았다. 이것을 수아(水芽)라 부른다. 이것을 작은 차 싹 중에 가장 좋은 것이라 한다.(小芽者 其小如鷹爪 初造龍團勝雪白茶 以其芽先次蒸熟 置之水盆中 剔取其精英 僅如針小 謂之水芽°是小芽中之最精者也)'

매 발톱처럼 생긴 차 싹을 따기 위해 차출된 백성의 노고를 짐작하게 한다. 더구나 차를 쪄서 속대를 발라냈는데, 물속에 잠긴 속대가 마치 은으로 만든 실처럼 보이기에 은선수아(銀線水芽)라 불렀던 차를 말한 것이다.

이규보를 미소 짓게 한 차는 이런 차였다. 그러니 "톡 쏘는 강렬한 (차) 향기, 코를 찌르네"라고 한 것이다. 그러므로 그는 보계를 짓고 싶지만, 붓끝으로 표현할 수 없었던 진귀한 차였다. 나름대로 차를 잘 알았던 이규보의 친구, 옥당(玉堂) 손득지(孫得之), 사관(史館) 이윤보(李允甫), 사관 왕숭(王崇), 내한(內翰) 김철(金轍), 사관 오주경(吳柱卿) 등은 차의 연원을 잘 아는 사람들이라 차의 품평에 오차를 내지 않을 실력을 갖췄다. 그러니 이들이 쓴 차의 화답시는 〈다경〉보다 뛰어났고, 육우보다 상등한 품평가라는 말이다. 그러므로 이 시는 고려인의 차에 대한 열정이나 긍지, 안목에 관한 자신감을 함께 드러낸 것이라 하겠다.

〈(사)동아시아차문화연구소장〉

영혼의 세계 빙의

◉ 영가천도는 이렇게 해야 한다! ◉

■ 영가천도를 행하는 사람이 영화 화면 보듯이 훤하게 영가를 볼 수 있어야 한다!
■ 영가의 생각을 환자의 입으로 영가의 이름, 나이, 성별, 빙의, 년수, 살던곳, 가족인지 아닌지를 확인 할 수 있어야 된다.
■ 영가가 몸에 들어온 이유를 말하게 해야 한다.
■ 영가가 병든 상태인지, 다친상태인지등을 확인하여 치료해줄 수 있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환자의 병이 낫지 않는다(영가의 병이 사람에게 옮겨온 경우.)
■ 영가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갖고 싶은것, 먹고 싶은것을 물어서 원하는 것을 갖고, 먹게 해주어야 떠난다.
■ 예를들면 소주가 먹고 싶은데 맥주를 주면 영가가 토라져서 천도가 되지 않는다. (환자의 입으로 말한다.)
■ 영가가 알아듣기 쉬운말로 설득을 해야 한다. 어려운 경문을 외우면 영가는 알아듣지 못한다. (살아있는 사람도 어렵게 얘기하면 못 알아듣는다.)
■ 환자의 입을 통해 영가가 떠난다고 말하고 빛을 타고가는 것이 환자가 볼 수 있어야 된다. (빛은 영가가 천상으로 가는 길이다.)
■ 조상영만 천도하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영가를 확인해보면 조상령 보다도 타 영가가 훨씬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조상영가,전생영가로 인해 잡귀가 들어온다.)
■ **영가 천도제를 하고 나면 곧바로 병이 호전되어야 한다.**
■ '비만'같으면 그 자리에서 살이 빠지는 것이 확인 되어야 하고 육체적인 증상이 곧바로 개선 되어야 한다.
■ 먹는 음식이 절제가 되지않고 살이 찌시는 분.

불임, 자연유산, 우울증, 심장발작, 조울증, 강박증세, 신들림, 불면증, 악몽, 가위눌림, 현대의학으로 진단이 안나는 병, 몸에서 기운이 빠져나가는 병, 근육이 풀어지며 통증으로 고통 받는 분, 몸이 굳어지며 감각이 없는 분, 병원 등을 수 군데 찾아다니고도 못고친 병으로 고생하는 분.

❖ 스님(수행하시는 모든분)오래된 고질병으로 고생하시는분. ❖ ❖ 영가를 확인하면 어마어마한 사실을 알게된다. ❖

풍수에 관한 모든 것 상담 가능 **천광수련원 TEL 043) 905-8275** (충북 보은군 내북면 봉황리 223번지)

척하면 그냥 알아버린다



지안 스님의 임제록 강설

⑰ 심지법(心地法)

"여러분, 산승이 법을 설하는 것이 무슨 법을 설한다고 생각하는가? 심지법(心地法)을 설하는 것이니라. 범부(凡)에도 들어가고 성인(聖)에도 들어가며 깨끗한(淨) 데도 들어가고 더러운(穢)데도 들어가며 참된(眞) 것에도 들어가고 속(俗)된 것에도 들어가는 것이니라.

중요한 것은 진(眞)·속俗)·범(凡)·성(聖)이라 구분하여 말하지만 실제로는 진·속·범·성이라 이름 붙여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진·속 ·범 ·성이 사람에게 이름을 붙여 달라 할 수도 없는 것이니라. 여러분, 잡아 쓰면 그만이지 다시는 이름을 붙이지 말라. 이런 것을 현묘한 뜻(玄旨)이라 하는 것이니라.

산승이 설하는 법은 천하 사람들이 설하는 것과 다르니라. 문수보살이나 보현보살이 내 눈앞에 나와 각각 하나씩 몸을 나타내 법을 묻되 '화상에게 묻겠습니다' 라고 한다면 그 즉시 나는 벌써 알아차려 버린다.

노승이 안온하게 앉아 있는데 도를 닦는 어떤 이가 찾아와 서로 만날 때도 나는 다 알아차려 버린다. 어째서 그런가 하면 산승의 보는 곳은 달라서 밖으로 범·성을 취하지 않으며 안으로 근본(마음)에도 머물지 아니하여 보는 것이 철저해서 더 이상 의심하거나 그르침이 없기 때문이니라."

심지법문(心地法門)이란 마음을 깨친 경지를 드러내는 법문이라는 말이다. 〈심지관경〉, 〈능엄경〉, 〈범망경〉 등 여러 경전에도 심지법문이라는 말이 자주 나오듯이 부처님의 법문이 넓은 의미로 볼 때 모두가 심지법문이다. 하지만 여기서는 선수행을 통한 마음자리를 깨친 법문이란 뜻에서 쓰인 말이다. 깨달음으로써 법칙을 삼아(以悟爲則) 확철대오하여 종통(宗通)을 얻은 법문이다. 선에서는 종통을 중요시한다. 상대적인 말에 설통(說通)이란 말도 있다. 이론적 설명을 잘 해주는 것을 말한다. 아무리 교리적 혹은 선리적(禪理的) 설명을 잘 해도 설명이 깨달음 자체는 아닌 것이다. 마치 음식 맛을 육미(六味)로 설명을 해도 "달다 쓰다" 하는 것이 맛 자체는 아닌 것처럼.

이 심지법문은 차별의 경계에서 나눠지는 모든 상대적인 것을 불식시킨다고 임제는 말하고 있다. 마치 허공 자체가 어느 특정 소속이나 사방의 방향을 가질 수 없듯이 심지법문은 차별적 명상(名相)에 의해 한정되어지지 않는다고 하였다. 범(凡)·성(聖)·진(眞)·속(俗)에 드나들지만 범·성·진·속이 아니라 한다. 범부라 해도 범부가 아니며 성인이라 해도 성인이 아니다. 진제(眞諦)도 아니고 속제(俗諦)의 경계도 아니라 했다. 사람들은 곧잘 진리(眞理) 혹은 도(道)에 대해 특정 관념을 세우고 이것이 진리고 이것이 도이다, 하는 주장을 내세우는 경향이 있다. 이른바 분별의식이 일어나면서 객관대상을 개념화시키는 것이다. 그리하여 때로는 어떤 주장을 강력히 내세울 때 그냥 도그마(dogma)를 만들어 버린다. 그렇게 하는 것이 바로 자성을 바로 보지 못한 망상적 분별일 뿐인데도 그러한 언어적 습관이나 관념적인 분별의식을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심지법문에 계합하지 못하는 것이다. 이름도 없고 모양도 없는 것을 이름으로 이해하고 모양으로 이해하는 것이 깨닫지 못한 자들의 잘못된 허물이라고 보는 것이다.

임제는 자신의 설법이 보통 사람들의 설법과 다르다는 것을 말한다. 자신이 하는 말은 개념을 만들어 조립하는 언어가 아니라는 말이다. 말하자면 언어 이전에 직관의 통찰에서 나오는 말이라 할까. 그리하여 그는 척하면 그냥 알아버린다 하였다. '눈이 부딪치는 데 도(道)가 있다' 는 목격이도존의(目擊而道存矣)라는 공자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는 말이다.

또 심지수행(心地修行)이라 하여 마음에 갖춰진 불성을 계발하는 수행으로 정혜등지(定慧等持)를 닦는 것을 이르는 말도 있다. 〈육조단경〉이나 황벽의 〈전심법요〉에서 심지법문의 요지를 설명하는 대목이 나온다. 단경에서는 계(戒) · 정(定) · 혜(慧)의 삼학(三學)을 심지에 의거하여 설명하고 있고, 법요에서는 말하기를 심지법문에서는 만법이 모두 마음을 의거하여 건립되는 것이라 하였다. 대지(大地)가 일체 종자를 싹 트게 해 자라게 하듯이 심지(心地)에서 모든 수행이 일어나기 때문에 만행(萬行)의 근원을 심지라 하였다.

〈조계종 고시위원장〉

모든 것의 근원은 '마음'



세상 속 경전읽기

⑰ 관심일법(觀心一法)

달마대사의 저서 모음으로 알려진 〈소실육문(少室六門)〉은 보리달마선사 선(禪)의 요점을 드러낸 글로서, 제1문(第一門) 심경송(心經頌) · 제2문 파상론(破相論) · 제3문 이종입(二種入) · 제4문 안심법문(安心法門) · 제5문 오성론(悟性論) · 제6문 혈맥론(血脈論)의 육문(六門)으로 구성되어 있다.

〈소실육문〉의 소실(少室)은 달마대사가 머물렀던 숭산(嵩山)의 소실산(山) 또는 소실봉(峰)에서 유래한 것으로 달마를 지칭하는 별칭이다. 중국 허난성[河南省] 덩펑시[登封市] 북쪽에 있는 숭산(嵩山)은 중국 5대 명산[5악(岳)]의 하나이다. 숭산에 세 첨봉(尖峯)이 있는데 중간을 쥔지봉[준극봉(峻極峰)], 동쪽을 타이스봉[태실봉(太室峰)], 서쪽을 샤오스봉[소실봉(少室峰)]이라고 한다. 샤오스봉[少室峰] 북쪽 기슭에 있는 샤오린사[소림사(少林寺)]는 중국 선종(禪宗)의 초조 달마대사(達磨大師)가 9년간 면벽 좌선을 했던 곳으로 알려져 있다.

〈소실육문〉에 실린 여섯 개의 저서는 당나라의 비교적 초기에 저술된 것들로, 전부 보리달마 친찬(親撰)이라는 증거는 없다. 다만 '제3문 이종입' 과 '제4문 안심법문' 의 수기본(手記本)이 돈황(敦煌)에서 발견되어 대영박물관과 북경국립도서관에 보관되어 있다. '이종입' 은 도선(道宣)이 지은 〈속고승전(續高僧傳)〉의 보리달마 전기에 제목 없이 같은 내용이 실려 있고, 정각(淨覺)이 지은 〈능가사자기(楞伽師資記)〉에도 소실육문본과 동일한 것이 실려 있다. 또 〈경덕전등록(景德傳燈錄)〉 권30에 담림(曇林)의 서문과 함께 보리달마약변대승입도사행(菩提達磨略辨大乘入道四行)이라는 제목으로 실려 있다. 따라서 이종입과 안심법문은 달마대사의 친찬일 것으로 여겨진다.

제2문 파상론(破相論)은 관심론(觀心論)이라고도 불리며, 북종선의 개조인 신수(神秀, ?~706)의 저술 '파상론(破相論)' 과 일치되는 부분이 다수 발견되어 신수가 속찬(續撰)한 것으로 추정된다. 2조 혜가(惠可, 481~593)가 달마대사와 주고받은 문답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다.

파상론에서 "나무의 근원이 뿌리이듯이, 모든 것의 근원은 마음이므로, 깨닫고자 하면 오직 모든 것의 근원인 마음을 살피고, 마음을 알고 수행하고, 마음 밖에서 구하지 말라"고 하였다. 존재를 깊이 통찰하면, 세상을 구성한 요소인 4대(大)와 나를 구성한 요소인 오온(五蘊)이 실체가 없다. 마음작용에 착한 일을 즐기는 정심[淨心, 맑은 마음]과 나쁜 일을 생각하는 염심[染心, 흐린 마음)이 조건 따라 번갈아 나타난다. 염심(흐린 마음)에 물들지 않으면 성인으로, 이고득락[離苦得樂, 고를 여의고 즐거움을 얻음]하게 되지만 염심(흐린 마음)으로 살면 범부중생이니 참나가 묻혀버린 삼계고해(三界苦海)에서 표류하게 된다.

중생 몸속의 금강불성(金剛佛性)이 태양 같이 밝으나 오온 번뇌에 덮여 병 속의 등불처럼 드러나지 못한다. 중생이 모두 불성[佛性, 각성(覺性)]을 갖추었으니 스스로 깨닫고 남을 깨우쳐[自覺覺他] 깨달음의 지혜가 분명해 자유로워야 한다. 염심의 무명운[無明雲. 무명의 구름]을 걷어내고 정심의 불성일[佛性日, 불성의 태양]을 드러내면 깨달음을 근본으로 모든 공덕이 이루어지고 열반을 얻게 됨을 알아야한다.

모든 선한 일은 깨달음이 근본이니 깨달음의 뿌리에서 모든 공덕의 나무가 자라고 열반의 과실을 얻게 된다. 이와 같이 마음을 살피면 가히 마음을 꿰뚫어 안다고 할 수 있다.

〈배광식 서울대 치의대학원 명예교수〉



신해행증으로 본 백문백답

⑬ 닦음의 길 3 / 위빠사나 원리·실존적 의미

있는 그대로 보는 것

"눈 오는 날엔 / 사람과 사람끼리 만나는 게 아니라 / 마음과 마음끼리 만난다 / 그래서 눈 오는 날엔 / 사람은 여기 있는데 마음은 딴 데 가 있는 경우가 많다 / 눈 오는 날엔 그래서 / 마음이 아픈 사람이 많다"

눈 내리는 겨울이면 가끔 생각나는 이정하 시인의 〈눈 오는 날〉이라는 제목의 짧은 시다. 눈 내린 어느 날 몸은 여기 있지만, 마음은 다른 곳에 가 있는 아픈 사람들의 심정을 담백하게 그리고 있다. 중생이란 이처럼 몸 따로 마음 따로 놀고 있는 존재가 아닐까 싶다. 경우야 조금 다르지만 싯다르타가 당시 유행하던 선정과 고행을 버린 이유도 수행과 일상, 몸과 마음이 따로 작동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했기 때문이었다. 그는 이런 자신의 모습을 조금의 왜곡도 없이 '있는 그대로' 보기 시작하였다. 그저 보기만 했을 뿐인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다. 그토록 원하던 존재의 참 모습을 깨치게 된 것이다.

싯다르타는 위빠사나를 통해 깨침에 이르게 되었다. 이 수행법은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이다. 그런데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이 그리 만만한 일이 아니다. 이것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마음에 아무런 동요가 없어야 한다. 마치 물속에 담긴 수저를 제대로 보려면 물의 움직임이 없어야 하는 것과 같다. 물이 이리저리 흔들리면 수저의 모양이 구불구불하게 보인다. 이처럼 우리의 마음도 평온해야 대상을 있는 그대로 볼 수 있다. 그래서 산란한 마음을 고요하게 하는 정정(正定)은 위빠사나 수행인 정념(正念)과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다. 선정과 지혜를 함께 닦는다는 정혜쌍수(定慧雙修)는 바로 이를 의미한다.

그렇다면 위빠사나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보는 것일까? 그것은 바로 자신의 몸(身)과 느낌(受), 생각(心), 생각의 대상(法)이다. 이 네 가지 대상을 관찰한다고 해서 위빠사나를 사념처관(四念處觀)이라 부르기도 한다. 먼저 신념처(身念處)는 우리가 숨을 들이쉬고 내쉴 때 몸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관찰하는 것이다. 예컨대 숨을 들이쉬면 아랫배가 나오고 내쉬면 들어가는 현상에 마음을 집중하는 것이다. 둘째로 수념처(受念處)에서 '수(受)' 는 느낌을 의미한다. 어떤 대상을 볼 때 받게 되는 좋다거나 싫다는 느낌을 속이지 않고 있는 그대로 관찰하는 것이다. 셋째로 심념처(心念處)는 마음 안에서 탐욕이나 성냄 등의 생각들이 순간순간 일어나고 사라지는 과정을 여실히 관찰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법념처(法念處)에서 법은 생각의 대상을 뜻한다. 연기나 삼법인, 사성제 등의 진리를 관찰하는 것이다. 요약하면 관(觀)의 대상은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는 온갖 현상들이다. 이것들을 있는 그대로 낱낱이 관찰하면 무상과 무아를 깨칠 수 있다는 것이 위빠사나의 원리다.

위빠사나는 실존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이것은 곧 현재의 자신을 분석하고 성찰하는 일이기 때문이다.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있는 그대로 관찰하면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 수 있다. 현재의 내 모습은 과거 오랫동안 몸과 입, 생각으로 행한 업(業)의 결과물이다. 평소 쉽게 화를 낸다거나, 욕을 많이 한다면 그것은 과거로부터 쌓인 좋지 않은 에너지가 작동하고 있다는 뜻이다. 이런 나쁜 습관을 청산하고 새로운 삶을 창조하기 위해서는 화를 내거나 욕을 하는 자신의 모습을 볼 수 있어야 한다. 이렇게 관찰하면 멈출 수 있는 힘이 생긴다. 위빠사나는 그런 성찰의 힘을 기르는 수행이다.

싯다르타는 보리수 아래 앉아서 지금까지의 수행을 멈추고 자신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관찰하기 시작하였다. 선정을 한다면서 몸 따로 마음 따로 놀고 있는 모습이 보였고 몸을 괴롭히면 마음의 고통이 사라질 것이라는 어리석음 또한 보였다. 그 순간 어리석음이 지혜로, 중생 싯다르타가 붓다로 질적 전환을 이루었다. 우리가 위빠사나에 주목하는 이유다.

원로 불교학자 강건기 교수는 어느 강연 마지막 시간에 "몸 있는 곳에 마음 있게 하라."는 말을 남겼다. 위빠사나가 싯다르타에게 가져다준 선물은 몸과 마음, 생각과 행동이 하나 되는 붓다의 삶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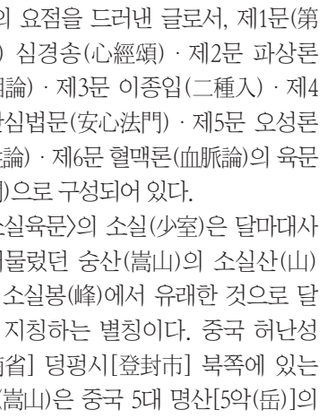
〈이일야 전북불교대학 학장〉

GM since 2015 GMSOFT 사찰신도 관리 프로그램

동종업계 최저가격

"번거로운 설치없이 이용가입 후 바로 사용 가능"
"이용 사찰의 프로그램 만족도 우수"

최초 가입시 1개월 무료 사용 | 월사용료 기본 19,800원 | 설치비 · 세팅비 전액무료



프로그램 주요 기능

❶ 연등표 출력
❷ 인등표 출력
❸ 위패출력
❹ 문자발송
❺ 기부금 영수증
❻ 사주팔자

부가서비스

• 원격지원 | 해당 사찰의 컴퓨터를 원격으로 제어하여 실시간 프로그램 설명 및 오류 수정
• 적립포인트 제도 시행 | 접속률, 이용후기작성, 사용료 3% 등 최대 22,000P 제공
• 축원문출력, 삼재관리, 회계관리, 우편라벨 출력, 신도생일 및 신도영가 기일 자동 표시
• 물품관리, 전국 날씨정보, 메모장, 일정관리, 등록된 모든 자료 파일 다운로드 가능

지엠소프트 [지엠소프트]를 검색하세요

대표전화 070-7633-2525, 010-8588-2525
상담문의 평일 09:30 ~ 17:30. 토/일요일, 공휴일 휴무

홈페이지 www.gmst.co.kr

부처님의 마음을 빗는 불상 불단 조성 전문업체
한국불상조성원
상담문의 010-3665-6696

정성과 신뢰로 짓습니다.

한국불상조성원에서는 예로부터 전해오는 전통불상제작 방법을 전수받아 한국 불상의 전통과 맥을 이어가고 색바램없이 영구적으로 모실 수 있는 기술적 자질을 보유하여 다양한 불상을 조성하며 전통적인 표현양식을 계승하고 있습니다. 또한 불상판매 뿐만 아니라 사찰에 관한 모든 필요한 것을 일체 컨설팅과 자문도 해드리고 있습니다.

한국불상조성원 대표 이 인 규 합장

불단, 수미단 | 닫집, 운각 | 특수불, 동불, 목불 | 단청개금, 순금개금 | 도금, FRP, 수지
소불, 대불, 모든 탱화 | 위패제작 | 건 축 | 맞춤 조성 가능 | 사찰 관련 컨설팅 및 자문

TEL 031-536-6696 | FAX 0504-398-6696

마음은 세상 진리 담긴 그릇



최훈동의
마음 사용 설명서
⑨ 환상과 진실



9-1 룸비니 동산에 꽃비 내리던 날 부처님은 탄생하셨습니다. 태어나자마자 사방으로 일곱 걸음을 걷고 하늘과 땅을 가리키며 "하늘 위와 하늘 아래에서 오직 내가 홀로 존귀하다(천상천하天上天下 유아독존唯我獨尊)"고 외치셨다고 대승경전에서는 전합니다. 이것을 액면 그대로 믿으면 신앙이 되고 이 안의 숨은 메시지를 읽고 깨우치면 깨달음이 됩니다.

이 땅에 부처님이 오신 진정한 의미는 무엇일까요?

후기 대승 경전에 실린 부처님 탄생 내용을 초기경전(니까야)에서 찾아보면 싯다르타가 오랜 수행 끝에 정각을 이룬 후 "나는 신들의 세계, 악마들의 세계, 성직자들과 수도자들, 왕들과 백성들의 세계에서 위없는 깨달음을 바르고 원만하게 깨달았다"고 선언하는 대목과 만납니다.

9-2 스스로 가장 높다는 말에는 두 가지 전혀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독존과 자기애입니다. 독존은 모든 구속에서 벗어난 순수한 상태가 독존입니다. 붓다가 선언한 '천상천하 유아독존'의 독존이 그것이지요. 그러나 자기애로서 독존은 자신만 알고 자신만 높고 위대해서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자신의 생각만 옳다고 고집하며 마음을 닫고 삽니다. 누구의 말도 듣지 않고 자기주장만 내세우지요. 그 주장이 아무리 그럴 듯해도 다른 사람과 소통이 막혀 있는 장애인입니다. 자기애적 성격의 소유자와 과대망상증 환자에서 볼 수 있습니다.

부처님의 육적인 탄생 메시지와 영적인 탄생(깨달음)의 메시지 사이에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중생과 부처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9-3 자신의 종교를 신격화시키고 최고의 종교로 만들고 싶은 마음은 동서가 같습니다. 동정녀 마리아로부터 아버지 없이 탄생한 예수나 태어나자마자 걸으며 우주에서 최상자라고 선언하는 싯다르타나 닮은꼴입니다. 종교의 양면성은 기대어린 환상을 좇는가 하면 진실한 삶을 추구하는 동력을 제공하기도 합니다. 코로나 사태를 겪으며 우리는 내면의 어두운 민낯과 함께 밝은 본성도 보았습니다. 상황을 어떻게 해석하느냐는 전적으로 우리의 책임입니다. 그 기준은 지금껏 살아오면서 겪은 경험과 배운 지식들에 의해 세워진 각자의 신념과 원칙들입니다. 이 신념과 원칙은 종교 정치 사회 전반에 걸쳐 강력한 잣대로 작용합니다. 그러나 신념들은 진실은 아닙니다. 매우 주관적이기 때문이지요. 개인적인 신념은 각자의 성격을 규정하고 집단적인 신념들은 각 나라의 문화적 특성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사회적 관습이나 규범으로 나타나기도 하지요. 상황을 사실에 입각하여 보고 부풀리거나 왜곡시켜서 보지 않는 게 중요한 것은 종교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른 믿음과 그릇된 믿음으로 갈리게 되니까요.

9-4 무고한 사람들이 정복자들에 의해 무자비하게 죽임을 당하거나 노예로 고생합니다. 로마의 지배에 놓인 유대인들의 오랜 고난이 육신 부활의 신앙을 낳습니다. 고통 받은 사람들 편에 섰던 그 고귀한 죽음이 그대로 끝난다면 너무나 불공평하지요. 또 무자비한 정복자들의 호화로움이 영원히 지속된다면 역시 너무나 불공정합니다. 인생이 일회적이라고 누가 말하나요? 하루가 하루로 끝난다거나 일년이 일년으로 끝난다고 말하는 근거는 그렇게 개념을 설정했기에 하루가 되고 일년이 된 거지요. 본래 시간은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데 구획을 정하기를 좋아하는 마음이 그리 한 거지요. 봄이 되어 싹트고 여름되어 푸르르다가 가을되어 노랗게 되고 겨울 되어 땅에 떨어지는 낙엽은 흙속에 썩어 어느 세월 다시 뿌리로 흡수되어 다시 싹트거나 빗물에 씻겨나가 강이 되고 바다가 되어 다른 생명의 일원이 되기도 하지요. 순환의 법칙은 자연에만 적용되는 게 아닙니다. 인간은 자연의 일부이지 자연의 법칙에서 예외적 존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9-5 무서운 4월은 기독교에서는 고난(수난)의 주간에 이은 부활절의 달이기도 합니다. 고통을 극복하면 행복이 온다는 메시지이지요. 그런데 부활을 문자적으로 믿으면 전지전능하고 불사의 신으로 신격화되어 오직 한 사람이 되고 맙니다. 그분의 뜻과 상관없이 모든 사람은 그를 통해서만 구원이 가능하고 한 사람만이 하느님의 아들이고 모든 인간은 죄인이 되고 말지요. 모두가 하느님의 아들이라는 시편의 말씀과 상충합니다. 역시 석가모니만 부처님이고 그 외엔 부처가 아닌 중생으로 자처하는 불교 신앙도 같은 맥락입니다.

종교는 개인적 신념의 결집
맹목적 믿음서 쓰임 살펴야
부처님 오신 참의미에 부합

붓다는 당신만 믿고 따르라거나 구원을 요청하면 들어주겠다는 말 대신 오히려 "자기 자신에게 의지하고(自歸依) 가르침에 의지하라(法歸依). 결코 다른 것에 의지 말라"고 유언을 하셨으며, 정각을 이룬 후 "희유하고 희유하다. 모든 중생들이 부처의 성품을 가지고 있구나(일체중생一切衆生 실유불성悉有佛性)"라고 선언하셨습니다. 부처님 당신처럼 누구나 부처가 될 수 있다고 선언한 거지요. 인류의 고통을 위한 헌신의 가르침은 우리 모두가 하느님의 아들이고 존귀한 부처라는 메시지, 부활의 메시지이고 깨달음의 메시지입니다.

9-6 우리는 결점을 숨기려 합니다. 거의 본능적입니다. 왜일까요? 언제 거짓말을 하고 왜 상대를 속이려 하는지 살펴보세요.(잠시 멈추고 호흡을 바라보고 눈을 감습니다. 충분히 숙고해봅니다) 결점 때문에 거부당할까 봐 두려운 거지요. 사실 어려서 그렇게 거부당한 쓰라린 경험이 그렇게 만들지 않았나요? 실패를 모르고 실수가 부끄럽지 않던 영유아 시절, 모든 게 수용되던 황금시절을 지나 훈육의 시기를 거치면서 부끄러움과 수치감 자존감의 손상이 왔지요. 그래서 다시 상처받지 않으려고 결점과 실수를 은폐하기 시작하였지요.

이것이 거짓의 시작입니다. 상처에 대한 자기방어가 있는 한 거짓은 여러 형태로 우리의 삶을 지배하게 됩니다. 결점을 숨기고 상처를 덮어버리고 남의 기대에 부응하려고 분투하게 되고 자신은 불완전하고 무가치하다는 패배의식(노예의식)에 사로잡히지요. 실패를 두려워한 나머지 결점을 숨기기 급급하다면 발전은 없습니다. 영원히 노예적 상태에 머물고 말지요. 이를 역전시키려면 결점을 마주 바라보고 인정하고 깊이 살펴서 분명히 자각하고 결점을 따뜻하게 안아주면 결점은 녹아 더 이상 결점이 아니게 됩니다. 자신감과 자존감이 회복되고 당당하게 살기 시작합니다. 노예에서 주인이 되는 거지요. 치유와 성장이고 영적인 재탄생입니다.

9-7 조선 태조 이성계와 왕사인 무학 대사의 일화가 있습니다. 하루는 태조가 제안합니다.

"스승님, 오늘은 군신 관계를 떠나 편하게 서로에 대해 평소 하고 싶은 이야기를 나눕시다."

"그러시죠, 전하. 먼저 말씀하시지요."

그러자 이성계는 "당신은 도둑놈처럼 생겼소."

이 말에 껄껄 웃고 나서 무학 대사가 말합니다.

"임금님은 부처님처럼 생기셨습니다."

"아니, 아부하는 말 하지 않기로 하였잖소?"

이태조의 항변에 무학 대사는 또 다시 껄껄 웃으며 답합니다.

"하하, 도둑에게는 모두 도둑처럼 보이고 부처의 눈에는 모두 부처로 보인답니다."

마음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천국과 지옥이 갈립니다. 중생 의식은 옳고 그름을 따지고 좋아하고 싫어함이 극명합니다. 붓다 의식은 판단 분별을 내려놓고 평등하게 수용하는 대자대비가 기조입니다. 중생은 나와 남의 잘못을 크게 힐난하지만 부처는 만중생의 아픔을 껴안습니다. 예수가 고난의 대중과 고통을 함께 하고 대변하다가 십자가 사형을 당한 이유와 같습니다.

믿음도 올바른 믿음이 아닌 맹목적인 믿음은 사망으로 안내하곤 합니다. 집단 자살을 한 '인민사원' '오대양 사건' 등이 그 예이지요. 믿음의 배경에는 고통과 두려움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고통과 불안의 그늘이 있기에 행복과 편안한 삶에 대한 희구가 있지요. 그저 믿음이 탄생하지는 않습니다. 마음이 아프고 힘들고 외로운 이들이 구원의 희망을 약속하는 이단 종교에 솔깃하며 끌려갑니다. 기적같은 신비한 구원이 있을까 하여 기성 종교인들도 기웃거리게 되지요.

십수 년 전 어떤 사람이 육신 부활을 굳게 믿은 나머지 자신의 누이 시신을 6개월간 아파트에 보관하다가 이웃에 의해 고발당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마음을 잘못쓰면 종교마저 독약이 되는 예입니다. 곰팡이는 음습한 것을 좋아하고 바이러스는 은밀하게 증식되듯이 사이비 종교일수록 비밀결사처럼 행동하여 숨기는 게 많습니다.

9-8 거짓의 모습은 은밀하여 거짓인 줄도 모르고 진실인 것처럼 믿게 만듭니다. 거짓된 믿음은 코로나처럼 전파력이 강하여 주변을 선동합니다. 가족 친지 이웃으로 교세가 퍼져나가지요. 정작 위기 상황에서 불안에 대한 위로는 될지 몰라도 구원은 없습니다. 진정한 구원이란 고난 속에서 역경 속에서 배우는 영적 깨우침입니다. 애벌레는 나비가 되어야 하고 달걀은 닭이 되어야만 제대로 삽니다. 육신 부활을 믿는 맹목적 믿음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게 고통입니다. 에고를 내세우고 에고를 키우면 중생의 삶이요 에고를 내려놓고 에고를 부리면 부처의 삶입니다. 에고가 죽어서 참 자기로 거듭 태어나야만 진정한 부활이라 하겠지요. 2600년 전 태어난 그 분만이 부처님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부처라는 진실을 천명한 소식이 천상천하 유아독존이고 일체중생 실유불성입니다.

부처님 오심을 축하드리고 거룩한 가르침에 깊이 머리 숙입니다.

삶을 고통의 바다로 파악하고
고해에서 허우적거리는 모든 생명들을 위해
이 땅에 오신 그 분.
신들과 인간 세상에서
너 자신이 가장 존귀하다 하시네.

자신이 주인이 못되고
인정과 칭찬에 허기진
에고의 삶은 거짓된 삶이니
에고가 지어낸 온갖 신념들에 갇히지 않는
참 주인공으로 살라 하시네.

〈한별정신건강병원장〉

불기 2564(2020)년 부처님오신날

봉축 축하광고 접수 받습니다

귀의 삼보하옵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서로를 위로하는 봄이 왔습니다.
코로나로 세계가 움츠리고 있지만 따사로운 봄 바람이 우리를 반겨주듯이
혼란스러운 이 시간도 지나가고 나면 평화롭던 일상이 펼쳐질 것이라 믿습니다.

코로나19의 예방과 확산 방지를 위해 봉축행사가 윤사월로 미뤄졌습니다.
격려의 빛과 따뜻한 희망을 담아 현대불교신문사는 윤사월에 맞춰 봉축특집신문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비의 등을 밝힐 수 있도록 따뜻하고 고마운 동참 부탁드립니다.

'자비로운 마음으로 꽃 피는 세상' 봉축 표어처럼 부처님의 자비가 모두의 마음과
온 세상에 가득하게 꽃 피길 현대불교신문사 직원 모두가 발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지사지국 접수처

부산지사	010-5640-8883	이도경
대구지사	010-2813-8008	손문철
경남지사	010-3860-7008	성낙두
전남지사	010-2629-1508	양행선
전북지사	010-8642-7733	조동제
영주지국	010-9373-3778	박영애

현대불교

Tel. 02)2004-8216 Fax. 02)737-0696 E-mail. jabi2018@naver.com

접 수 매주 월(月)~수(水)요일 *수요일까지 입금된 기준으로 광고 게재
팩스 02)737-0696 또는 이메일 jabi2018@naver.com 접수

게 재 접수 후 다음 주 수요일 문 의 02)2004-8214

가 격 ◆가로 4㎝ : 4만원/회 ◆가로 9㎝ : 8만원/회

계 좌 ◆농협 : 053-01-269088 ◆국민 : 222-25-0005-381
◆예금주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생활 안내

1291호 | 15 | 전면광고

마음이 생기면 갖가지 법이 생기고 마음이 소멸하면 갖가지 법이 소멸한다.



부처님 말씀 읽기 - 《능가경》에서

범불교조계종 교육도량
학인모집 실전위주교육
종도모집 및 승려증 발급종단
범음범패 바라 나비무 회심곡
사 찰 행 사 전 문
천도재 49재 점안식 회심곡
010-9317-6686
「유튜브」에서 대명스님을 치세요!
대명 합장(부산)

무형문화재 학인모집
무형문화재 작법무 연수원
1. 천수바라, 오공양 작법무
2. 다게작법, 운심게 작법무
3. 염불, 사물, 사주 명리, 회심곡
• 특별반 / 개인 3개월 과정 모집 •
• 사찰등록 및 승려증 발급 •
사 찰 행 사 전 문
(사)대한문화전통불교조계종
총무 010-5511-7000

불공 저렴한 보시금으로 여법하게 집전하여 드립니다
49제,점안,살풀이,바라
이 인연으로 성불의 씨앗 되십시오
010-2168-2800
011-850-0176

허리병 고치는 법 받을분 배울분
저서 • 허리병 7일만에 고치는 요법 • 내 몸에 맞는 체조로 허리병 고친다
중풍예방. 디스크. 협착증. 불면증.
성인병 등 각종 질병
한번만 오시면 퇴치 가능
2대째 이어온 운동법 발명 특허 획득
네이버 [허리선생 혜경] 검색
50년 전통 상담
010-3829-7582

불 교 용 품
고 가 매 입 전 문
법당철거, 퇴불 정성을 다해 모셔드립니다. 소, 대불 탱화, 개금, 석불, 동불, 특수불 취급, 수미단 제작
이조불교재활용센타
010-9177-7842

금동아미타 삼존불 -양도-
(네이버검색)
부처골 지장선원
010-8585-4908

입종 동참안내
부처님의정원 · 사암
포교원 · 선원 · 불교문화원
종단 · 단체 · 연합회
입종 동참바랍니다
한국불교 종무청
010-5412-8040 법광

★책-검색★
①인생최고의 깨달음(참불교)
②천기소설 예언자(현존불)
③기도와 명상(최상수행법)
④천등산(신통해탈기도비법)
⑤출세의 기술(성공출세술)
⑥운타이밍재테크(평생부자)
네이버에 위 책이름 또는 작가 '태산선사' '손재찬' '손도사'등을 꼭 한번 검색 • 구입해 보세요!!

49재.천도재.점안의식대행
(바라,작법무,화청,살풀이,불교무용)
의식은 불교의 꽃, 40년 수행공덕으로
귀 사찰의 행사를 성취해 드리겠습니다.
문의 010-3263-6544
010-5270-8260

운명학 단기완성
데이터 기반 명리학과 특별한 비법 단기 강의, 스님께 확신이 됩니다
3개월 단기완성 수업료 : 5백만원 교육시간 : 주2회 (2시간씩)
문의 010-2480-5677 (아는소리 명리학당 총무)
한국불교태고종 지성선원(창원시 성산구)

사찰화재 보험
•목조건축물 OK!!•
전국 최다 사찰 가입
010-7344-1881

디자인 명리학 수강생모집
운명을 디자인한다
지금까지 이런강의는 없었다
보다 쉽고 정확하게 간명할 수 있는 신개념의 사주명리학
(기초부터 고급핵심이론까지 1년과정)
여기저기서 배워도 제대로 통변할수 없었는 분들 초보자, 스님, 무속인, 일반인 모두 환영
문의 운명디자인연구소 010-7328-0089

양 도 공 고
(등록된 종무법인임)
개인사암, 단독법인 가능함
종무업무를 국가기관에 등록받은 불교법인, 불교연합회, 불교종단 양도함
010-5412-8040 법광

• • •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충남 예산)
• • •
010-5576-2271

무료 灸 쑥뜸
코로나로 발생으로 수행정진 하시는 스님, 불자님 건강으로 인하여 수행정진이 어려운 사부대중님들께 쑥뜸 공양을 시행 하고저 합니다.
진행과정 : 약쑥은 강화산 7년숙성한것
❶ 간접구(大)1일2시간30 ❷ 20일간 진행.(외출불가) ❸ 쑥뜸,환약,부항.진행 방사관계로 1차10명이내로 제한.10회차까지 진행할예정. (불자님들은 식비만 부담)
장 소 : 동해 향운암 (바다가 조망되는곳)
Tel.010-2873-3446 www.향운암.kr E mail.ee1929@Daum.net

특수한
기도법 전수, 스님에 한합니다.
서울 동대문구 왕산로 274-1 3층 백선사 대주 합장
☎ 02)963-1148 / 011-741-0867

한국불교대학 大관음사
우학스님 상좌 및 예비수행승(행자)모집
이 시대 불교를 리더할 참신한 예비수행승(행자)을 모집합니다
1. 수행 위주의 교육
2. 수계후공부100%(대학, 강원, 기본선원) 교육비전액지원
3. 공부 마친 후 국내도량, 해외도량, 복지시설 등에서 활동 할 수 있음
4. 본인의 희망에 따라 대구큰절, 감포도량 중 선택하여 행자생활함
문의 : 054-753-8228, 010-8852-0075

관상(손금) 성철사주비법 전수
• 얼굴만 보면 모든 것을 알 수 있다
• 송사재판, 암, 질병, 간암, 묘터, 유산낙태, 조상영가, 교통사고, 이혼수, 직장 승진운
• 스님, 무속인, 일반인, 철학인
• 출장 개인지도, 관상학, 손금, 명리구성학, 육임학, 성명학
상담문의 010-4014-8822


영혼과 마음을 맑게 하는 신비의 침향 염주입니다. 침향
구입문의 : 010-2033-6636
❶ 108염주(8m) : 1벌 5만원 (10벌 이상 4만원) ❷ 108염주(10m) : 1벌 10만원 (10벌 이상 9만원)

향로용 유리알 **향운정주(수정모사)**



▣ 상품명 : 향운정주 (수정모사)
▣ 재 질 : 크리스탈 유리알
▣ 용 도 : 법당향로, 개인향로, 법당 조화용 화병, 크리스탈 꽃병 등등 다양한 곳에 반영구적으로 사용가능
▣ 규 격 : 1kg : 13 x 15 x 3.5cm (종이박스) / 5kg : 14 x 15.5 x 18.5cm (종이박스)
▣ 특별공급가격 : 1kg : 10,000원 (배송비 별도)
5kg 1BOX (1kg X 5ea) : 50,000원/세트 (배송비 포함)
▣ 구입처 : 전화 : 02-732-1520 , 팩스 : 02-737-0696
▣ 계 좌 : 농협 053-01-269062 예금주: (주)현대불교신문사
▣ 판매원 : 마하몰 (www.mahamall.co.kr) / 제조원 : ㈜바이넥스 / 원산지 : 대한민국

상품특성
● 향운정주(수정모사)는 맑고 투명한 작은 구슬로 향로에 사용하던 쌀 등 곡식이나 모래, 흙 등을 대체한 제품입니다.
● 모양과 빛이 아름다워 보는 이로 하여금 정결하고 정성스러운 마음을 갖게 합니다.
● 향운정주(수정모사)는 향이 잘 꽂아지고 부러지지 않으며, 물로 씻어 정갈하게 대를 물려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일정 온도에서 원적외선이 방출되어 인체에도 유익합니다.
● 조화용 화병이나 크리스탈 꽃병에 사용하시면 투명한 빛이 아름답게 보입니다.

※ 향로에 들어가는 향로용 유리알 수량 (스텐 향로 기준)

종류		크기			수량
향로(스텐)	特大	지름: 20cm	높이: 18.5cm	내부: 13cm	5kg
향로(스텐)	大	지름: 17.5cm	높이: 18.5cm	내부: 11.5cm	3kg
향로(스텐)	中	지름: 13.5cm	높이: 16cm	내부: 10cm	1.5kg
향로(스텐)	小	지름: 12cm	높이: 12.5cm	내부: 8.5cm	1kg

행운이 오는 "빨간 속옷"
마음과 운명을 바꾸는 치우천왕 빨간 속옷은 지금 당신에게 돈 들어오고, 운 들어오는 성공의 기초가 되는 기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치우천왕 빨간 속옷 2개 ⇨ 5만원
상담 010-4500-8234 다음카페 치우천왕 정담 검색
국민은행 324702-04-162923 예금주 : 배정민

명리·육효강좌
(연결카페http://cafe.naver.com/baikamsa 백암역리원)
영가반 ○ 초보에서 실천완성
명리·육효학 ○ 초보반 : 명리·육효 기초가 전혀없는 왕초보 ○ 실전반 : 명리·육효 기초 완성자
백암역리원 02)597-1101
오시는 곳 : 사당역 8, 9번출구 먹거리골목200M

수강생 모집(그림)

• 수업 : 산수화, 풍속화, 달마도, 동자승
• 장소 : 서울 인사동 미술 교육관 (종로오피스텔 4층 401호)
• 매주 수·목요일 주 2일 [월 8일]
• 수강료 : 월10만원
그림에 소질이 없어도 관심있는 분이라면 누구나 그릴 수 있습니다. 연락바랍니다.
청곡 이한동 화백 010-3747-8692

대방광불화엄경의 감춰진 비밀
초발심자가 문뜩 정각을 이루는 법!!
1. 화엄경의 교주는 비로자나 부처님이다.
2. '신위도원공덕모(信爲道元功德母)'라는 화엄경의 표현에서 믿음(信)은 법신부처님에 대한 믿음이다.
3. 믿음을 알고 발보리심한 보살은, 찰라지간에 성불한다. 그래서 '초발심시변정각'이라고 했다.
4. 선견약이라는 대약수는 보리심인데, 일체 질병과 독한 전염병으로부터 생명을 지켜준다.
5. 앞으로 한국의 화엄사상은 전세계 정신문명의 새로운 빛이 된다.
◉◉ 매주 목요일 오후 2시 강의 ◉◉
소책자를 원하시는 분은 전화 주십시오
문의 : 010-7131-7084


달마 선법으로 본 금강경 개정판!
이창우 역주 | 19,000원
46배판 | 양장 | 573쪽
현대불교신문사

깨달음은
공개된 부처를 비밀스레 찾은 신앙이 아니라
밝혀지지않은 자성불을 구현하여
제3의 생명으로 거듭남에 있음으로
남을 따르거나 흉내를 내어서는 안 된다
구입 문의 | 02-732-1520
입금 계좌 | 농협 053-01-269062 예금주 : 현대불교신문사

좋은인연 대출안내
☑ 대출이 더 필요하십니까?
☑ 불사자금이 부족하십니까?
☑ 사찰구입자금이 필요하십니까?
1980년 설립하여 전국의 많은 사찰과 인연을 맺고 있는 사찰전문 은행인 형산새마을금고와 의논해주시면 좋은 인연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사찰을 매매하실때 문의해 주세요~
부동산권리분석 · 매매관련세금 · 감정평가


형산새마을금고 본점 전경

• 대출기간 최장30년
• 설정비,감정료 면제
• 제주도까지 전국가능
• 타은행대출 전환가능
• 법인,단체사찰 가능
• 종단사찰 가능

365 친절상담
이사장 이강욱 ☎ 010-9842-4200
상 무 김상민 ☎ 010-7314-2522
형산새마을금고 본 점 054)282-9600 제1지점 054)282-9601 제2지점 054)282-9602

2020년 실전 사주 명리학 무료강의 제12기 수강생 모집
그동안 제1기에서 제11기까지 전국에서 1,000여분의 스님이 수료하셨습니다.
2020년에도 스님과 불심 깊은 불자들에게 무료로 명리학을 가르쳐 드리고자 합니다.
대 상
1) 현재 사찰을 운영하고 계시는 스님이나 총무보살
2) 불심 깊은 불자님들
◆수강신청방법 : 전화로 신청하시면 안내문을 보내드립니다.
① 교육기간 : 2020년 3월 10일(화) ~ 9월 1일(화)까지
② 수 강 료 : 약 6개월 교육 전기간 강의료 무료
③ 교육시간 : 매주 화요일 오후 1시 ~ 오후 4시 (3시간)
④ 책 자 : 초급에서 고급비법까지 총 8권 (책자대금 : 20만원 준비)
상담문의 및 책 자 신 청 성지관음회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오포로 345-4 성지빌딩
전화 031)768-8414~6, Fax 768-8413

알기쉬운 **구단구궁법**
특허 상표등록번호 40-0863341 저작권등록번호 C-2011-003967
서비스표등록번호 41-0213393



저작권자, 상표권자 법화 종헌(속명 정흥교)는 경주불국사, 대구동화사, 부산범어사 승가대학에서 수학하고 고려고찰 고산사, 석불사 등 주지직을 수행하고, 전통불교조계종정을 역임. 지금은「구단구궁법주」로서 자비의 방편학문인「구단구궁법」을 세상에 널리 펼쳐 많은 중생을 요익케 하고 있다.

누가? 몇일?	◆누구나 5일이면 실력자가 될 수 있습니다. ◆왕초보 저학력 아무상관 없습니다. ◆써먹지도 못하는 죽은 학문이 아니라 살아있는 이 시대의 필수과목입니다.
내용	◆손으로 짚어 5분안에 자금회전, 일의성패, 직업, 성격, 적성, 궁합, 택일, 이사방위 등을 주저없이 판단하고 기판(답안지 5분) 작성시에는 과거, 미래 십년도 한눈에 일년 열두달도 한눈에 알 수 있습니다. (날짜별, 시간별도 마찬가지이다.) ◆한문에 관계없이 초보자도 가능함 ◆귀신뽑아 조상천도 연계 ◆교수 이수 후 즉시 영업 활동 가능함 ◆사찰, 포교당, 철학관 상담소 운영에 획기적인 방법
수강료	◆스 님 – 오십만원(책값 별도) ◆일반인 – 일백만원(책값 별도) ◆우체국 : 601401-01-001843(예금주 : 자비실천불교연합회)

부산 ❷,❸호선 덕천역 2번 출구 20m
구단구궁법 교실 부산광역시 북구 백양대로 1198 (구포동 147-3) 3층 전층
cafe.daum.net/9dan9gung 전화 010-7415-0803

❖ 본 지면의 불자정보 광고는 광고주의 요청에 따라 게재한 것이므로, 광고지면 제공 이외에 광고주와의 거래 및 기타 사항에 대해서 일체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접 수 매주 월(月)~수(水)요일 *수요일까지 입금된 기준으로 광고 게재
팩스 02)737-0696 또는 이메일 jabi2018@naver.com 접수

게 재 접수 후 다음 주 수요일 문 의 02)2004-8214

가 격 ◆가로 5㎝: 5만원/회 ◆가로 7㎝: 7만원/회 ◆가로 10㎝: 10만원/회

계 좌 ◆농협 : 053-01-269088 ◆국민 : 222-25-0005-381
◆예금주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불자정보

1291호 | 16 | 전면광고

깨끗한 마음을 가지면 지혜가 생길 것이요,
마음에 지혜가 생기면 곧 깨달음이
생길 것이다.



부처님 말씀 읽기 - 《불반니원경》에서

광 진 불 사

◎ 위치 : 서울수도권
◎ 대지 : 200평
◎ 법당 : 30평
◎ 요사 : 30평
◎ 매가 : 17억5천
◎ 위치 : 충북 제천
◎ 부지 : 35,000평
◎ 사찰부지, 도로접
◎ 배산임수
◎ 매가 : 평당15,000원

*40년 세월 신용과 믿음으로 일합니다. 출장 상담 받습니다. *채권 채무상담 받습니다. *전국사찰,땅,포교당,다량보유 부전,공양주,처사 소개합니다. *신행상담,사찰순례,채권상담,종교법인 상담 받습니다.

광진불사 010-4586-4525

사 찰 안 내

- 위치 : 전남 나주 동강면
- 대지 230평(임대)
- 법당 20평. 산신각 10평
- 요사채 2동. 범종각
- 영산강 전망이 좋음
- 가액 : 3500만원

010-7637-1250

사찰(급)안내

- 위치 : 경주시 시래동. 정남향
- 대지 194평. 건평 43평
- 법당. 칠성. 산신. 용왕. 나반. 방친견실. 공양간. 샤워실. 화장실
- 외부시설 : 용왕연못. 탑. 남여화장실 등
- 시설일체. 최고입지요건 갖춘 암자
- 가액 : 2억 3천만원(급양도)
- 사전 전화요망

010-5427-3699

사 찰 안 내

- 위치: 북한산(삼각산) 자락에 위치한 절임
- 건물 : 법당, 산신각 ● 평수 : 470평
- 가액 : 6억(절충가능) ● 조건: 양도시 모든 기물포함(불상,불화등기타) ● 주변 주차시설 양호함 ● 도시가스, 상수도임
- 대중교통 편리함(도보로 5분 거리임)
- 위치는 서울시 성북구 정릉동 쪽

010-3128-2399

사찰안내

- 위치 : 부산 사하구
- 전망 좋은 사찰
- 대지 : 350평
- 대웅전, 삼성각, 요사채 2동(1동은 세집 월세받음)
- 많은 주차, 남향집, 도시가스
- 가액 : 11억 5천만원

010-3269-1023

사 찰 안 내

- 위치 : 울산광역시 울주군
- 대지 : 335평
- 대웅전.삼존불.목불.목후불탱화.목조단청12평. 요사채.방3개.목조단청19평. 공양간.방1개.7평목조단청. 화장실 남.여(목조단청)
- 상담 후 결정

010-3206-6622

좋 은 사 찰 안 내

- 위치 : 서울도심
- 대지 200평, 법당 50평, 요사채 100평, 별채 50평
- 가액 : 25억 (대출가능)
- 신도다수
- 건강문제로 양도코저 함

02-992-0032

사 찰 안 내

- 위치 : 부산시내 대단지 아파트 뒤 산속. 차량 진입 불가
- 3만평 중 5천평 지분 등기가능
- 가액 : 4억 6천(조정 가능)
- 무허가 건물 ➡ 종무소.삼성각. 용왕전. 다실. 창고 각각 한동
- 1층 화장실(해우소)/2층 공양간 /3층 법당(큰법당)

011-9394-8511

사 찰 안 내

- 위치: 경기포천
- 대지 952평, 법당 목조단청 30평, 산신각목조단청 10평, 요사채60평, 주방30평, 주차장300평
- 위치및 접근성과 조망권좋음
- 가액 : 25억

010-5129-5275

포 교 원 안 내

- 위치 : 대구시 동구 지하철 역세권 대도로접3층
- 약 50평, 도시가스, 옥상사용, 주변주차시설양호
- 보증금 500만, 월 45만
- 시설비 1300

010-7337-5956

사 찰 안 내

- 위치 : 경기도 양평군 양평읍 용문산 자연휴양림 초입 소재(양평역 5분거리)
- 대지 : 300평 현대식 건물
- 건물 : 대웅전 30평 1동 / 카페, 공양간 30평 / 요사채 23평 2층 건물 1동 종무소, 객방 13평 1동
- 가액 : 10억(답사 후 인연되는 분 절충)
- 법회 즉시 가능합니다.

010-4813-2381

암자 안내

- 위치 : 영덕군 창수면 신리리 산4-1
- 법당, 산신각, 요사채 각 1동.
- 가액 : 3천 8백만원. (원매자 현장방문후 조정가)
- 문중땅 도지세1년 20만원.

010-5714-7872

전원주택&토굴 안내

- 위치 : 충북 보은군 내북면 성암가고로 36-32
- 총1,024평 (계획관리지구)
- 대지 285평, 건평 30평, 20평 강의실 10평
- 지하수150m 약수물, CCTV, 화목,기름보일러 (전기판넬), 탁트인 들판, 뒤에는 산, 청정지역 명당터임
- 기운 좋은 토굴, 접근성좋은 도로, 주차시설 넓음
- 가액 : 답사 후 결정

010-5458-2258

절터 안내

- 위치 : 경북 김천 구성면
- 용호리 835번지 / 836번지 836번지 : 약 300평, 835번지 : 임야 약 130평, 총 430평
- 암자 지어서 수행하실 분 (깨끗한 약수샘물 나옴)
- 사정상 급양도 3,700만원

010-7628-9997

사찰 안내

- 위치 : 전남 해남군 소재
- 대지 : 350평
- 건물 : 약 80평 (법당, 요사채)
- 가액 : 답사후 결정

010-7584-8338
010-5718-0073

사찰 안내

- 위치 : 부산 연제구
- 대지 : 123평, 건평 : 60평
- 법당외, 삼성각, 용왕, 호신불당, 마당6층 옥탑, 차고, 자연수(사철)
- 상수도, 뒤는산, 전면 좌우 주택지
- 가액 : 3억 5천

010-2720-1580

포 교 원 안 내

- 위치 : 서울시 동작구 사당동 남성역 5분거리
- 관악산, 까치산 청정도량
- 재래시장 인근, 이동인구 많음 4층건물 중 2층 30평
- 보증금 2천만원, 월 120만원
- 시설 권리금 없음

010-3657-9590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북 영주시 지역
- 대지 : 120평, 전 390평
- 법당 : 목조 13평
- 요사 : 약 26평
- 종무소 : 6평, 산신각
- 가액 : 1억 6천 5백만원 (조정가능)

010-9231-6825

사 찰 안 내

- 위치 : 경기도 양평군 강상면 병산리 878-50번지 ● 대웅사(종교부지 1700평) : 백병길 171 ● 병산리 산168-2번지 4,130평 (총 5,830평) ● 건물 : 대웅전 1동. 요사채(1,2층)1동, 기도방1동, 승방 1동 ● 입주조건 : 매수 또는 임대에서 매수전환가능 ● 주인직접 : 현장답사 후 협의(조건 및 금액절충)

010-4225-0012

인천사찰안내

- 위치 : 인천시 남동구 만수동(만수소방소 건너편) ● 평수 : 단독건물, 지하1층, 지상3층, 건평 110여평 ● 건물 : 지하1층 : 창고형, 1층 : 공양간(방3개, 화장실), 2층 : 방3, 화장실, 3층 : 법당, 3존불, 지장불상, 칠성, 산신 ● 가액 : 3억3천5백(사정상 급양도함, 사찰연력 : 40여년) ● 답사하실분만 사전전화 요망

010-8360-8259

사 찰 안 내

- 위치 : 경기도 양평군 강하면
- 부지 : 1648평(대지 927평)
- 대웅전(25평). 지장전(15평). 독성각(5평). 목조건물
- 요사채 : 조립식 건물 25평. 황토방 7평. 5평
- 납골당 5000개 가능
- 가액 : 12억 5천(가격절충가능)

010-5421-1536

별장같은 토굴 임대

- 위치 : 제주시(판넬주택)
- 임야 약1천2백평중 대지132평
- 법당(26평), 요사채(36평), 야외법당(약사여래불), 시설일체완료 (바랑만 메고 오시면 됨)
- 보증금 5천 / 월세 50만원

010-4846-3968

사 찰 안 내

- 위치: 경북 영천 청통 부근 산을끼고 아주 조용한 사찰 단청, 주련 현판
- 총평수465평, 현대식건물2동
- 1층 요사 30평, 14평
- 2층 30평 법당
- 주차장 확보
- 가액 : 3억 9천만원

010-5804-5100

"살아숨쉬는 생명의 돌"
희담석 방석(고급형) 수량 한정판매~!!!

~~정가 198,000원~~ ➡ 할인판매가 120,000원



- 색상 : 살구색
- 크기 : 450mm X 450mm
※베개겸용 휴대용케이스 증정

희담 가루방석은 가만히 앉아 있기만 하여도 원기와 활력을 증진시키는 효과가 있으므로, 평상시 꾸준한 운동과 더불어 희담 가루방석을 함께 사용하시면 기대 이상의 효과를 경험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사용방법
- 의자나 자동차 등에 일반 방석으로 사용하기만 하여도 원기와 활력을 높여 줍니다.
- 수면시 베개 대용으로 쓰시면 빠른 피로 회복 및 숙면을 취할 수 있습니다.
- 머리나 목 부위에 응용하면 머리가 맑아지며, 기억력 증진에 효과가 있습니다.

농협 053-01-269062 예금주 : (주)현대불교신문사
판매문의 : 1688-9099 (02-732-1520)
불교문화상품 전문몰 마하몰 (http://www.mahamall.co.kr)

◑ 입 종 안 내 ◐

입종 및 사찰 등록(제출서류)
① 주민등록등본 1통, 호적등본 1통
② 승적원부(본종 소정양식 : 총무부 비치)
③ 승적증빙서류(타 종단 승려는 승려증 사본)
④ 사찰 전경, 내 • 외부 사진 각 1부
⑤ 반 명함 사진 5매(대가사를 수한 사진)

참고사항
① 각종 구비서류는 최근 3개월 내 발행된 것으로 제출
② 제출된 서류는 반환치 않음

불교조계종대학림 02)511-1080

불교조계종(총무원) Tel 02)511-2026~7 | Fax 02)511-2028



생활 속의 불법수행
대행 스님과의 신행문답

주인공이란 '참나'라 해도 좋고 '한 물건'이라 해도 좋고, '본래 면목'이라 해도 좋습니다. 일체를 다 싸잡아서 붙인 이름입니다.

현대불교신문(여시아문 刊) | 신국판 | 무선 | 흑백 | 480쪽 | 15,500원



삶은 고가 아니다
대행 스님 법어

세상 모든 생명에게 바치는 저자의 생활 속 불법 이야기를 담아냈다. 흔히 어렵다고 여겨지는 불교를 친숙하게 받아들이도록 인도한다.

(재)한마음선원 출판부 | 148×210mm | 287쪽 | 10,000원

구입문의 — 02)732-1520 • 3만원 미만 택배비 별도 • 농협 053-01-269062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불자의 긍지 | 신행의 기쁨
현대불교
전국 지사 안내

구독신청 기사제보 광고게재

항상 여러분들에게 가까이 다가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사명	지사장	연락처
대구지사	손문철	M 010-2813-8008
부산지사	이도경	M 010-5640-8883
광주전남지사	양행선	M 010-2629-1508
전북지사	조동제	M 010-8642-7733
경남지사	성낙두	M 010-3860-7008
영주지국	박영애	M 010-9373-3778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에 앞장서 온 현대불교

놀라운생명 에너지를 가진
희담석 염주 · 합장주 · 지키미

희담석이란? 희담석(稀潭石 / Batu Hitam)은 대규모의 화산 폭발로 인해 지구 깊숙이 묻혀 있던 무기물들이 용암과 함께 분출된 후 오랜 세월을 거치면서 단단해진 화산석(현무암)의 한 종류입니다. 동남아 오지의 현지 주민들은 이 돌을 옛부터 치료용으로 사용 해왔는데, 그 중에서도 성분 분석과 원적외선 파동 검사를 통해 인체에 생명력을 불어넣는 유익한 에너지를 가진 것만을 엄선하여 실용화 한 것이 바로 【희담석】입니다. 희담석은 【생명의 돌】이라 부를 만큼 생명체에게 유익하며, 방출되는 원적외선의 질과 양은 타 제품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뛰어납니다. 따라서 세포의 활성화를 통한 최고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희담석 합장주(10mm) 판매가 : 10,000원
- 남자와 여성분들의 손목에 맞추어져 있음.
- 재질 : ABS, 희담석 50%
  ▪ 팔목이 늘 뻐근한 분 ▪ 피로가 누적된 불자
  ▪ 온종일 책상에 앉아 있는 운동이 부족한 불자들의 수행과 업무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희담석 지키미 판매가 : 20,000원
희담석 지키미는 놀라운 생명 에너지를 가진 희담 원석을 휴대하기 간편하도록 제작한 제품입니다.
평상시 주머니에 넣어 다니거나, 틈나는 대로 특정한 통증 부위에 사용하시면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희담석108염주(8mm) 판매가 : 39,600원 ➡ 35,000원
방사능력이 탁월한 희담석의 생명에너지로 건강과 수행증진을!!
구성 : 희담석 108염주
크기 : 직경 8mm "희담석 8mm염주는 차걸이용으로도 아주 좋습니다."

농협 053-01-269062 예금주 : (주)현대불교신문사
불교문화상품 전문몰 마하몰 (http://www.mahamall.co.kr)
구매전화 1688-9099 / (02)732-1520

❖ 본 지면의 불자정보 광고는 광고주의 요청에 따라 게재한 것이므로, 광고지면 제공 이외에 광고주와의 거래 및 기타 사항에 대해서 일체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독자들의 질문을 받습니다. 불법을 수행하시는 중에 의문이 생기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서신이나 팩스 또는 인터넷으로 보내 주십시오. 조계종 한마음선원 대행 스님의 법문 중에서 발췌하여 답변드립니다. 삶의 고뇌에 대해서도 상담해 드립니다. 〈글책임 : 편집자〉 ●보낼곳 : 우 03131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6길 36, 월드오피스텔 606호 현대불교신문사 '길을 묻는 이에게' 담당자 앞 ●인터넷:www.hanmaum.org 또는 한마음 선원 ●FAX : (031)470-3116



대행 스님

제 1291 호 현대불교
2020년 4월 29일(4월 7일) 수요일 / 불기 2564년

남의 말을 들어서 끄달리지 말고 자기 중심에 의해서 살아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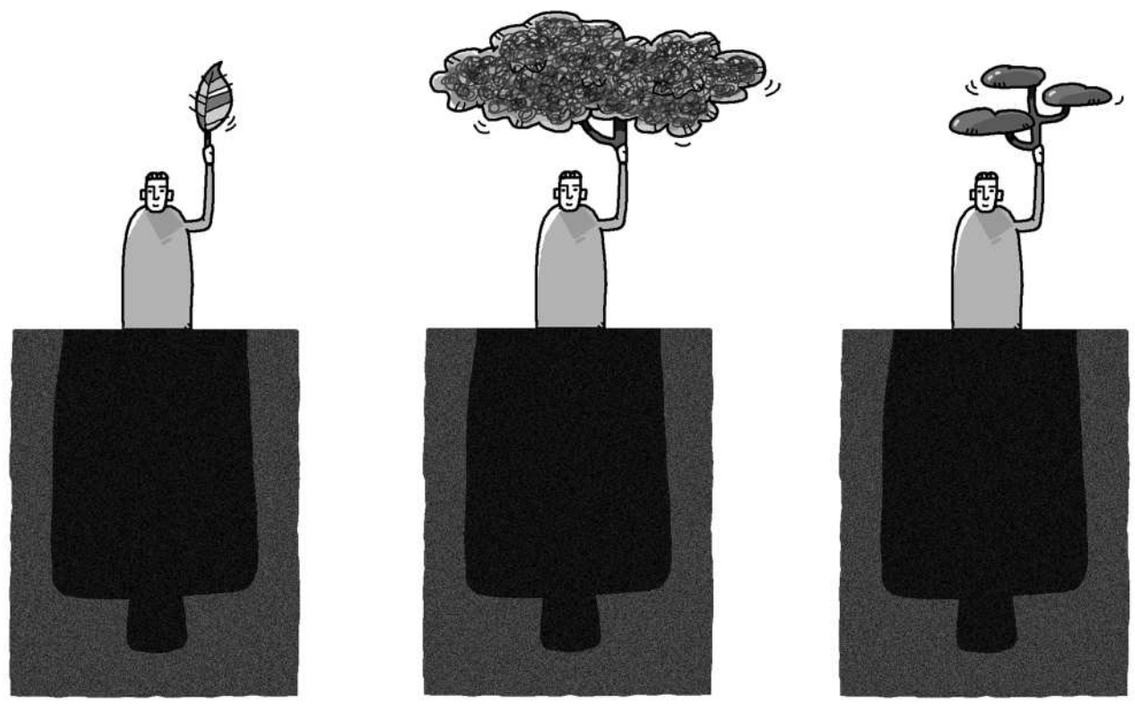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하하하…. 괜히 웃음이 납니다. 올라오면서 내가 지금 여기를 왜 한 걸음 한 걸음 딛고 올라가는지 또 내려가는지 그것도 모르면서 찹찹히 그냥 올라왔습니다. '난 허구장창 말할 건덕지가 하나도 없는데 뭐 할 말이 있어서 한 걸음 한 걸음 이렇게 걷고 있나.' 하면서 올라오는데 이런 생각이 났습니다.

남녀를 막론해 놓고 숱한 사람들의 아늑하고 따뜻한 일생이 있는가 하면 아주 춥고 몰아치는 추운 바람에 쌩쌩하게 살을 에어 가는 일생이 있다고요. 따뜻하게만 일생을 보낸 사람들은 울 안에서 핀 꽃과 같아서 험악한 데 내놓으면 어쩔 줄을 모르고 얼어 죽기 똑 참하고, 바람에 쓸려서 뿌리까지 파여서 아주 죽기가 일쑤죠. 그러나 험하게 내버려 던져진 그 어떠한 꽃송이라든가 풀잎은 절대로 죽지 않습니다. 어디다가 세워 놔도 그건 죽는다 안 죽는다 또는 쓰러진다 그런 것도 없습니다, 버려졌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무뜩 생각난 옛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지금 현실에도 우리는 그렇게 가고, 한 걸음에 한 일생이라면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딛고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린애로 태어날 때는 바로 준비의 한 일생이요, 어른이 됐다면 애가 될 것을 생각하면서 한 준비를 합니다. 그런 거와 같이 제가 그때가 한 여남은 살 될 때였습니다. 이거는 어느 두 남녀에게서 들은 소리입니다.

그 두 남녀가 부부로 만나기 이전에 남자는 삼 남매였는데, 예전엔 염병이라 그랬습니다. 그런 불치병에 부모님 두 분이 다 돌아가시고서 삼 남매만 고스란히 남았답니다. 그랬는데 막내인 자기는 두 살이고, 누이는 다섯 살이고, 형은 아홉 살이었답니다. 그런데 동네에서 볼 때는 도저히 커 나갈 수가 없으니까 두 살 먹은 거를 어느 어린애 못 낳는 집에 양자로 줬답니다. 참, 일생이라는 것이 그런 일생이 있는가 하면 저런 일생이 있고 그렇죠. 그런데 그 두 살 먹은 거는 자기의 친어머니 아버지인 줄 알고서, 그러니까 그때서부터는 형이 있는지 누이가 있는지도 모르고 자기는 자랐답니다.

그런데 그 집으로 가고부터 네 살이 되자 그 집에서도 어린애를 낳았답니다. 어린애를 낳게 되니까 호적에다가 맏이로 올릴 수도 없고 그러니까, 내 자식이 아니라고 하고 법적으로 해 가지고선 떼어 내고 자기가 낳은 자식을 올렸답니다. 그거는 나중에 안 일이지만…. 그러고선 대하는 게 좋지 않아서 '왜 엄마 아빠가 저러나?' 하고선 이상스럽게만 생각하고, 또 남은 공부를 하는데 자기는 공부를 가르치지 않고 나무를 해 오라고 하고 그래도 엄마 아빤 줄 알고 살다가 일곱 살이 되었는데 어느 스님이 오셨더랍니다. 그러니까 이 스님을 쫓아가라고 하더랍니다. 그래서 스님을 쫓아서 가면서도 살아가면서 이상스러웠던 그런 생각, 슬픈 생각, 또 스님을 쫓아가라고 하는 그 이유는 뭐며, 그 스님하고 한참 얘기하더니 그렇게 한 거는 또 뭐며, 그 이유를 몰라서 궁금하면서도 어린 마음에도 부모 떠나는 것이 너무나 슬펐답니다.

그래서 절에 가서 스님 심부름도 해 주고 이렇게 저렇게 지내다 보니까 열 몇 살이 돼서 열아홉 살이 되기까지 나무를 하고 그러는데 참 착한 스님을 만나서 공부도 가르쳐 주고 그래서 자기의 눈도 뜨게 됐고 좀 알았답니다. 그랬는데 열아홉 살이 되고 보니까 그 스님께서 자기의 그 모든 것을 얘기를 쫙 해 주면서 너는 성이 아무개며 너는 그렇게 그렇게 돼서 이렇게 이렇게 됐다는 그 사실을 다 얘길 해 주더랍니다. 그래서 자기는 조선 말기 때 군인으로 입대를 했답니다. 군인으로 입대를 해서 군인으로 살면서도 한시도 떠나지 않았던 것은 '버려진 한 풀잎이 뿌리를 내리고, 들풀이 되지 않고 한 떨기가 돼서 오고 가는 행인들에게 그래도 입맛이라도 적셔 주지 않을까. 배고픈 사람들의 입맛이라도 적셔 주게 한 떨기가 돼서 뿌리를 깊이 박자.' 하는 생각이었답니다.

그래서 그것도 부처님의 덕이라고 하고 그 스님의 덕이라고 하고, 그 스님을 아버지 삼아 그 마음이 참 깊이깊이 사무쳤답니다. 그래서 사무친 그 마음을 가지고 군대에 입대해서 피나는 노력으로 무예를 배우고 그렇게 해서 장군이라는 이름을 땄답니다. 그 장군이라는 이름을 땄을 때 스물여덟, 아홉이 됐답니다. 그러자 어느 날 갑자기 벼락이 내리듯 한 것은 뭐냐 하면 조선이 망하게 되고, 그러니까 그때가 서른세 살엔가 서른네 살엔가, 그거는 잊어버렸습니다. 서른두 살이라던가? 하여튼 그때에 조선병이 다 흩어지고 말았답니다.

그러니 그렇게 흩어지고 난 뒤에 나와서 근근득생으로 그저 아무거라도 해서 좀 뿌리를 박자고 무지하게 혼자 애를 썼답니다. 그 스님의 말씀을 항상 잊지 않고 그걸 따르면서 수년간을 그렇게 하다 보니까 서른 몇 살이 됐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조그마한 물감 공장을 갖게 됐고 과수원도 조금 갖게 됐답니다. 그래서 장가를 들었는데, 나이가 어렸답니다. 자기보다도 열일곱 살이나 열여섯 살이나 이렇게 아래를 아내로 맞이했답니다.

그런데 그 후부터 이 가슴에 맺힌 것이 뭐냐 하면, 그렇게 무예를 배우고 했는데 일본 사람들 틈에서 살려니까 구역질 나는 일이 너무 많고 치욕스러운 일들을 많이 봤고 겪어 왔기 때문에 때로는 참을 수 없는 문제들이 너무 많아서 그냥 젊은 혈기에 그, 무예를 배웠겠다 그러니까 그저 여기 가서 일을 저지르고, 아마 우리 조선 사람으로서는 환희심이 나는 일이었지만 일본 사람들한테는 그건 악조건이었지요. 그래서 힘드는 줄도 모르고 가는 길에다가 밤새도록 구덩이를 파고선 그냥 똥을 퍼다 부어서 말들이 전부 그리로 빠지게끔 만드는가 하면 밤중에 오고 가는 사이 없이 그냥 훌 두들기곤 없애 버리고 그렇게 하다가 이것이 탄로가 나니까 쫓겨 다니느라 볼일을 못 봤답니다. 그러니까 여기 가도 쫓기고 저기 가도 쫓기고, 여기에서 일 저지르고 저기에서 일 저지르고 이러다 보니까 몇 달에 한 번 밤중에나 가만히 와서 자기 마누라를 한번 보고는 밤중에 도로 나가고 나가고 이렇게 해서 육 남매를 낳았답니다.

그런데 육 남매 낳기 이전 얘기가 문제입니다. 그렇게 되니깐 남편을 잡기 위해서 부인을 데려다가 엉덩이나 뭐, 넓적다리 이런 데를 담금질을 해서 고문을 해도 절대로 그 부인은…, 부인 자체가 모르기도 하거니와 바느질품을 팔아서 살면서 여자는 벙어리가 되고 참아야 하고 또 귀도 먹어야 하고 남의 말도 듣지 말아야 하고 보는 것도 없이 살아야 한다는 미덕이 아주 뿌리가 박힌 그러한 분이었습니다. 그리고 학문도 높았고 또 백 씨네 외딸이었고 참으로 얌전하고 갖춘 분이었죠.

그런데 예전에는 안부모가 돌아가시면 여자가 염을 해서 다 하고 또 바깥 분이 돌아가시면 아들들이 염을 해서 다 하기로 했기 때문에 양반의 집에서는 다 그거를 갖추어서 배웠더랍니다. 그렇게 미덕이 있는 그 여인이 한두 번도 아니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한 엉덩이가 안으로 곪아서 이리도 터지고 저리도 터지니까 시운을 피우면서 그것을 아물려 가면서 해도 또 절로 터지고, 그러니까 젊은 날을 그냥 그렇게 죽었다 살았다 죽었다 살았다 하는 죽음을 몇 번을 겪으면서 그렇게 살아왔답니다.

그랬는데 그것이 말이니깐 그렇지 그 일생이라는 것은 말로 다 할 수 없으며, 일제 시대 때는 다꽝 하나를 옆구리에 끼고서 그걸로다 연명을 하고, 남자의 일생도 여자의 일생도 그렇게 하고 쫓기고 그랬는데 그렇게 되니까 일본 사람들한테 다 몰수를 당하고 참 가난하기가 짝이 없었겠죠. 그러한 두 분을 나는 여남은 살 될 때에 만났습니다. 만나서 내가 우니까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장장 네 시간을 그 얘길 했습니다.

빼먹은 얘기도 많고 그렇지만 그 얘길 쭈욱 하면서, 사람이라는 것은 버려진 막풀이라도 그 뿌리만 깊이 박는다면 바로 한 떨기의, 입을 축여 줄 수 있는 떨기가 될 수 있다. 아까 내가 얘기했듯, 곱게 자란 사람은 금방 나가면 얼어 죽기 쉽고, 또 바람에 쓸려서 뿌리도 파지고 그러지만, 버려진 그 풀은 너무도 뿌리를 깊이 박기 때문에 돌로 아무리 눌러도 새싹은 다시 나고 다시 난다. 그러면서도 올바로 갈 수 있는 길은 딱 양단간이 있다. 그렇게 버려진 풀잎도 한 떨기가 돼서 오고 가는 행인들의 양식이 될 수 있고, 입을 축여 줄 수 있고 목마른 사람의 입을 축여 줄 수 있지만, 그

☞ 18면으로 계속



마음이 없는 물질은 공덕이 될 수 없습니다

☞ 17면에서 계속

렇게 되지 못하는 사람들은 막풀이 돼서 아주 남을 해치는 수가 많다. 또 한 가지는, 곱게 따뜻하게 살던 사람들은 그렇게 남을 위하는 생각도 없고 또 그렇게 견디어 보질 않았기 때문에 볕에만 나가면 그냥 스러져 버리는 이런 형국의 일생이니까 그것을 참고로 들어라.

"부모다 자식이다 할 것도 없다. 혼자 왔다가 혼자 옷을 벗고 바로 다른 팀으로 또 옮긴다. 다른 팀으로 옮겨서 모습을 바꿔서 또 같이 모여서 산다. 그러니까 절대로 울지 말라. 값싼 눈물을 흘리지 말고, 값비싼 눈물 한 방울이라는 거는 온갖 눈물을 다 넣을 수 있는 그릇이 될 수 있지만 만약에 값싼 눈물이라면 그것은 땅바닥에 떨어지기 전에 말라 버리고 만다." 하는 말을 했거든. 그래서 나는 울다가 울음을 뚝 그치고 그랬는데, 바로 그것이 지금까지도 머리에 연연히 스쳐 갑니다. 내가 이날까지 용기를 얻고 이렇게 나간 것도 바로 그 덕입니다. 나는 쓰러지면 그 노래를 불렀죠. 만날 얘기하던 그 노래 말입니다. 몇몇 해던가. 연자방아가 돌고 돌아서, 물방아가 돌고 돌아서 끊임없이 한강이 흐르듯 말입니다. 얼마나 울었던가, 끊임없는 그 길을…. 그러나 아버지의 그 말씀을 항상 생각하면서 쓰러진 그 몸을 다시 일으켰노라 하는 것 말입니다. 어떤 아버지든지 내 아버지 아닌 것이 없거든.

이거는 옛날 얘깁니다. 그런데 그것도 그렇거니와 그 여인의 일생도, 어린애를 낳아서 남편과 같이 길러도 뭐하다는데 이건 남편도 쫓겨 다니고, 그것도 그대로 두는 것만도 아냐. 붙잡아다 고문을 하고 이렇게 하면서 한 엉덩이를 질질 끌면서, 이리 곪아 터지고 저리 곪아 터지니 그거는 정말이지 있을 수 없는 한 여인의 일생이었단 말입니다.

그러니 누구나가 다 생각할 때 작고 크고 그것뿐이지 여자나 남자나 그렇게 살을 에어 가는 일생이 있는가 하면 아주 따뜻한 일생이 있습니다. 이러한 일생들에 같이 끼어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면서 '내가 만약에 그 그릇을 비우지 않았더라면 여러분의 눈물 한 방울 한 방울을 담을 그릇이 없었을 텐데, 그 눈물 한 방울의 창고로서 그릇을 비웠기 때문에 여러분의 눈물을 다 담아도 두드러지지 않고 그 눈물을 다 퍼내도 줄지 않는 바로 그 그릇을 얻지 않았는가. 그 그릇도 세울 게 없는 것을….' 하면서 중얼중얼하고 돌아갑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그 눈물 한 방울 한 방울을 저한테 보여 주지 않으셨더라면 저는 그릇을 비우지 못했을 겁니다. 여러분의 그 아픔을 나한테 보여 주지 않았더라면 나는 그렇게 아픈 줄 몰랐을 겁니다. 내가 아파 보지 않았더라면, 참다운 눈물을 흘려 보지 않았더라면 그 눈물, 그 참다운 눈물, 참눈물을 몰랐을 것이며 또는 그 쓰라림을 아마도 세세히 몰랐을 겁니다. 여러분이 일생을 살아가면서 남의 말만 듣고 이렇게 그냥 보고 넘기고 듣고 넘기고 하는 거하고는 다릅니다. 실천으로 옮겨서 그렇게 아주 살을 에어 가듯 다져 가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떼어 놓는 실천은 아마 더없는 자기의 교훈이 될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문제가 나에게 용기를 얻게 했고, 또 한 가지는 '아하, 그렇게 이어 가는 그 사람네들의 아픔을 같이하고 그 배고픔을 같이할 수 있다면 이 몸뚱이가 보이지 않고 가루가 된들 어찌 같이 안 하리.' 하고서 거기에서부터 용기를 얻었고, 자면서도 잠이 안 오고 꿈을 꾸느라고 잠자는 거와 마찬가지로 밤을 새웠고, 그래서 가다 보면 쓰러지기도 하고 어느 때가 됐는지도 모르게 또 한참을 지나 일어나기도 하고…. 우리의 인생 한 걸음 한 걸음이 그렇게 참답게 나갈 수도 있는가 하면 마구 나갈 수도 있는 거거든, 아무렇게나 그냥.

그래서 그 참다운 내 주장심이 아주 사람 죽이는 무서운 살인자가 될 수 있는 칼이 될 수도 있는가 하면, 그 무서운 칼이 아주 연하고 잘 드는 칼이 돼서 여러분에게 이익을 줄 수 있는 칼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점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중심으로서 중력을 잃지 말고, 남의 말을 들어서 거기에 끄달리지 말고, 내 중심에 의해서 살아라 이거야. 언제나 내 중심, 그 한마음 한 점 속에 일체 만물만생이 다 거기에 있고 그 일생이 거기에 다 들어 있어요. 그리고 또 부처님이 돼 봐야 보살의 행을 할 수 있지 부처님이 되지 않고야 어떻게 보살행을 하며 법신의 행을 하며 모든, 즉 말하자면 자비의 행을 할 수 있겠습니까?

만약에 이거는 업이고, "네가 한 것이 이렇게 업이 많으니까." 이렇게 따진다면 보살행을 못 합니다. 이것도 보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모든 것을 줄 수만 있는 거, 그게 보살행이며, 줄 수 있을 때에 업이 많아서 주지 못한다는 그것에도 걸리지 마시란 얘깁니다. 업보가 많으니까 너는 이렇게 해야 한다는 그런 것에도 걸리지 말고, 업에도 걸리지 말고, 그 법에도 걸리지 말고 아무것에도, 아무것에도 걸리지 말아야 합니다.

세상에 어느 누구가 인간으로 태어나서, 알면 죄를 짓겠습니까? 또 인간으로 태어나서 어느 누구가 한 발짝 한 발짝 떼어 놓는 대로 본래부터 아는 사람이 어디 있으며, 본래부터 잘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모든 게 그게 업이라면 부처가 어디서 났겠습니까?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쓰라림을 겪어 오면서, 또 잘못해 가면서, 잘못한 거를 회개를 해 가면서 살아가는 도중에 부처가 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이 나쁘다 좋다 하고 '당신은 업이 많으니까 이렇게 이렇게 해야겠다' 하는데 그것에도 걸리지 마시고, 내 성심껏 내 가정에 어떠한 지탄이 없이, 여유가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고 큰 폐단이 없다면 내 성의껏 시주도 하고…. 내 성의껏 하지 내 가정에 폐단을 가지면서까지 시주를 하는 것은 그건 모든 게 걸리는 데서 나오는 것입니다. 모두 우리가 정성이 지극하면, 지성이면 감천이야. 우리의 그 따뜻한 마음 하나로써 물질이 왔다 갔다 하는 거지, 마음이 없는 물질은 공덕이 될 수 없다는 그 말을 수차에, 설법이라기보다도 아마 아픔에서 수차에 걸쳐서 말을 했을 겁니다.

여러분의 뜻을 알기 위해서 어떤 때는 이렇게 말한 적도 있죠, 어느 사람한테. 보니까 공부도 할 만합니다. "삼십만 원을 시주하시오." 그러니까 삼십만 원을 가져오더라고. 삼십만 원을 가져오니까 삼천만 원을 하라고 그랬습니다. '그거 왜 그랬을까?' 하는 음미를 한번 해 봤으면 좋으련만 거기에 걸려 버린다 이거야, 누구든지. '삼' 하면, 즉 말하자면 삼심이 한데 합쳐서 일심이 되는 게 아닙니까? 일심도 바로 놓는다면 백이 됩니다. 또 천이 됩니다. 이것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데서 나오는 것입니다.

옛날에 날더러 내 길잡이가 이렇게 말을 했죠. 너는 삼천만 원을, 아니 삼억만 원을 해도 그것을 다 못 갚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것이 돈인 줄만 알았습니다. 그랬는데 그 마음 한 점에, 삼억이라도 그 마음을 당해 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걸 알았습니다. 여러분이 그 마음으로, 진실한 마음으로 죽음과 삶을 버리는 데서 내가 시주를 삼억을 했든지 삼십억을 했든지, 십억을 했든지 천만 원을 했든지 몇천만 원을 했든지 또 단 십만 원을 했든지 걸림 없이 무주상으로 했다면 그게 공덕으로 돌아갑니다.

그러한 일생은 그분들뿐만 아니라 여기 앉아 있는 분들도 예전에 그렇게 했을는지도 모르고, 그 길을 걸었을는지도 모르고, 지금도 그렇게 걷고 있는 분들이 있는지도 모릅니다. 또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는 그런 모든 분들을 볼 때…. 나는 스스로서 걸치는 거 하나 없이 남에게 주는 공부를 하기 위해서 여기 절을 짓고도 그것을 절대로 놓치지 않았고, 나는 그것을 붙드는 것도 없이 어디든지 가리지 않고 덤벼들었습니다. 왜? 나만이 걸리지 않는 것이 아니라 모든 걸 걸리지 않고 줄 수 있는, 모든 걸 다 줄 수 있다면 뭐가 걸립니까? 내 생명과 더불어 다 팽개치는 이상에는 하나도 못 할 일이 없습니다. 걸리는 일도 없고 못 할 일도 없습니다. 항상 내가 살려니까, 내가 살아야겠다, 생명이 위대하다, 뭐다 뭐다 하고 붙으니까 걸리는 게 여러 가지로 많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여러분의 주인공에 모든 것을…, 주인공이 아니라고 해도 좋습니다. 여러분이 김가면 김가, 박가면 박가, 그 성이 바로 여러분의 한마음의 한 점이라는 것만 아시고, 만약에 거기다 모든 걸 맡겨 놓고 사신다면, '들이고 내는 것도 바로 박가가 들이고 내는구나.' 하고 '들이고 내는 것도 김가가 들이고 내는구나.' 아, 누가 했어, 여직껏! 그런 거니까 거기에다가 모든 걸 맡겨 놓고 '네가 한 거니까 네가 해결해.' 하고선 다 맡겨 놓는다면 바로 그릇은 홀랑 빌 겁니다. (녹음 안됨) (중략)

그래서 남의 말은 듣지 마라 이거야. 내 중심에서 오관을 통해서 보고 듣는 것에 이게 적합지 않다면 적합지 않은 걸로 밀고 나가고 적합하다면 적합한 걸로 밀고 나가고, 적합지 않다 하면 건너질 마라 이거야. 뛰지 마라! 듣지 마라! 욕심부리지 말고. 자기의 분수에 맞지 않는 일을 한다면, 자기의 분수에 넘친다면 언제나 해로움을 당해. 개천을 건너뛸 때도 내가 건너뛸 만해야 건너뛰는 거지, 건너뛰지 못할 데를 턱 건너다가는 한쪽 다리가 물에 빠져. 그러니 인생살이 모두가, 한 걸음이 자체가, 일생 동안에 이 모습의 꺼풀을 쓰고 한 일생이, 짧은 한 기간이 그렇게 처참하더라는 얘깁니다.

여러분! 부처님 법이 우리 떠나서 어디 있겠습니까? 밥을 떠 놓고 떡을 해 놓고 빌었던들 그 참다운 한마음의 한 점의 그 광대한 법을 어찌 알겠습니까? 그러니 내가 밥 한 그릇을 놓고, 죽 한 그릇을 놓고 먹는다 하더라도 바로 그것이 그 수많은 배고픈 사람과 같이 먹는다면 아마 그 죽 한 그릇은 되남을 겁니다.

"그러면 당신은 왜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정성껏 시주를 하라고도 하고 또 열심히 이 도리를 배우라고도 하고 그럽니까?" 이러겠지만 사람이 내 욕심만 채워서 되는 게 아냐. 욕심을 덜어라 이겁니다. 내 것만 아낄 줄 알고 내 것만 있는 줄 알지 말고. '내가 살고, 내 거고, 모두 내가 하고' 이렇게 하니까 남을 원망하게 되고 또 조상 탓을 하게 되고 참다운 나를 못 봐.

모든 것은 일체 자기 탓이고 자기가 났기 때문이야. 이런 말을 여러분 앞에 해 드리죠. 그러니 모든 것은 각자 나로부터, 여러분과 더불어 이 세상에서 그러한 일생을 보낸다 할지라도, 강도가 들어서 칼로 찔러 죽이고 또 찌르고, 어떠한 아픔이 있고 물품을 다 가져간다 하더라도 그건 내 탓이지, 도둑질하는 그 사람의 탓이 아닙니다. 그건 그 사정을 모르기에 그렇지, 사정은 사정대로 있기에 그렇습니다. 자비라는 그 말이 어디에서 나온 줄 아십니까? 값싼 사랑, 애정 이런 데서 자비라는 게 나온 것이 아닙니다. 참답게 죽고 사는, 또 아주 쓰라리고 아프고, 또는 따뜻하고 좋고 이런 걸 한데 합친 그것을, 균등을 잡아서 나갈 수 있는 이 우주의 근본 한 점의 바로 그 원리를 아주 값비싼 한 방울의 눈물이라고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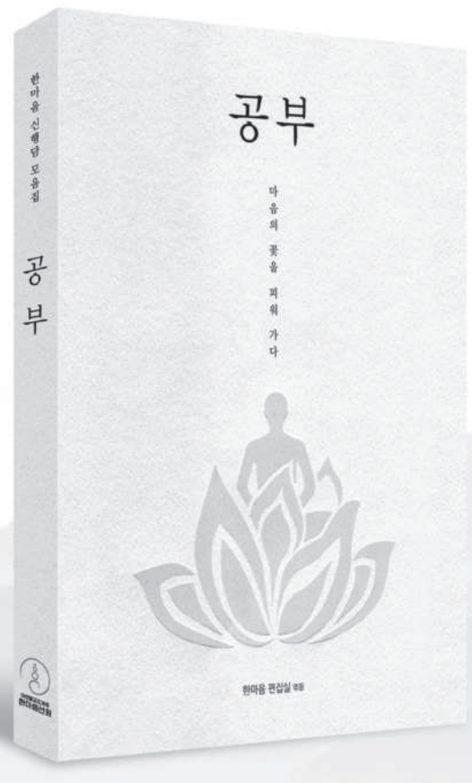
사랑을 하려거든 몽땅 다 주십시오. 하나하나 '내 거, 네 거' 이러면 다 얻질 못합니다. 몽땅 다 주신다면 몽땅 다 서로가 나 아님이 없기 때문에 몽땅 다 내 것이고, 몽땅 다 나 아님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럴 때에 서로가, 내가 그분의 속에 들어갈 수도 있고 내가 그분이 될 수도 있고 그분이 내가 될 수도 있어야 이 우주 섭류의 근본을 알아서 서로 진짜 물질 아닌 무주상 보시를 할 수 있는 그런 능력과 더불어 다섯 가지의 오신통을 그대로 부리면서 우리는 참다운 대장부로서의 자유인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일생을 오늘 얘길 했습니다마는 여러분의 일생도, 그렇게 지내는 일생도 '야, 인생이 살기가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하며 사시는데, 그것보다 더 아프고 쓰리고 살을 칼로 짝짝 에어 가는 아픔을 느끼면서 사는 일생도 있으니 말입니다. 참고적으로 들으시고 이것이 설법이라기보다는, 우리 인생살이가 아니라면 설법이 어디 있고 또는 부처님 법이 어디 있겠습니까? 부처? 우리가 없고 부처 따위가 어딨습니까? 예?

> 한 길을 한 걸음 쓰라림을 겪어 오면서
> 또 잘못해 가면서
> 잘못한 거를 회개해 가면서
> 살아가는 도중에 부처가 나는 것입니다.

※위 법문은 1986년 5월 6일 일반법회에서 설법하신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한마음선원 홈페이지(www.hanmaum.org)에서도 같은 내용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마음의 꽃을 피워 가다 공부



한마음선원 신행 포교지인 〈한마음〉에 실렸던 신행담들 중에서 일부를 선별하여 엮은 책입니다.

《공부》는 마음공부에 관한 책이자 인생 공부에 관한 책입니다.

길을 함께 걸어가는 도반들의 진솔한 이야기,
다시 꺼내 보니 새삼 와 닿는 이야기, 그래서 더 많은 이들과 함께 나누고픈 39편의 다양한 이야기들이 담겨 있습니다.

한마음 편집실 엮음 | 256쪽 | 값 12,000원

판매처
- 현대불교신문사 02-2004-8216
- 운주사 02-3672-7181
- 한마음선원 본원 무진향 031-470-3118
- 전국 온라인 서점 판매
- 온라인 주문 현불샵 http://www.hyunbulshop.com
  한마음 블로그 『한그루의 숲』 http://blog.naver.com/hanjournal1

대한불교조계종 한마음선원
13908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경수대로 1282
TEL : 031)470-3100 FAX : 031)470-3116
www.hanmaum.org



일감 스님의
암각화 기행

하늘사슴



바양울기, 슈베트하이르항

타왕복드 성산(聖山)이 멀리 보이는 신비로운 곳에 '하늘사슴' 암각화가 있다. '하늘사슴'이라는 이름은 내가 붙인 이름이고, 보통은 '스키타이' 사슴이라고 부른다. 스키타이 사슴 암각화는 여러 지역에 분포하고 있으며 숫자도 적지 않다. 그 중 이 암각화가 단연 눈에 띈다. 이 암각화는 뾰족하게 솟은 삼각형의 등, 새 주둥이, 그리고 화려한 뿔 등 스키타이 사슴의 특징을 잘 갖추고 있으며, 크기도 크고, 주변의 이야기들도 잘 꾸며진 암각화다. 이 사슴의 가장 큰 특징은 사슴의 주둥이가 새의 부리 모양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하늘이 땅에 내렸다

춥고 배고픈 사람들 불쌍히 여겨
성품 순한 사슴으로 땅에 내렸다

눈에 잘 띄라고 화려한 뿔을 달았고
줄만 던지면 쉽게 잡혀 주었다

피와 살은 배고픔을 채워주었고
부드러운 가죽은 추위를 막아 주었다

구멍뼈는 악기가 되어 삶을 위로하였고
정강이뼈는 아이들의 장난감이 되었다

종래에는 큰 뿔을 날개 삼아
넓적부리 새가되어 하늘에 올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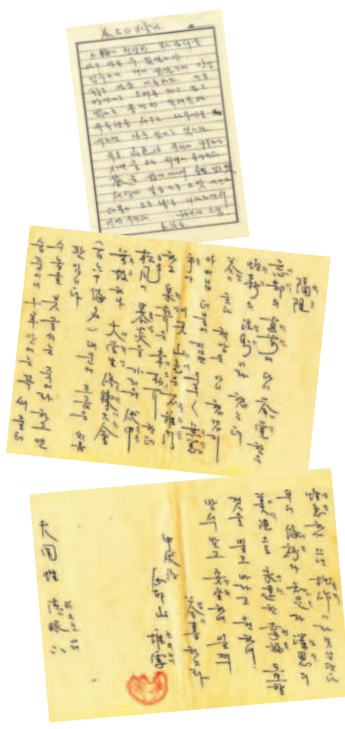
뭇 생명들의 애달픈 염원을 안고
다시 또 내려올 하늘이 되었다

아… 하늘 사슴이여



대원성보살의
선지식 '산중서신'
⑨ 일타 스님 5

마음 쓴다는 것, 세상 나눠 갖는 일



〈서신 1〉
격조

망각의 직전에 다시 거각함은 항신의 법칙이라 했는데 답이 늦다 책망은 아니 했겠지. 아버님과 더불어 집안 두루두루 무양호아 이곳 산색은 불이문하고 천승은 상도이 한데, 송풍이 폭염을 가리워 복중 무고하나 대학생 수련대회 160여 명 때문에 조금은 씨름판입니다.

수놓을 붓글씨는 죽어라하고 연습 중이니 10년 안에는 꼭 써줄 테다. 성급하게 쓰면 졸작이라 못 쓴단다. 부디 여유와 지족과 심사의 미덕으로 영원한 행복 도모할 것을 빌고 바라고 원하며 방석 받고 안좌하여 일찍 답서하노라. 중추절 가야산 퇴설(눈무더기)

그 해에 손뜨개질로 방석을 만들어 인연 있는 스님들께 선물을 했었다. 일타 스님께도 보내드렸는데 스님께서 방석을 받으시고 나서 보내신 서신이다.

평소 같으면 선물을 받으시고 바로 답장을 하셨을 텐데 이 서신은 선물을 받고나서 시간이 많이 지난 후에 보내셨다. 스님께서는 선물에 대한 인사를 바로 하지 못한 것이 마음에 계속 걸려있었던 것 같다. 서신 첫 머리의 '격조'라는 말에서 스님의 마음이 어떠했는지 잘 알 수 있었다.



일타 스님(왼쪽)과 대원성보살이 함께 웃고 있다.

모든 것에는 이유가 있을 터. 이래저래 설명 없이 '격조'라는 말 한 마디가 여러 말을 대신한다. 부처님이 들어 보이신 한 송이 연꽃처럼 스님은 '격조'라는 말로 대신하셨고, 나는 구구절절 많은 말에서보다 더 많은 뜻을 읽을 수 있었다.

인연에 시간이 쌓인다는 것은 그런 것이었다. 특히 큰스님들과의 인연에 시간을 쌓는 것은 그 자체가 공부였다.

서신의 글 한 자에 마음이 한 참을 머물고, 그 고요한 시간에서 마음은 깊어간다. 비록 한참 만에 받은 서신이지만 서신이 있기까지 스님은 늘 내게 안부를 준비하고 계셨고, 그렇게 내게 온 답장에서 나는 그 동안의 마음을 볼 수 있었다. 인연이 깊어간다는 것은 그런 것이었다.

〈서신 2〉
대원성 보살아,

삼륜(三輪)이 청정한 보시공덕을 아니 받을 수 없었지만 집수리가 거의 끝났기에 안심찮은 마음 가득하다. 지금 방안에는 도배를 하고 있고 밖에는 콩만 한 쪽 대문과 목욕탕을 세우고 나무 깐을 꾸리면 아주 끝나는 것이다. 푸른 산색(山色)은 문전에 가득하고 시냇물소리 귀결에 종쟁한데 차(茶)를 끓여 마시며 솔잎 씹는 맛 세상에 일등 가는 그 맛 아닌가! 더불어 오는 날을 기다리면서 이만 줄인다.

–6. 16 해인사 스님.

일타 스님이 지족암 계실 때다. 보수불사가 있었는데 연꽃모임 회원들이 불사에 동참했다. 불사가 거의 끝나갈 때 주신 서신이다. 이때도 마음이 조금은 급하셨던 것 같다.

고마운 마음을 하루라도 빨리 전하고 싶었던 것 같다. 불사가 다 끝나지도 않았는데 서신을 주신 것을 보면 알 수 있다. 불사가 모두 끝난 후 천천히 주셔도 될 일이지만 스님의 마음은 급했던 것이다.

그렇게 스님은 써야할 마음 앞에선 하루가 여삼추였던 것이다. 누군가에게 마음을 쓴다는 것은 세상을 나누어 갖는 일이다.



| 공모주제 - 자유
- 핸드폰 카메라로 찍었지만 너무 잘 찍어서 혼자 보기에 아까운 사진
- 사찰, 경내, 꽃, 하늘, 도반, 순례, 포행, 인물, 동물등 재미있는 스토리가 담긴 사진
- 다른 사람들과 함께 보고 격하게 공감하고 싶은 사진 또는, 스님들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평범하고도 훈훈한 감동 있는 사진 등

| 출품방법
· BTN홈페이지에서 "아주 특별한 폰사진 공모전" 페이지를 통해 업로드 접수

| 공모일정
· 응모기간 : ~ 6월 30일 / 심사발표 : 7월 말 BTN 홈페이지(개별통보)

| 공모대상
· 국내 사찰에 거주하고 있는 스님들만(외국인 스님 포함) 응모 가능합니다!
(일반인은 응모자격에서 제외됩니다^^)

| 문 의
· 카카오톡 검색창에 [한국불교대표방송 BTN] 검색, 친구추가 후 문의
· 또는 btnucc@btn.co.kr로 문의

| 출품규격
· 휴대폰으로 촬영한 3Mb 이상 10Mb 이하의 JPG파일
· 1인 10점까지 가능(출품비 없음)
※ 1인당 응모사진이 10장이 넘을 경우 자동적으로 접수가 빠른 순대로 10장까지만 정식 접수됩니다. 이후는 응모작에서 제외

| 시 상

BTN사장특별상 (1명)	성지순례 상품권(130만원 상당)
대상 (1명)	상금 300,000원
금상 (3명)	상금 200,000원
은상 (4명)	상금 150,000원
동상 (5명)	상금 100,000원
가작 (10명)	상금 50,000원
입선 (10명)	20,000원(기프티콘)

[NOTICE]
· 출품작은 국내외 타 공모전에 출품 및 발표되지 않는 순수 창작 사진이여야 하며, 입상작의 출판권, 저작권은 출품자와 BTN이 공유합니다.
· 출품 작품의 초상권과 저작권 분쟁에 관한 책임은 출품자에게 있음.
· 수상 결격사유 시 수상취소와 지급된 상금은 반환/중복시상은 하지 않고 순위가 높은 분야만 시상하며 입상작은 심사 발표일로 5일 이내 지정된 메일 주소로 원본파일 제출.

[수상결격사유]
· 다른 작품을 표절, 합성, 공공질서 또는 미풍양속에 저해되는 경우.
· 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디자인권 및 저작권 등 국내 외 관련법규에 의한 법정분쟁 있는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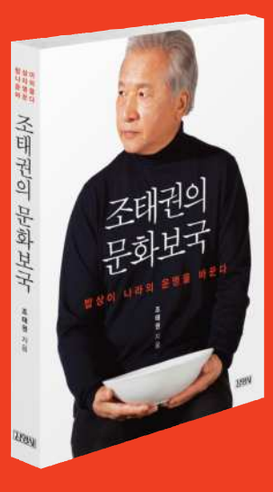
BTN 붓다회 동참문의 1855-0108 | olleh 233번 tv 305번 U+TV 275번 skylife 181번 지역케이블문의:02)3270-3300

“무모하다 그 남자!”

24년의 시간, 600억 원의 투자! 그는 왜 한식에 인생을 걸었는가? 무엇이 그를 불타오르게 했는가?

국내 최초의 생활 도자기 개발, 찬사와 비난을 동시에 받았던 최초의 고급 한식당‘가온’오픈, 고급 한식을 완성할 전통술의 재현, 전통 이미지를 살린 벽지 개발까지!
명품 한식이라는 단 하나의 사명에 인생을 건 남자. 조태권의 지독하지만 숭고한 휴먼 스토리. 밥상으로 나라의 운명을 바꾸기 위한 백발 청년의 무한 도전이 펼쳐진다.





“우리 전통과 문화도 명품이 될 수 있다!”고정관념을 깨고 전통의 가치를 재창조하는 기업가 조태권의 첫 번째 책!

무엇인가에 미친 열정적인 사람은 보고 있는 사람마저 달아오르게 만든다. 스스로 미쳤다고 말할 만큼 온전히 미친 그는 한식에 빠졌고, 도자기에 빠졌고, 술에 빠졌고, 마침내 우리 문화에 미쳤다. 그런 그의 미친 행적이 얼마나 큰 정신적, 경제적 부를 세상에 안겨다 줄지, 20년 이상 그를 겪어 본 나로서는 확신하는 바가 있다. 그는 결코 더 가지기 위해 또는 더 얻기 위해 스스로 미친 것이 아니다. 한때 몽상가라 불리던 그의 광기는 애국적 열정이라 부를 수 있는 성질의 것이다.

- 김재진(시인)

조태권 지음 | 304쪽 | 13,000원

T. 031)955-3200 www.gimmyoung.com 김영사